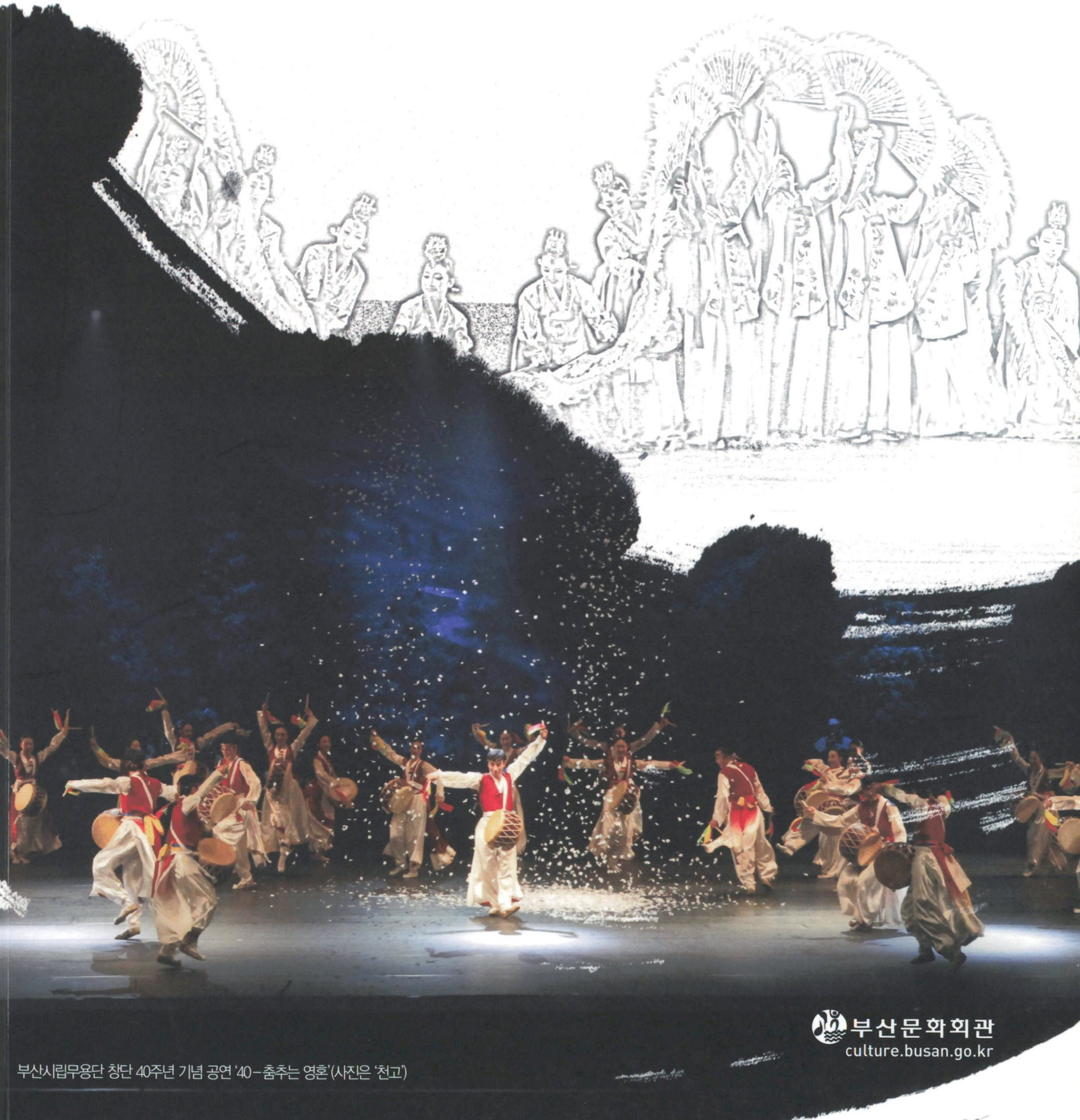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1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November Vol.263



#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 거장들의 만남

러시아 지휘계의 거장  
'유리 시모노프'

필립스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 PROGRAM

Glinka  
(1804-1857)

"Waltz-Fantasy" b minor for Orchestra

Rachmaninoff  
(1873-1943)

Piano Concerto No.3 d minor

Rachmaninoff  
(1873-1943)

Symphony Dances Op.45

지휘 \_ 유리 시모노프  
Conductor \_ Yuri Simonov

피아노 \_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Piano \_ Andrei Gavrillov



# 2013. 11. 5(화) pm 7:3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K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 공연과 (051)607-6057 (정기회원 20% 할인)

입장권 VIP 15만원 / R 12만원 / S 10만원 / A 8만원 / B 5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 티켓링크 1588-7890 / BS 부산은행 전지점

세상을 감동시킨 울림, 그 행복한 두드림으로의 초대!

# NANTA

## 난타



### 12.7 SAT ~ 8 SUN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토 3시, 7시 / 일 2시, 6시 예매 인터파크, 옥션티켓 문의 **1599-8879**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제 25 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Vn. 정경화

Pf. 케빈 케너

# 이름다운 저녁

예술감독 | 김원명



2013. 11.10 (일)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KBS 부산방송총국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한국음악협회부산광역시지회, (주)CMI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금액 | 3만원 / 2만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 051-220-5812

무대감독 | 전광수 음향감독 | 이광섭 조명감독 | 오종영

\* 본 공연은 <2013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문화로 꽃이  
피었습니다

제26회 을숙도명품콘서트

# Berlin & Moscow 遭遇

# 조우

예술감독 | 김원명

The 26nd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Cello

*Martin Löhr*



Conductor

*Stanislav Diachenko*

Program

**Tchaikovsky** Pique Darn(The Queen of Spades) overture to the operetta

**Schumann** Cello Concerto in A minor Op.129

**Tchaikovsky** Symphony No. 6 in B minor Op.74 "Patheique"

## 2013. 11.26 (화)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일보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사)한국음악협회부산광역시지회, T.I.F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금액 | 2천원 문의 | 051-220-5812

무대감독 | 전광수 음향감독 | 이광섭 조명감독 | 오종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을숙도명품콘서트는 <2013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하순봉 · 교향시 <부산 기질>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작품27

# RACHMANINOV Symphony Series II

Maestro Oh Choong-Keun & Busan Symphony Orchestra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시리즈 II

2013년 11월 18일 (월) 오후 7시 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재단

조광페인트

비엔그룹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굿모닝백이안과



티켓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 (전석 학생 50%할인) \*수능생 무료초대(수험표 지참, 선착순 전화예약)

예매 BS 부산은행 전지점, 문화포털 팝부산 www.popbusan.com 문의 051)621-4577 www.bso21.com

\*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CONTENTS

2013 November Vol.263 culture.busan.go.kr

- 08 커버스토리 |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 '40- 춤추는 영혼'
- 10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독일 소도시의 문화계 스케치 \_권재욱
- 22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㉔ | 괴테와 글록의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中)\_이동신
- 24 불멸의 거장 - 바그너 ⑥ | 베토벤과 바그너\_ 임채흥
-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㉓ | 단풍잎 쌓인 산사로 가는 길 산사귀승(山寺歸僧) \_ 변광석
- 28 그곳에 가면 | 커뮤니티 문화센터 '금수현의 음악살롱'
- 30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은행 문화예술동호회 '하얀 도화지'
- 32 리뷰 | 부산시립교향악단 오페라 인 콘서트 '리골레토'\_박진홍  
부산시립극단 '언챙이 곡마단'\_김문홍
- 34 테마가 있는 여행 | 사과향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 37 Culture Life
- 59 생각그림 | 흐르다Ⅲ \_ 하인상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11월호 통권 263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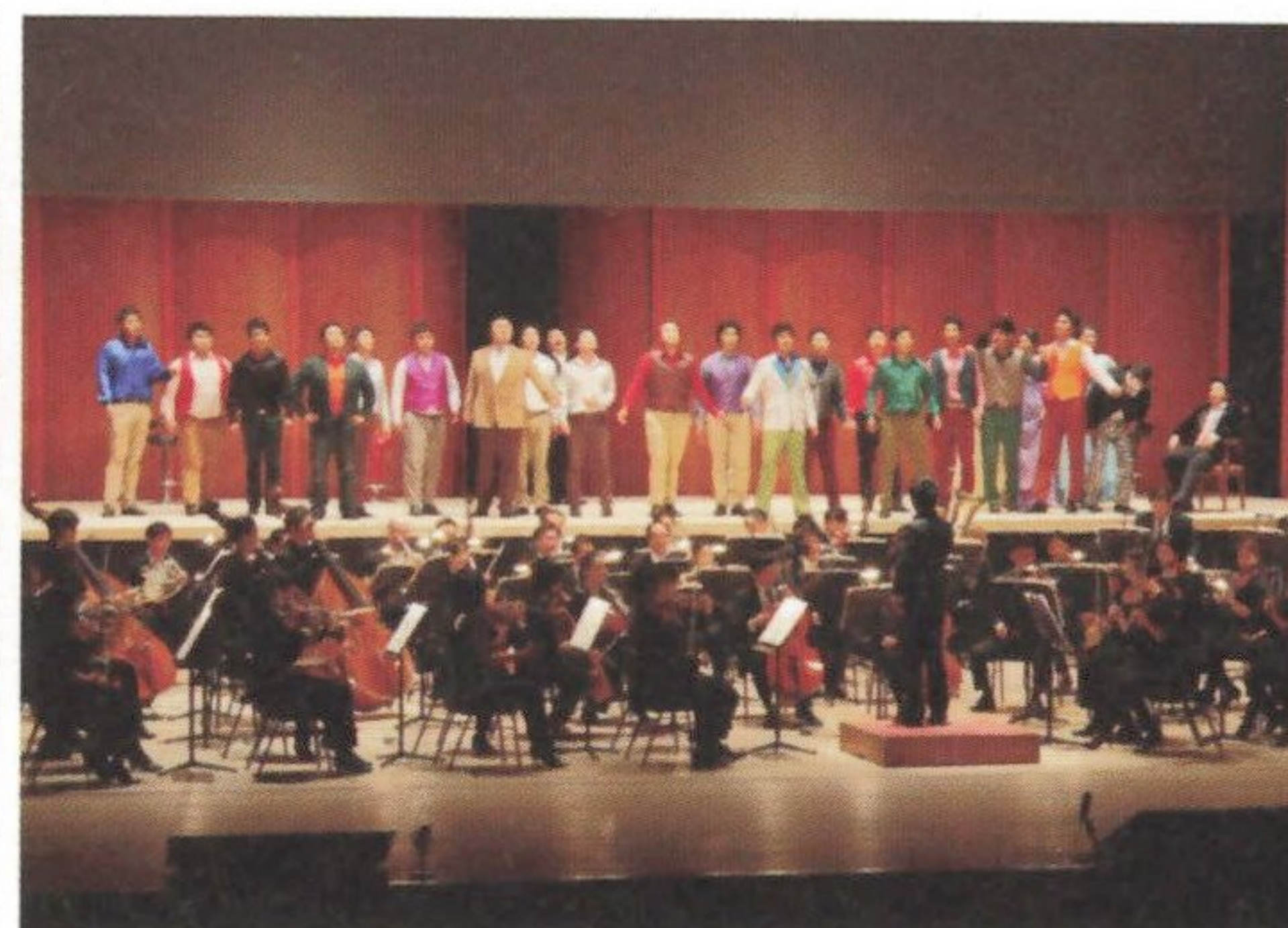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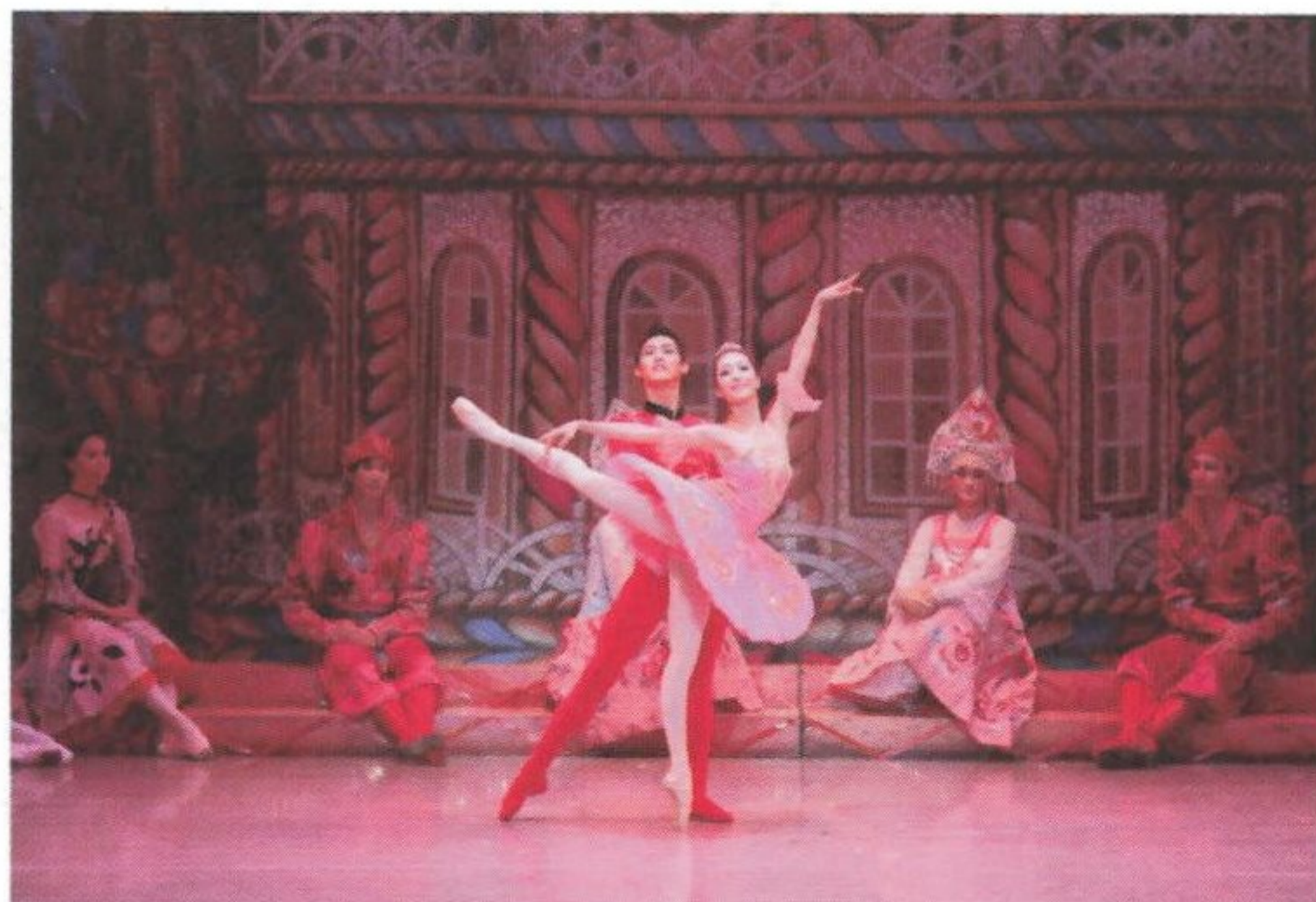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박성택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10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 기념 제69회 정기공연

# 40-춤추는 영혼

생과 사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

조선시대 최고의

판타지 로맨스 소설

이생규장전

부산시립무용단이 2013년 창단 40주년을 기념해 11월 21일과 22일 생과 사,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과 사랑 이야기 '40-춤추는 영혼'으로 부산시립무용단의 원숙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준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인간과 삶, 우주와 세계를 춤으로 승화시켜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창단 40주년 기념 무대로 자신있게 준비한 '40-춤추는 영혼'은 고전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감각의 작품이다.

'40-춤추는 영혼'은 조선시대 판타지 로맨스 소설 '이생규장전'이 그 바탕이다. 현실의 제도, 관습, 운명관, 전쟁 등의 시련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환상적이고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





일 시 11월 21일-22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라저도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춘향과 이몽룡, 로미오와 줄리엣도 부럽지 않은 사랑이야기로 조선시대 최고의 판타지 로맨스 소설로 꼽히는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의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개의 단편 소설 중 하나로 집안의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의 결실을 맺은 이생과 최랑이 주인공이다. 시대는 고려 말, 이생과 최랑이 첫눈에 반해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의 결실을 맺지만 최랑의 정혼자였던 박풍이 이를 질투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홍건적을 끌어들여 혼란을 일으키고 최랑을 얻고자 한다. 결국 홍건적의 난으로 양가 부모와 최랑을 잃고 홀로 남게 된 이생은 최랑을 그리워하고, 이승에서 못 다 이룬 이생과 최랑의 애절한 사랑에 하늘이 감동하여 이들은 다시 연을 맺지만 3년이라는 시간만 주어진다. 3년이 지나 또 다시 이별의 시간은 돌아오지만 그들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사랑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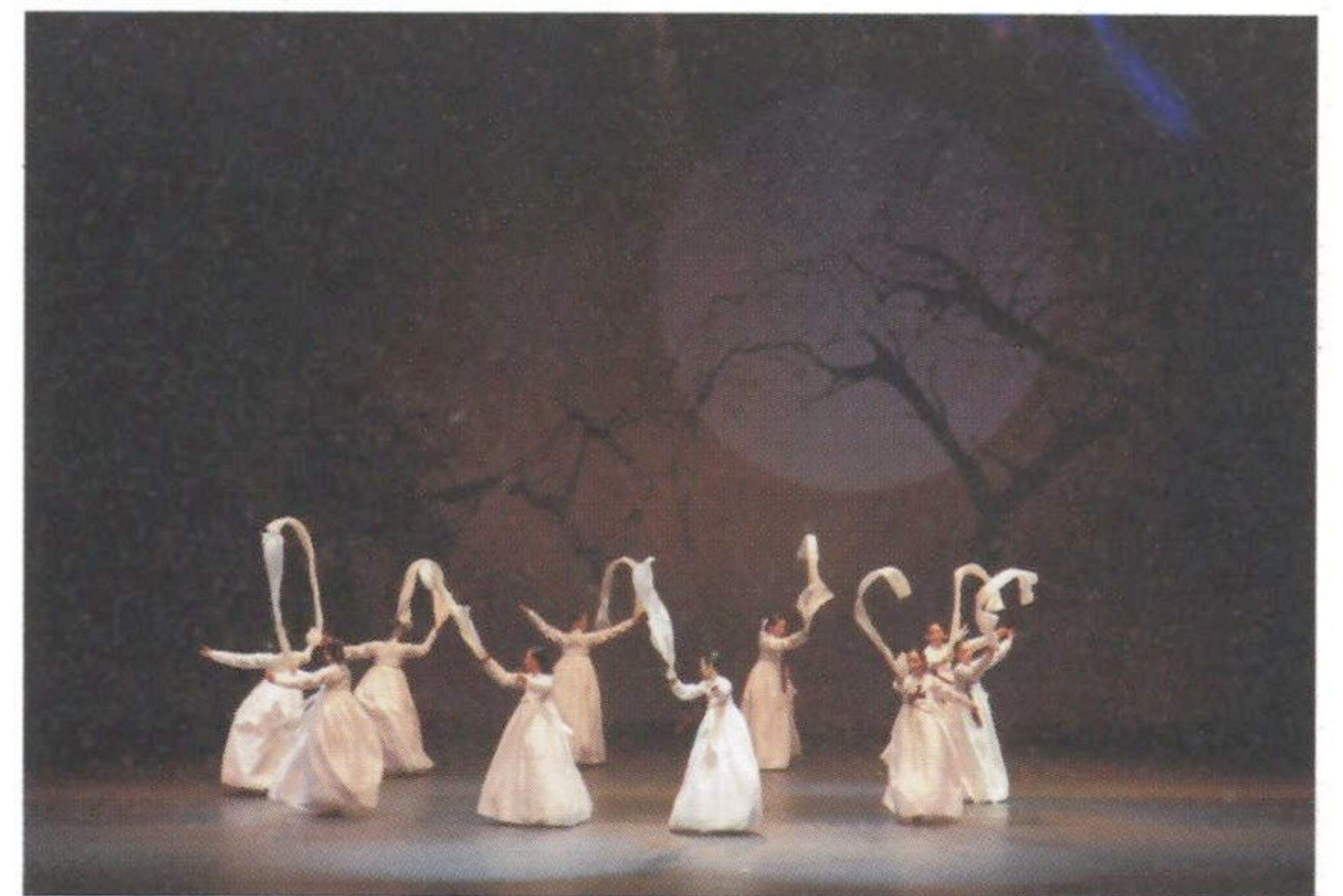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은 '40-춤추는 영혼'을 통해 죽어서도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해 시간의 강을 거슬러 돌아온 여인과 생사를 넘어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를 통해 고전과 현대를 뛰어넘어 초월적 울림을 갖는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사랑의 참된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창단 40주년을 맞아 2013년 1월 부산시립무용단 제9대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로 취임, 부산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홍경희 수석안무자가 연극놀이연구소 As if 소장 이미연의 대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창조해내고 극단 차이 대표 구현철이 연출을 맡아 현실과 환상적 세계를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를 그려낸다.

전체 작품은 프롤로그-시간의 강을 시작으로 제1장 운명적인 만남, 제2장 무르익는 사랑, 제3장 전쟁과 이별, 제4장 인연의 환(環), 에필로그-인연의 강으로 구성, 현실과 환상적 세계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사랑을 펼친다. 최랑과 이생 두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제1장 운명적 만남에서는 특히 담장 안 설렘에 가득한 여자의 춤, 담장 밖 호기심 가득한 남자의 춤, 담장 안 꽃들과 나비들의 춤(꽃바구니춤), 담장 밖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사내들의 춤으로 재미를 선사하고 제2장에는 사랑춤(사랑가를 연상하게 하는 춤), 최랑, 이생의 듀엣 등 다양한 춤사위로 무르익어가는 사랑의 장면을 연출한다. 전체 스토리를 이어가는 최랑에는 김도은이, 이생에는 장영진이 출연하고, 권봉정이 향아를, 황동하가 동자로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과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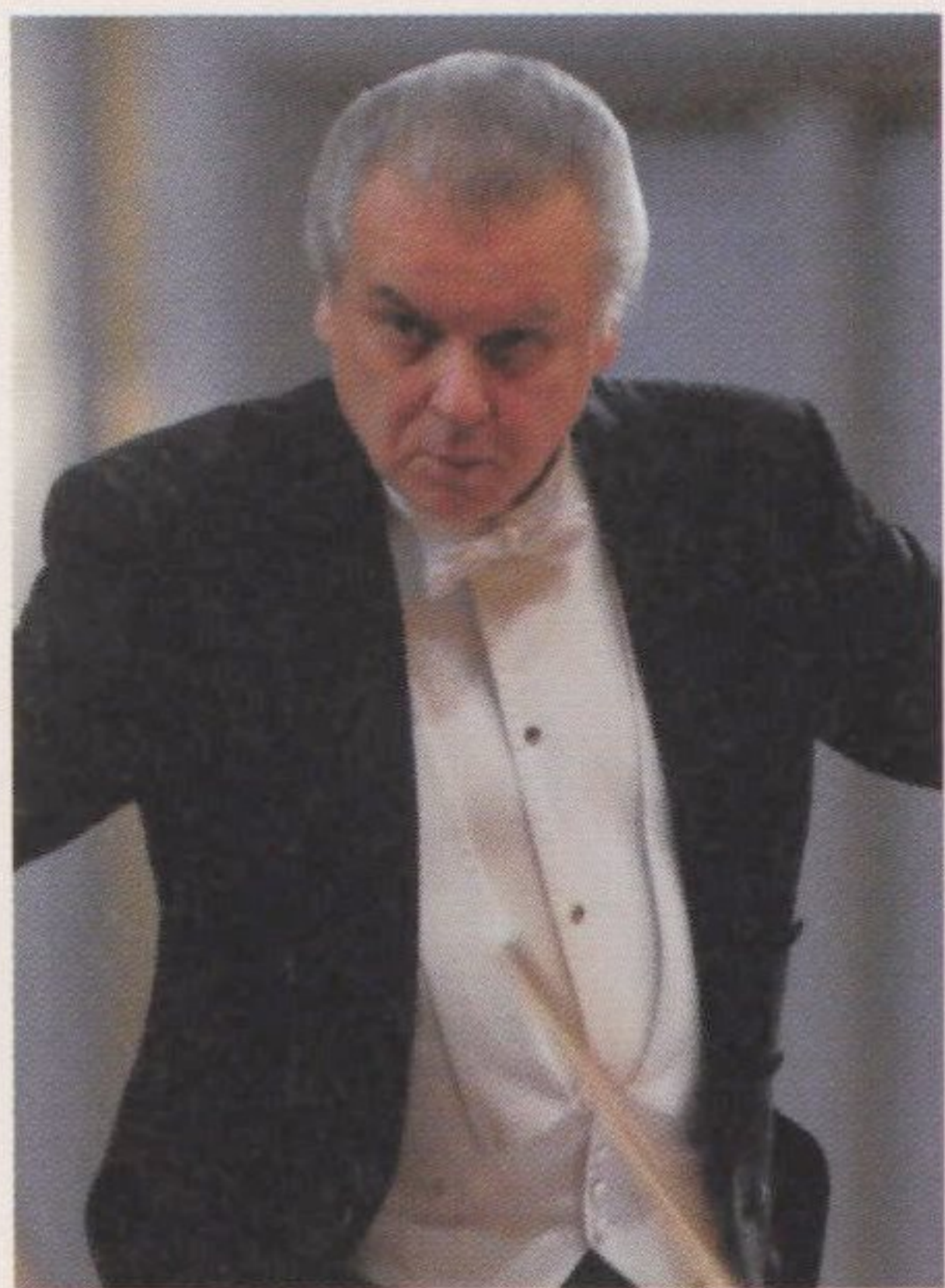
공연이 진행되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대극장 로비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지난 활동을 볼 수 있는 작품 사진 및 포스터 액자 20여점이 전시된다.

창단 40주년 제69회 정기공연을 기념해 69가족에게 '3+1 가족사랑 이벤트'와 11월 13일까지 40과 연관된 사연을 부산시립무용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www.korean-folkdance.com](http://www.korean-folkdance.com)에 남긴 시민을 추천, 공연 관람권을 증정하고 40세 관람객에게는 40% 할인(R석에 한함) 특전을 제공한다.



■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중 '풀이'

##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 지휘자 유리 시모노프



■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심포닉 전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시계로 잼 듯 정확하며, 사운드가 산뜻한 바람과 조화를 이루며 생생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세계 5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11월 5일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러시아 지휘계의 거장 유리 시모노프가 지휘하고 현존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가브릴로프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100여명이 러시아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1951년 사무일 사모수드에 의해서 창설된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73년 ‘academic orchestra’의 지위를 얻었다. 그동안 나단 라클린, 키릴 콘드라신, 드미트리 키타옌코, 바질리 시나이스키, 마크 엄러를 포함해 뛰어난 지휘자와 음악감독들이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거치면서 러시아 심포닉의 전통을 더욱 강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호평받아왔다.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성공은 구 소련과 러시아 최고의 지휘자와 로린 마젤, 샤를 뮌슈, 이고르 마르케비치, 커트 샌더링,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주빈 메타, 크지쉬토프 펜데레츠키와 같은 뛰어난 객원지휘자들, 아이작 스텐, 예후디 메뉴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글렌 굴드, 마우리치오 폴리니로 등 저명한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알 수 있다.

기술적인 완성도와 표현력, 그리고 예술성 있는 연주의 환상적인 조화가 깃들여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들을 선보여온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5,000회 이상의 공연과 300개 이상의 음반을 제작, 러시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12세대 학교 교향악단의 모차르트 협주곡 40번 연주를 위해 처음으로 지휘대 앞에 섰던 유리 시모노프는 2003년 1월 12일 지휘자 데뷔 50주년을 맞은 거장이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유리 시모노프는 세계적인 지휘자인 아바도를 대신하여 런던 심포니를 지휘하여 ‘차이코프스키를 탁월하게 해석하여 호화스러운 낭만적 기풍을 고양하면서도 설득력을 잃지 않는 훌륭한 지휘자’라는 극찬을 받았다.

협연자 안드레이 가브릴로프는 1974년 18세의 나이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등상을 받고 화려하게 데뷔했다. 필립스 선정 ‘20세기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사람으로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안드레이 가브릴로프는 1978년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유럽 주요 공연장 30여개에서 순회공연을 가졌다.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라는 찬사와 수많은 상을 수상한 가브릴로프는 외국 연주때 언론을 통해 소련 당국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외부와 격리 되었고 한때 공연장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1984년 고르바초프에게 서방 여행을 허가해줄 것을 편지로 요청, 고르바초프가 이를 수용하였고 그해 런던에서 연주와 녹음을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일 시 11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50,000원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시립극장 초청 오페라 나부코(Nabucco)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시립극장의 베르디 최고 걸작 오페라 '나부코'가 11월 8일부터 3일간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오페라 '나부코'는 베르디의 초창기 작품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걸작으로 '합창의 오페라'로 불리기도 한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던 베르디에게 작곡 의욕을 되찾게 해준 '나부코'는 1842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당시 청중들의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나부코'라는 독특한 제목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카드네자르 2세를 이탈리아어로 부른 이름이다. 전체 내용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나오는 바빌론의 느부가네살(Nebuchadnezzar) 왕에게 잡혀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3막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날아가라 내 마음여, 금빛 날개를 타고(Va, pensiero, sull'ali dorate)'는 이탈리아 제2의 국가로 불릴 만큼 유명하다. 1901년 베르디가 사망했을 때, 토스카니니가 그의 장례식에서 이 곡을 레퀴엠으로 지휘해 영전에 바치기도 했다.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첫 내한공연을 갖는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시립극장(Teatro Comunale Luciano Pavarotti Modena)은 1841년 개관, 베르디의 전성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주요 극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2007년, 모데나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파바로티가 타계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시립극장의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무대는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시립극장이자 지휘자인 알도 시실로(Aldo Sisillo)가 지휘를, 30여 년간 이탈리아 주요 극장의 무대감독, 예술감독, 극장장을 역임한 연출의 마법사 잔도메니코 바카리(Gian-domenico Vaccari)가 연출을 맡았고 움베르토 조르다노 앙상블 리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디노 데 팔마가 예술감독으로 참가한다.

오페라 전체를 이끌어갈 '나부코'역에는 비평가들이 최고의 베르디 가수에게 수여하는 아비아티(Abbiati)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바리톤 파올로 코니와 부산을 대표하는 바리톤 박대용이 열연한다. 그외 유럽 최고의 디바 에바 골레미, 로마 국제 종교음악콩쿠르 우승, 라우리 볼피 콩쿠르 등에 우승한 소프라노 안젤라 니콜리, 창원대학교 교수 소프라노 김유섬이 아비가일레로, 보체 푸치니 Chiara Fontana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테너 레오나르도 그라메냐와 테너 김지호가 이즈마엘레로, 헝가리 국립오페라 극장의 주역 가수 베이스 안토니오 비로찌, 베이스 유형광이 자카리아로,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급성장한 메조소프라노 미켈라 나텔라가 페레나 등으로 출연한다.



일 시 11월 8일-10일  
금-일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80,000원 S석 230,000원  
A석 160,000원 B석 100,000원  
C석 80,000원 D석 50,000원  
문 의 솔오페라단 공연 기획팀  
(1544-9373)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4회 정기연주회

## 부산시향과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



■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3월 20일 교향곡 제1번, 교향곡 제2번 연주를 시작으로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1월 15일 교향곡 제5번 '운명'과 제6번 '전원'으로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다섯번째 무대를 장식한다.

교향곡 제5번 '운명'과 제6번 '전원'은 베토벤이 귓병 악화로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정양중이던 1808년 같은 해 작곡된 베토벤의 대표곡이다.

제5번 '운명'은 '운명의 문은 이렇게 두드린다'라는 첫 악장의 네 음을 모티브로 '운명'이란 부제가 붙었다. 베토벤은 이미 1803년에 이 작품을 스케치했으나 미망 인과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격렬한 투쟁과 승리를 노래하는 교향곡 4번과 5번을 작곡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중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애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무렵 점차 격정적인 음악으로 방향을 바꾸어 1807년 '운명' 작곡에 다시 착수, 1808년에 완성하였다. 1805년부터 1808년까지 베토벤은 더욱 견고해진 창작력을 발휘하여 여러 걸작들을 쏟아내며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었으나 귓병이 악화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등 내면적 갈등 또한 커져 갔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탄생한 '운명'은 베토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불굴의 투지로써 모든 고난과 공포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그의 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다. 곡의 유명한 첫 모티브는 음악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며 작품의 통일성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당시 베토벤이 '보다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파괴하지 못할 규칙이란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으레 지켜지는 모티브

의 구성이나 리듬의 진전, 악장의 구상 등을 모두 뛰어넘은 '불규칙성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간단한 화성으로 시작하여 피날레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리듬의 구성이 예상치 않은 곳에서 뒤바뀌는 리듬의 불규칙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08년 12월 22일 안 데아 빈 극장에서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으며 그의 후원자였던 로브코비츠 공작과 라주모프스키 백작에게 헌정되었다. 연주시간은 약 35분.

교향곡 제6번 '전원'은 전원 생활과 자연에서 받은 감명을 담아 작곡한 작품이다. 곡의 총보에는 '전원 교향곡 혹은 전원 생활의 회상'이라는 표제가 붙어있지만, 그 해석은 듣는 사람의 자유에 맡겨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5개의 각 악장에는 각각 전원 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 시냇가에서, 농부들의 즐거운 모임, 폭풍우, 목동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교향곡 제5번 '운명'과 같은 해의 작품이라 그 착상이나 스케치, 전개 등의 면에서 예술적 연관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제5번은 인간을 표현하고 남성적이며 지극히 집중적인 곡인데 비해, 제6번은 자연을 표현하고 여성적이며 넘쳐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곡으로 완전히 상반된 면도 있다. 초연은 제5번 운명과 함께 1808년 12월 22일 빈의 안 데아 빈 극장에서 이루어졌고 운명교향곡과 마찬가지로 로브코비츠 공작과 라주모프스키 백작에게 헌정되었다. 연주시간은 약 40분.

이번 무대에서는 1부에서는 제6번 '전원'을, 2부에서는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일 시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새로움, 설렘, 동행!

## — 옥류금, 해금, 중국양금, 첼현금, 태평소

전통과 어우러지는 창작국악관현악곡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1월 20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옥류금, 해금, 중국양금, 첼현금, 태평소 명 연주자들을 초청, 설렘이 묻어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양금협회 CWA 회원 윤은화와 서울시 청소년국악단 단장 유경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김경수, 김소현, 하지희가 옥류금, 해금, 양금, 첼현금, 태평소 협주곡으로 부산음악호가들과 만난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하지희 협연으로 옥류금 협주곡 '황금산의 백도라지'로 연다. 이 곡은 옥이 굴러가듯 아름다운 옥류금 선율이 돋보이는 연변의 음악가 황금산이 작곡한 도라지를 박위철의 편곡으로 재미있게 연주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김소현이 협연하는 해금을 위한 협주곡 '활의노래' 부산초연 무대. 가냘픈 두 줄에 기대어 세상의 모든 음울을 품는 듯한 해금 연주를 들려준다. 홍정희 곡 양금협주곡 '바람의 노래' 부산초연 무대로

부산국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양금연주자 윤은화는 중국기악콩쿠르(국가급 금상), 중국타악콩쿠르(국가급 금상)에 입상하고 그동안 종이타악그룹 'K:P' 대표, 'YUN EUN HWA' 개량양금연구소 대표로 활동을 펼쳐왔다. 양금화가 들려주는 '바람의 노래'는 국경도, 인종도 그 어느것도 방해될 것 없이 자유롭게 부는 여유로운 바람의 모습을 몽골 전통민요 선율에 담아 창작된 곡이다.

2002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3년 제1회 올해의 예술상, 2010년 KBS국악대상 현악부문을 수상한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단장 겸 예술감독 유경화는 첼현금 협주곡 '공감'으로 부산 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첼현금은 '첼'로 된 '현금' (거문고)란 뜻으로 1940년대 말 인간문화재 故김영철에 의해 만들어진 거문고와 기타의 하이브리드 악기이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김경수가 황호준 곡 태평소 협주곡 '검은 평화' 부산초연 무대로 장식한다. '검은 평화'는 평화를 꿈꾸는 작곡가가 시골의 아침풍경과 같은 평화로운 이미지를 태평소와 국악관현악의 앙상블에 담아낸 작품이다.

일 시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2)



■ 하지희



■ 김소현



■ 윤은화



■ 유경화



■ 김경수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유니버설발레단이 펼치는 환상적이고 신비한 무대 호두까기인형

동심을 자극하는 동화같은 이야기,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하는 고전발레의 명작 '호두까기 인형'이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부산관객을 찾는다.

11월 29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막이 오르는 '호두까기 인형'은 한국 최초의 민간 직업발레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최고 화제작이라 더욱 관심이 높다.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하고 마리우스 프티파 구상, 레프 이바노프 안무로 탄생시킨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세계 초연된 이래, 여러 안무가에 의해 재안무되어 지난 120년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이바노프 안무 중 2막 그랑 파드되를 유지하면서 바실리 바이노넬이 안무, 연출한 작품으로 이바노프 버전과

는 다른 아기자기한 재미와 감동을 준다.

1984년 창단된 유니버설발레단은 국내 공연계가 '해외 교류'에 눈뜨기 이전 초대 예술감독 에드리엔 텔라스부터 제5대 올레그 비노그라도프(전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예술감독)까지 해외 우수 예술가들을 과감히 영입, 세계 무대에서 한국발레의 위상을 드 높여왔다. 30여 차례의 해외 공연을 통해 한국의 발레 예술을 세계에 최초로 소개한 유니버설발레단은 2001년 미국 3대 오페라 극장(워싱턴 케네디 센터, 뉴욕 링컨 센터, LA뮤직센터) 및 캐나다 공연을 시작으로 2003년 한국 발레단 최초의 프랑스 파리 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1년부터 월드투어의 기치 아래 대만,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도쿄, 오만, 남아공, 모스크바, 파리 등에서 공연하며 세계적인 발레단으로 성공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역사가 매우 깊

일 시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30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0원-S석 70,000원  
A석 50,000원-B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58)



다. 1986년 리틀엔젤스 예술회관(現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애드리안 텔라스 버전으로 '호두까기 인형' 국내 초연 무대를 가진 유니버설발레단은 이후 26년간 총 620회 공연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67만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1990년부터는 로이 토비아스 버전으로 공연을 진행했고 1999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부터 바이노넨 버전을 한국 정서에 맞게 재구성하여 무대에 올리고 있다.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파티로 시작된다. 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클라라'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다. 파티에서 클라라의 대부 '드 롯셀마이어'의 신비한 마술로 파티는 더욱 흥겨워진다. 모두가 잠든 사이, 생쥐들이 집안을 어지럽히자 '호두까기 인형'과 병정들이 쥐들과 대결을 펼친다. '클라라'는 전투 중 위기에 처한 '호두까기 인형'을 구하고 병정들은 승리를 거둔다. 왕자로 변신한 '호두까기 인

형'과 '클라라'는 아름다운 눈송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환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신비한 환상의 나라에 도착한 그들을 환영하는 스페인, 중국, 러시아, 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의 춤이 펼쳐지고,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은 아름다운 사랑의 2인무를 추며 긴 밤 놀라운 여행을 마친다. 꿈에서 깨어난 '클라라'는 곁에 있는 '호두까기 인형'을 왕자님이라 생각하며 껴안고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하는 것으로 공연은 끝이 난다.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호두까기 인형'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발레 음악과 러시아, 스페인, 중국 등 각 나라의 민속춤을 발레화한 춤의 향연,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유니버설발레단의 여성군무 '눈의 왈츠'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29일은 황혜민, 엄재용, 30일은 김나은, 강민우가 주역으로 출연한다.

※출연진은 공연진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리 신차오

탁월한 음악적 해석과 리더십으로 부산 음악계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부산문화회관과 2년 계약을 연장, 2015년까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지휘봉을 잡게 된다.

중국 중앙음악원을 졸업하고 23세의 나이에 중국국립오페라발레단 상임지휘자로 발탁되면서 중국 음악계에 돌풍을 일으킨 리 신차오는 빈 국립음대 수료 직후 중국국립교향악단(CNSO)의 상임지휘자로 위촉되어 많은 화제를 모았다. 10월, '오페라 인 콘서트 리골레토' 공연을 마치고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리 신차오 지휘자와 서면 인터뷰로 재계약에 대한 소감을 들어본다.

## 지금은 창단 50주년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의 음악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나누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쁜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과 관객 여러분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2007년 처음 객원지휘부터 2009년 취임 후 지금까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민들과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2007년에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 지휘자로 초청받아 부산에 왔었습니다. 바로 그 공연이 제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의 멋진 우정을 나누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모든 지휘자들은 음악에 대해서 서로 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고, 해석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제 스타일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음악, 그리고 오페라라고 할까요. 저와 함께 한 지난 4년 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그 전에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청중들은 언제나 훌륭한 태도로 부산시향에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관객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부산시향에 대해 보다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부산시향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오페라 인 콘서트, 베토벤 사이클 등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에 이어 2014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여러 나라의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오페라 in 콘서트'는 올해, 무대 뒤에 높은 무대를 만드는 '한 무대 위 두 무대'를 시도했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무대 형태는 이대로 유지할 겁니다. 오페라 작품은 이탈리아어로 된 레치타티보가

많은 작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악가들에게나 관객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도가 될 것입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탄생된 교향악단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란 바로 음악인들이고, 교향악단 단원들이 음악인입니다. 단원들은 현재 자신들의 일에 열심히 임하고 있고, 그 덕분에 전체적인 오케스트라의 역량은 나날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연습때마다 단원들에게 기술이나 기교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진짜 음악을 연주하라고 당부합니다.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음악인들이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중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산과 부산음악인들과의 만남이 즐겁습니다.

저는 연주자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서 단원들을 가장 자주 만나는 지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은 아름다운 도시이고, 멋진 광경이 준비합니다. 공기도 맑고, 부산 시민들은 친절하고 좋습니다. 광안리 해변길, 너무나 좋아하는 곳이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언양불고기입니다.

## 11월 15일 베토벤 사이클 V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베토벤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7번부터 9번까지를 수도 없이 많이 연주해왔습니다. 그러나 6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6번은 제 생애 첫 연주가 될 것입니다.





# 독일 소도시의 문화계 스케치

■ 권재욱\_독일 통신원, 프리랜서 장남감/놀이터 디자이너





■ 2012년 개혁과 음악 테마의 해 오프닝  
(아이제나흐 Georgen교회)

해외에 있는 여느 한인들처럼 필자도 이곳 구 동독지역의 할레라는 중소도시에서 한인 교회를 다닌다.

지난 일요일, 할레의 시립극장의 합창단(Chor)에서 베이스를 맡고있는 성악가 천집사님이 서명을 하라면서 서류를 한장 들이민다.

“...이게 뭔가요?”

“...좋은거야, 도와줘.”

내용을 보아하니 주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서, 극장의 규모도 줄고, 신규/기존 단원에 대한 감원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였다.

순간 2차대전때의 마틴 니뮐러(Martin Niemöller)목사가 썼다는, 나치단원들이 유대인, 가톨릭신자와 공산당원들을 차례로 체포해갈 때 자신이 나서서 돕지 않았더니, 결국 그들이 자기에게 들이닥쳤을 때 아무도 도울 사람이 남지 않았던 쇠구결이 떠올랐다. 스스로는 산업계에 한 발 걸친 디자이너임에도 강건너 불이라는 생각않고 기꺼이 서명을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 할레의 뉴딜정책?

경제가 위기란다.

아무리 산업이 튼튼하다는 독일이라도 2008년 금융위기와 작년의 그리스 등의 PIGS국가들로 시작되었던 유로화 위기 이후에는 사뭇 분위기가 남다르다. 위기가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지, 보수화 시키는지, 지난달 있었던 총선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정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라는 금융정책을 주로 내세우는 신흥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은 기독교민주당(CDU)과 연정을 하며 인기였다. 거리에 밝히는, 성장이니 복지니 하며 다투는 술한 경제구호들을 보자하니 한국에 비해서 한참 생활의 압박이 열던 독일도 우리네랑 별 다를 바 없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있는 곳 할레는 구 동독지역의 한가운데에 있다. 가장 못 사는 도시, 실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예전 소금산업으로 유명해져서 이름마저도 소금창고의 의미가 있는 'Halle'라고 붙었지만 요즘은 땅 캐서 나오는 소금들은 관광상품정도 밖에는 안된다.

독일 통일 후 동독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도시별로 서독 도시를 발달모델로 정했는

데, 특별한 산업이 없던 할레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인 서독의 하이델베르크를 따라하기로 했다고 한다.

때문에 인구 22만의 소규모 도시인(근 5년새에 3만정도가 준 수치이다) 할레는 규모에 걸맞지 않게 두개의 대학교와 유명 연구소들, 그리고 다섯개가 넘는 극장들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인구의 상당수가 예술인과 학생이라지만 하이델베르크처럼 찾아오는 관광객을 보기란 쉽지 않다.

최근의 이곳 풍경이라면 한쪽에서는 성악가가 탄원서를 들고 다니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온 도시의 도로공사를 반년째 하고있다. 뉴딜정책을 따라하나 싶어서 불편을 감내하려다가도, 온 동네의 기차길을 다 들쭉시키고 시끄럽게하면서 문화예술 예산을 감축하고, 대학교의 학과들을 없애서 저쪽에 돈을 쓰나 싶은 마음이 들어 영 마뜩찮다.

### 루터 10년(Lutherdecade)

이렇게 전반적으로 각박한 구 동독지역 문화계에 한편 반가운 소식이 있다.

독일관광청과 작센안할트 루터기념재단(Stiftung Luthergedenkstatten in Sachsen-anhalt)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관광마케팅의 일환으로 문화계에 대

한 지원을 하고있는데, 2008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시로 이주한 500주년을 시작으로, 95항의 반박문을 내건 1517년으로부터의 500주년인 2017년까지의 10년을 '루터 10(Lutherdecade)'로 지정해서 매 해 신앙, 교육, 자유 등의 테마를 정해 행사들을 진행중인데, 그중 2012년은 '종교개혁과 음악', 2015년은 '종교개혁과 미술'이라는 테마로 각종 예술행사를 했고 또 계획중이다.

### 마틴 루터와 음악

“음악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음악은 악령을 쫓고 인간을 밝고 명랑하게 만든다.”

음악이 신앙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을 정도로 마틴 루터는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로, 글쓰는 이로 유명하지



■ 적막한 분위기의 할레 오페라극장



■ 할레의 마틴 루터상

만, 한편으로 그는 성악공부를 한 성악가이면서 류트 연주가이기도 하고, 작곡 작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교리를 음악으로 함축해서 표현했다. 이 즈음해서 교회에서 독일어로 함께 부르는 찬양이 개신교 교회음악의 전통이 되었다. 요즘도 교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인 노래와 연주는 종교개혁이 당시에 가져온 중요한 변화였고, 그의 노래와 루터를 따르는 이들이 만든 노래들은 종교개혁의 확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개신교 교회음악을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이어 나간 파울 게르하르트(Paul Gerhardt),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발터(Johann Gottfried Walther), 쉬츠(Heinrich Schütz),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파쉬(Johann Friedrich Fasch),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Bartholdy) 등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고 기억하기 위해 각 도시별로 연주회들이 있었다.

헨델의 도시이면서 루터가 수도사로서 머물렀던 할레에서도 2012년 '종교개혁과 음악의 해'의 일환으로 '헨델과 신앙고백(Händel und die Konfessionen)'이라는 테마로 5, 6월에 걸쳐 2주동안 연주회가 열렸었다.

그 뿐 아니라 신교 속의 음악(Die Musik im Protes-

tantismus), 음악, 사회, 교육사 속의 루터식 찬양(Der Lutherische Choral in der Musik-, Sozial- und Bildungsgeschichte) 등의 주제로 소도시인 할레에서만도 작년 내내 음악회와 음악 관련 컨퍼런스들이 열렸다. 덕분에 성악가와 연주가인 지인들이 작년 한해를 무척 바쁘게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제는 주변의 미술가들이 슬슬 바빠지고 있는 분위기다.

내후년의 '종교개혁과 미술' 행사에 작품을 주문받았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전시회 뿐만이 아니라, 루터 관련 박물관과 교회의 리노베이션일에 미술가들의 손길이 적잖이 필요한 모양이다.

한편 여러 문화행사와 독일 관광청의 적극적인 홍보에,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직접 느껴 보고픈 한국 기독교계 인사들의 잦은 방문에 이곳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손님맞이와 가이드에 바빠보이신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담당 관공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이듯 이곳 독일의 '문화산업'도 수익에 연결되는 관광과 홍보에 맞추어 활기를 띠고, 어렵다는 경제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컨텐츠로 예산을 마련하고 여러 행사들을 치루고있다.

혹자가 얘기하듯, 모든 예술의 원형은 가치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링이라면 그 가치를 발굴하여 클래식으로써 현재에 재조명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후대의 일일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가의 가치발굴로 불황속에서도 활기를 찾아가는 독일 동부지역의 예술계를 지켜보며, 더 오랜 역사와 수많은 문화컨텐츠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만의 지역색 있는 독특한 문화예술진흥 기획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할레 신극장(Neues Theater)

# 괴테와 글루크의 스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

(中)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1714~1787)은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였고 열세 살 때부터 프라하에서 교회의 오르간주자로 일하면서 작곡에 몰두하였다. 이후 밀라노 궁정의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이곳에서 이탈리아 작곡가들과 교분을 쌓았다. 스물일곱의 나이에, 최초의 오페라 <아르타세르세>로 본격적인 오페라 창작을 시작한 이래 런던, 빈, 함부르크, 드레스덴 등을 방문하면서 수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으며 1750년대의 오페라 개혁 운동에 강한 영향을 받아 오페라 코미크(프랑스의 희극적 오페라)를 쓰기 시작하였다.

마흔한 살에 대본가 칼차비히(1714~1795)를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오페라의 문제점을 보아 왔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글루크와 칼차비히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협력하여 이듬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를 작곡하였다. 3막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지금까지의 오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종합적인 예술성을 강조하였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적인 요소가 적절히 혼합된 이 작품은 합창과 발레를 극의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삽입하였으며 첼발로로 반주하던 레치타티보를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등 극의 내용과 음악을 일치시키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이후에 작곡한 글루크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은 쉰세 살에 작곡한 칼차비히의 비극 <알체스테>로서, 이 작품은 글루크의 성숙한 양식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페라 요소의 융합을 보여준다. 파리에서 출판된 <알체스테>의 서문에는 오페라 개혁에 대한 글루크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오페라의 음악은 대본의 줄거리를 설명하는 봉사적 기능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성악가들은 과장된 장식이나 기교를 금해야 하며 다 카포(da capo)아리아는 수정되어야 한다.”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오페라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 한 장면



■ 작곡가 크리스토프 빌리바트 글룩

“관현악을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에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음악적 구분을 줄여야 한다.”

“서곡은 극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오페라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성·사실성·자연스러움’이라는 말로 자신과 칼차비히의 목표를 표현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줄거리 대신 고전극의 전통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하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런 행동, 즉 궁중의 관습 대신 순수한 인간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고전적인 형식에서 나오는 합창은 주요 등장인물과 동일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극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음악은 지나친 꾸밈으로 자연스런 연기의 흐름과 동작을 막지 않는 선에서 표현을 돕고 줄거리 전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아리오소나 아리아, 합창, 무언극 등의 요소들을 낭송양식과 표현적인 오케스트라와 합쳐서 다양한 장면들을 구성하였다.

글룩이 오페라의 역사에서 세운 업적은 바로크 오페라의 특색이었던 가수의 우위, 형식적인 음악, 황당무계한 대본 등을 배제하고, 음악과 극을 보다 밀접하게 결합시킨 동시에 불필요한 장식을 없앴으로써 오페라를 처음 발생했을 당시의 이상에 접근시킨 데 있다. 오페라 개혁운동은 글룩 이외에도 다른 작곡가들에 의해 더욱 진전되었으나 이후에 발표된 몇 편의 개혁 오페라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구습에 의한 오페라들이 다시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페라 개혁 이후 음악과 극의 균형이나 혼합은 현저하게 나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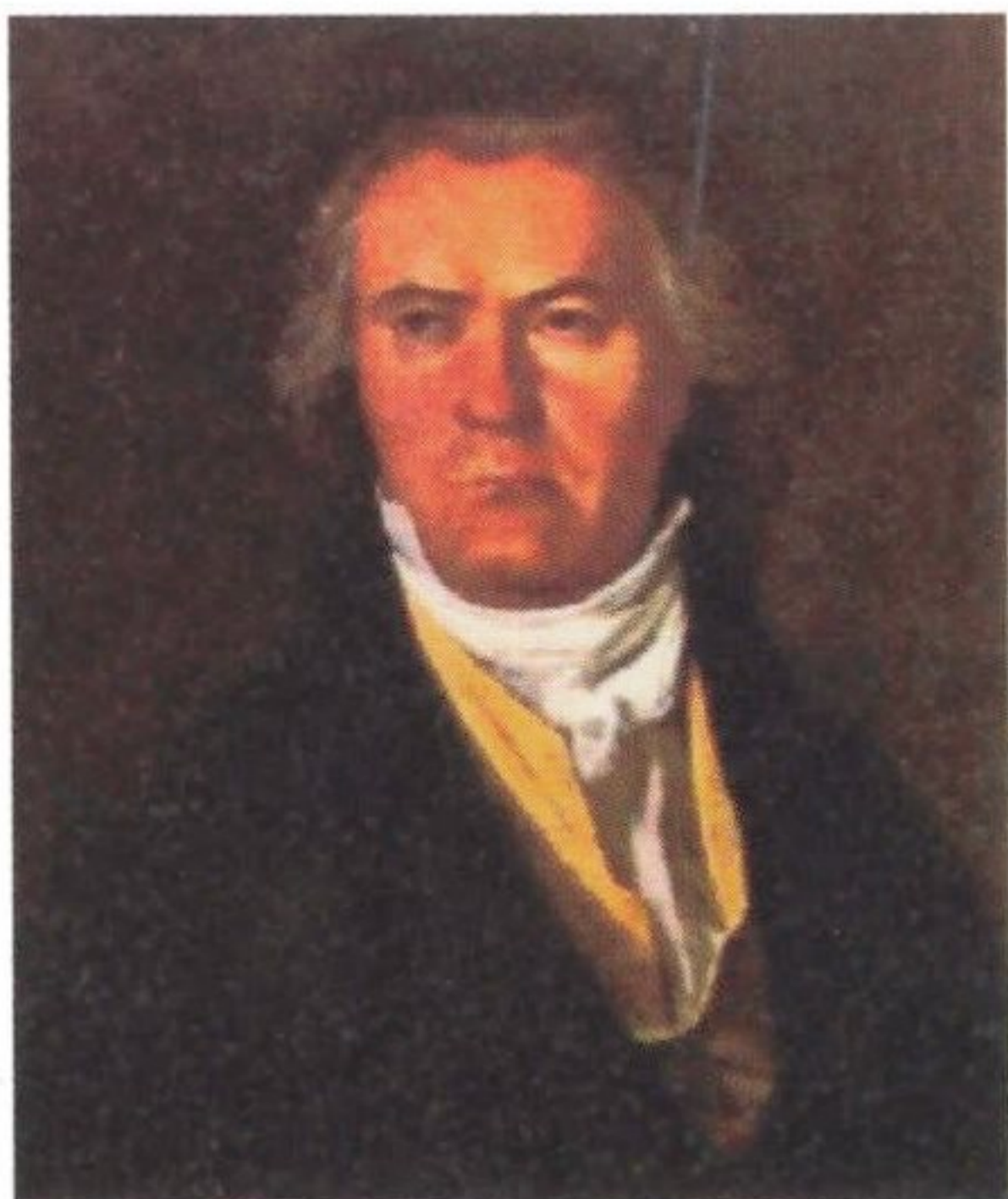
오페라 개혁운동을 통하여 음악과 극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한 글룩의 영향은 후일 바그너의 음악극으로 행하는 한 단계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오페라 코미크와 프랑스의 서정비극도 고전양식의 오페라 계열에 확연히 들어서게 하였다. 예순 살의 글룩은 파리를 위한 첫 오페라를 쓴다. 이탈리아식의 오페라 세리아를 근대화하려고 시도했던 글룩은 프랑스의 서정비극을 개혁하고자 라신의 비극 <이피게니아>를 기초로 한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를 작곡하였다.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는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의 속편 격이다. 이 작품은 파리에서 초연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또 다른 논쟁의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글룩의 추종자들과 좀 더 가볍고 더 전통적으로 이탈리아화된 작품을 쓰는 작곡가 피친니(1728-1800)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었다. 두 작곡가 본인들은 아무도 논쟁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추종자들의 논쟁이 멈추지는 않았다.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는 릴리와 라모의 전통적인 프랑스 서정비극과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를 혼합한 형태로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킨 작품이다. 독창, 합창, 오케스트라, 발레가 극과 잘 조화되어 고전양식의 걸작으로 인정받는 이 작품은 젊은 모차르트에게 음악적, 극적 경제성에 관한 가르침을 주었으며 19세기의 베를리오즈, 바그너 등 낭만파 작곡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 베토벤과 바그너 —

# 21세기의 바그너 문화국 독일의 간판 VI

■ 임채홍  
바이로이트대학교 음악학 박사



■ 베토벤(1823년 발트 뮐러 작)

바그너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주저 없이 베토벤이라는 답이 주어진다. 거기에 이견을 내놓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그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들은 글루크, 베버, 베를리오즈, 스포티니, 마이어베어 등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가 일생을 통해 열광적으로 존경한 인물로는 베토벤이 거의 유일하다. 베토벤 이후의 음악세계는 '절대음악' 과 '표제음악' 또는 '형식미학' 과 '감정미학'이라는 음악이해상의 차이로 양분되었지만, 양 진영 모두 그를 원조로 삼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후일에 바그너는 “베토벤이 없었더라면, 내가 해 낸 것처럼 그렇게 나는 작곡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회상한다. 바그너는 16세 때 처음으로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를 관람하는데, 그가 청소년기의 꿈속에서 베토벤을 만난 것은 자신에게 비전을 안겨 준 비밀스런 체험으로서 작용한다. 먼저 베토벤의 7번 교향곡은 그에게 “도무지 비교할 대상이 없고, 현세를 초월한 독창성을 가진 한 숭고한 상(像)”이었으며, 이 상은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바그너의 젊은 시절의 내면을 장악하게 되는데, 어느 꿈속의 황홀경에서 그는 이 두 인물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깨어난 직후 눈물 속을 헤엄쳤다고 고백하고 있다. 베토벤은 그에게 있어서 이미 천부적인 극작가였을 뿐 아니라, 음악극의 예언자이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9번 교향곡의 합창피날레에서 전형적인 교향곡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두고 그렇게 판단했다.

바그너는 “음악이 가장 완벽한 드라마를 이미 그 자체에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 차지 않고서 누가 과연 마음을 사로잡는 이 악곡을 청취할 수 있겠는가?”라고 베토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글에서 고백한다. 이 시기(1870년)는 바로 독일이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기에, 바그너는 프랑스풍의 유행에 맞서서 독일 음악을 옹호하면서 역시 위대한 베토벤을 대표적으로 내세운다. 바그너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 9번 교향곡을 베껴 썼을 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용으로 작업해내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곡을 통해 베토벤이 작곡가로서의 길을 완성했음을 확신한다. 바그너는 먼저 작곡기법 상의 높은 수준을 말하는데, 약 25분이 소요되는 마지막 악장이 8번 교향곡 전체만큼이나 길 뿐 아니라, 9번 교향곡 전체가 한 시간 이상 걸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응집력이나 역동성(다이내믹)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다음은 이 작품이 교향곡의 역사에서 하나의 대 전환점을 이룬다는 점이다. 바그너의 견해에 의하면, 이 곡의 모티브 하나 하나는 한결 같이 최고의 주목을 끌도록 극도로 정밀하게 발전해가면서도 작품 전체와의 연관성을 잃지 않는데, 이 모든 구성요소들은 유기적 용해를 통해 작품 전체가 아주 특별하고도 넓은 영향력을 갖는다. 또 한 가지는 마감악장에 합창과 솔로성부들이 가미됨으로써 4악장 전체가 마치 하나의 오라토리오를 연상하게 한다는 점이다.

바그너가 직접 9번 교향곡을 지휘한 기록도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점들이었다. 그가 이 작품을 처음으로 지휘한 것은 1846년 츠빙어 궁전 옆 옛 드레스덴 오페라하우스에서였으며, 나중에(1872년) 바이로이트에서 자신의 축제극장 정초식에 즈음하여 변경백작 오페라하우스에서 다시금 실현한다. 이 두 연주는 공히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첫 번째 연주는 드레스덴에 혁명의 조짐이 무르익어 가던 시기에 맞추어졌으며, 러시아의 혁명가 마카일 바쿠닌(Mikhail Alexandrovich Bakunin, 1814-1876) 참석 하에 오로지 혁명적인 해석으로 제공되었다. 이 연주에 대해 그 당시 명성을 떨쳤던 의사 카를 구스타프 카루스(Carl Gustav Carus, 1789-1869)는 “이것은 바로 지휘자의 불안, 불만족, 고통인데, 누구든지 이 격렬한 연주를 주목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완전한 광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아름다움이 담긴 수많은 곳의 섬세한 라인이 거기서는 아주 멀리 벗어나버린다”라고 혹평한다. 반면 1872년의 연주에 대한 평은 완전히 다르다. 총연습을 들은 음악비평가 하인리히 포르게스(Heinrich Porges, 1837-1900)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드라마’라고 표현된 부분이 바그너의 베토벤 이해와 일치한다.

우리는 우리들이 가진 드라마의 대참사에 서있다. 멸절의 영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처음엔 예감에 가득 찬 소스라침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더니, 지금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자기 소유로 장악해버렸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의해 강력하게 사로잡혔고, 가장 내면 깊이 달구어졌다. 여기서 사람들은 강력한 뇌우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신의 영을 느낄 만했다. 그러나 이 계시의 내용은 멸절시키는 어떠한 뇌우에도 유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이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랑은 완전히 구원하는 그 힘 속에서 이 멸절을 통해 탄생한다.



■ 바이로이트 변경백작 오페라하우스(바그너가 1872년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지휘한 곳으로 2012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청년 시절의 바그너

이 연주에 이어 바그너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의 연주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그가 추구하고 실행한 모든 것들 뒤에 항상 하나의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말하자면 음악과 문화사의 발전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 안에서 베토벤은 예언가요, 완성자의 위치를 갖는다. 나중에 바그너는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에 대하여, 그 곡이 반복되는 무곡의 원칙에 입각한 교향곡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는데, 이 말이야말로 바그너는, 바로 베토벤이 미래의 악극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새로운 종교이며, 가장 숭고한 순결로 세계를 구원하는 선포가 독일에서 잘 이해되듯 바로 여기서 이해된다고 말한다. 베토벤 탄생 100주년 축하의 글을 그는 다음과 같이 마감한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어버린 파라다이스의 황야에서 이 위대한 개척자를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위엄에 걸맞게 그를 축하하고, 독일의 용감성의 승리로써 위엄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한 사람의 위치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바그너는 나중에 심지어 베토벤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쓰는데, 그 제목은 ‘베토벤을 향한 순례길’이다. 여기에는 바그너 자신과 베토벤의 개인적인 만남의 장면도 등장하는데, “잘 사세요, 나의 총애하는 자여. 그리고 나를 사랑스럽게 간직하십시오!”라고 베토벤이 바그너 자신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 단풍잎 쌓인 산사로 가는 길 산사귀승(山寺歸僧)

김홍도의 그림 중에 사찰이나 승려를 소재로 한 그림은 그리 많지 않다. 만년에 주로 그렸던 도석인물화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필자가 이미 게재했던 <남해관음>(7월호)처럼 신비하고 매우 정치한 필치의 작품이 있는가 하면, <혜능상매>(10월호)나 <탑상고사>처럼 주인공이 선비나 도사(道士) 풍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기가 예술적으로는 유불도가 상통하는 것이니 생경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게다가 정조가 주도한 수원 용주사 불사에 참여한 전후로 김홍도는 불교에 제법 느낌을 가졌던 것 같다. 그래서 사찰과 승려에 대한 이미지는 그가 직접 보고 느낀 당시 불교의 분위기가 오롯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산사귀승(山寺歸僧)>, 종이담채, 29×42cm, 개인소장이다. 이 가을에 딱 어울릴만한 고즈넉한 산사의 정경이다. 붓선이 거친 듯 하면서도 다소 힘있게 깊은 산 속의 비경을 묘사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험준한 협곡을 끼고 암벽언덕을 마주하여 대칭구도로 나타난 게 정형화된 일반 산수풍경에서 보는 구도와는 사뭇 다르다. 화면 왼쪽 아래에서 고승이 죽장을 쥐고 올라오고 있고, 계곡의 공간에 가파른 수직감을 부여하면서 그 사이에 절로 들어가는 누각다리(樓橋)가 운치있게 놓여있다. 누각다리 가운데 서서 숲속의 바람소리, 새소리, 발 밑으로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면 온 마음이 속속들이 정화되는 양 청정도량에 드는 기분일 것 같다. 누각다리 건너편 오른쪽 위에 법당이 보인다. 맞배지붕의 용마루 선을 언덕의 능선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그 앞으로 절간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산사귀승(山寺歸僧)



마당이 길게 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양쪽 언덕 위에는 짙은 먹으로 눌러 수목을 그렸지만, 계곡 깊이 안쪽으로는 붓에 먹과 물을 연하게 문혀 나무를 그리는 갈필법(渴筆法)을 구사하여 전경의 원근감을 잘 부여하고 있다. 법당 맞배지붕의 방풍널과 누각다리의 벽체가 황토색의 단청으로 칠해져 있고, 왼쪽 언덕에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보이는 게 한창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윗부분에 제화시가 있으나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아쉽다. 몇 년 전에 필자도 우연히 그림 진본을 본 적 있으나 제화시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까웠다. 다만 '秋·葉·水落' 글자만 산발적으로 판독될 정도이다. 이 글자를 살려서 깊은 계곡에 단풍이 물든 산사의 호젓한 분위기에 맞추어 필자가 감상을 읊어 보기로 한다.

秋深疎枝紅葉飛

깊은 가을 성긴 가지에 단풍잎 흩날리고

寒溪水落山中暮

찬 시내 물이 줄고 산중이 저물어 가네

때는 쌀쌀한 가을날 해거름 무렵. 산사로 돌아오는 고승의 눈에 들어오는 정경을 담아 보았다. 깊고 호젓한 계곡을 들어서니 오색 단풍이 눈 앞에 펼쳐지고, 늦가을 찬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고즈넉한 산사로 돌아오니, 고승의 마음이 아늑해지는 모양이다. 제화시 앞에는 '일권석산방(一卷石山房)'이라 새겨진 백색글자 타원형의 관서(款署)가 새겨져 있고, 7언시의 대련구(對聯句)에 이어 글자 흔적을 볼 수 없는 서명 1행이 있는 듯 하며, 맨 끝에 <김홍도인(金弘道印)>이라는 백색글자의 사각형 관서가 눌러져 있다. 김홍도의 힘찬 필선 끝에 이루어진 산사의 풍경과 고승의 마음을 그림으로 읽어 보았다.

바야흐로 서리가 내리는 쌀쌀한 계절이다. 무한한 창공을 쳐다보며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공부다. 이럴 땐 따뜻한 차 한잔을 옆에 두면 금상첨화다. 차를 마시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 보는 데 유익한 수단이다. 오래 전 얘기지만, 송나라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이 <경덕전등록>과 <조주록>에서 100개의 고적을 정리하고, 이어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이 수시, 저어, 평창을 덧붙여서 <벽암록(碧巖錄)>을 편찬했다. 원오스님은 수행에 들거나 글을 쓸 때 마다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벽암천의 온천수를 길어와 차를 띄워 마셨다.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사람들은 누구나 집착을 버린 마음을 구하기가 항상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차 이야기 하면 으레 당나라 말기 조주(趙州)선사의 '꼭다거(喫茶去)' 일화가 유명하다.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절에 와본 적 있는 학인이나 와본 적 없는 학인이나 모두 차나 한잔 마시라고 조주선사는 답했다. 이 속 뜻은 허튼 소리는 일삼지 말고 차나 한잔 마시면서 자신의 본심을 되돌아 보라는 말이다. 즉 차 마시는 일이 일상이듯이 마음공부 역시 일상의 수행과 같은 맥락이다. 굳이 차 마시는 것에 복잡한 의식을 가져와서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피곤에 지칠 때면 따뜻한 차향을 맡으며 가을을 느껴 보시길 권한다.

■꽃살문





매력 넘치는 산복도로를 꿈꾸는

## 커뮤니티 문화센터 김수현의 음악살롱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원도심 산복도로에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 탄생했다. 아름다운 노랫말과 선율로 사랑받는 가곡 '그네'의 작곡가인 故 김수현 선생의 이름을 부친 '김수현의 음악살롱'이 바로 그 곳. 한국전쟁 당시 김수현 선생이 거주했던 영주동 옛 자택과 가까운 '김수현의 음악살롱'은 부산항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청동 산복도로에 자리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복도로 주민들에게 생활과 밀착된 커뮤니티 문화센터로 문을 열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온 수많은 음악인, 문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술적 교류를 활발하게 지원한 김수현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선생의 혈육이자 세계적 음악가인 금난새 지휘자의 동의를 얻어 '김수현의 음악살롱'으로 이름 부쳤다.

1층 소공연장, 2층 북카페로 구성된 지상 2층 규모의 음악살롱은 이제 개관한지 겨우 석달째를 맞았지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벌써부터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음악살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수는 모두 20여 개. '문화독해운동/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대표인 황정미 씨가 이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다. 사진작가 브리야 김과 함께하는 사진교실 '삐까번쩍'를 비롯해 한국무용가 김정미의 우리 춤 교실 '신명', 숲 해설가 김영주와 함께하는 숲 해설동아리 '숲사모', 아르떼 예술강사 하운정이 진행하는 '어린이 스마트폰 영화만들기 동아리', 한국 하이쿠 작가 박정원의 '일본어교실', 동아대학교 김명우 교수의 '왕초보 반야심경', 철학박사 김동규의 '생활인문학', 철학박사 김은철의 '니체 강독', 독립영화감독 김희진의 '영화는 재밌다', 몸살림운동 이동식 사범이 함께하는 '몸살림운동', 이마고 그림책포럼이 진행하는 '그림책교육지도사 과정', 대중문화평론가 김형찬의 '뽕짝 인문학' 등 한눈에 봐도 다양한 주제와 탄탄한 강사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게다가 음악살롱에서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9월부터 시작된 강좌라 아직 입소문을 타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수강자 수만도 150여명이 훌쩍 넘는다. 오는 12월 7일에는 송년모임을 겸해 이들 수강생들의 작품발표회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수강생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과 현재 '여행영어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브룬디의 영어교사 리처드 키위제라(고신대 석사과정 재학중)를 비롯해 아랍, 캄보디아 등 다국적 유학생까지 함께 참여해 음악회와 심야영화 상영, 시낭송회 등 작은 문화축제로 계획하고 있다.

음악살롱이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망양로 문화마실 프로젝트. 프로젝트 첫 행사로 금수현 선생이 1947년 경남도립극장(현 부산극장) 극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열었던 '희망음악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제1회 금수현 가족창작음악제가 개최된다.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가족창작음악제를 위해 1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지난 9월부터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씨와 화음을 맞춰오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시평생교육진흥원의 '신명나는 4050세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예술이 별거나' 프로젝트에서는 광목바느질과 판화제작, 창작시 배우기 등 세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음악살롱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이후 아트장터를 개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도 판매할 예정이다. 전망 좋은 2층 북카페에서는 앞으로 금수현 선생을 기억하는 인사들을 초청, 음악도 듣고 추억도 나누는 공감다방도 운영된다.

'금수현의 음악살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정류소에서 하차, 대청공영주차장으로 올라가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주말마다 부산역에서부터 하루 3차례 운행하는 산복도로 버스투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산복도로 버스투어를 이용하면 '금수현의 음악살롱' 뿐 아니라 까꼬막, 유치환의 우체통, 장기려 더 나눔, 이바구공작소, 김민부 전망대 등 원도심 산복도로의 명소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

■ 문의/커뮤니티 문화센터 금수현의 음악살롱(462-0243, [cafe.daum.net/culturecommunity](http://cafe.daum.net/culturecommunity))





## 일상의 소중한 꿈을 그리는 부산은행 문화예술동호회 **하얀 도화지**

어린 시절 가슴으로만 그려왔던 '그림'에 대한 꿈을 잊지 않고 매주 토요일 아프리로 나가 이젤 앞에 앉는 하얀 도화지 회원들. 하얀 도화지는 부산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미술동호회이다.

2008년 결성된 '하얀 도화지'는 스포츠, 대중문화분야 동호회가 많은 직장에서 몇 안되는 미술동호회로 부산지역 동호회내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2010년 창립당시 꿈도 꿀 수 없었던 첫 전시회를 열고 동료 직원들의 부러움을 샀던 하얀 도화지 회원들은 지난 4월 1일 세 번째 전시회를 열고 또 다른 작품을 위해 매주 토요일 이젤 앞에 앉는다.

하얀 도화지의 성공은 결성부터 지금까지 회장 유진정 씨의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던 유진정 씨는 은행에서 동호회 활동 붐이 일 때 당시 정용근 화백에게 그림을 배우고 있었다. 막상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가 눈에 띄지 않았던 유진정 씨는 자신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그림을 함께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미술동호회 하얀 도화지를 직접 결성했다.

은행 게시판에 동호회 결성을 알리며 회원 모집을 한 결과 생각보다 많은 33명의 동료들이 회원에 가입했다. 그동안 직원들의 이동, 출산 등의 변화가 많아 몇몇 회원들이 중도 포기했지만 김도희, 김미경, 김분숙, 김세영, 김현정, 배기영, 유진정, 윤영나, 조재영, 최해연, 안설경, 김정분, 지수호 등 13명의 회원이 변함없이 '하얀 도화지' 위에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그려가고 있다.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지, 그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대부분의 회원들이 연필 깎는 기본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시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진정 씨를 비롯해 회원들은 사실 전시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초보였지만 목표의식을 갖고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자는 정용근 화백의 제안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하얀 도화지 회원들은 일주일간의 업무로 지쳤을 법도 한데 매주 토요일 오후 수영동에 위치한 정아프리에에서 이젤 앞에 앉아 붓을 든다. 그 시간은 힘든 업무, 가족걱정을 떨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직원들이라 그림을 그리며, 틈틈이 수다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푼다. 5시간을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지만 뒤늦게 배운 그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시간가는줄 모른다.

창립 회원인 최해연 씨는 이런 시간들이 좋아 5년 동안 하얀 도화지 열성 회원으로 남아 붓을 들고 있다. 가족들도 어머니, 아내의 특별한 외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작은 관심, 호기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전시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었을까 스스로도 많이 놀랍니다.”

하얀 도화지의 막내 회원인 배기영 씨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를 누를 수 없어 하얀 도화지를 찾았다. 결혼 후 육아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 녹녹치 않지만 토요일 오후 세 살된 딸과 함께 아프리를 찾는다. 꼬마손님까지 반갑게 맞아주는 회원들과의 정 때문에 토요일마다 아프리를 찾게 된다는 배기영 씨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면서 업무상 부족한 부분들을 배워갈 수 있어 하얀도화지 활동이 즐겁다.

하얀 도화지 회원들은 아이디어뱅크다. 첫 전시회 때 폭우 속에서도 전시회장을 찾아준 은행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두 번째 전시회에서는 회원들의 그림을 입힌 머그잔을, 지난 4월 열린 제3회 전시회에서는 회원들의 작품을 담은 마우스판을 제작해 선물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종이컵 대신 하얀 도화지의 머그잔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항상 다음 전시회를 물어봐주는 가족, 동료들의 관심 때문에 힘이 난다는 하얀 도화지 회원들. 어느새 부산은행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동호회라는 자부심으로 나만의 아프리를 채워간다.



■매주 토요일 오후 아프리에서 그림공부에 열심인 하얀 도화지 회원들은 어느새 4번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4월에 열린 제3회 전시회.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인 콘서트 Rigoletto

■ 박진홍\_음악평론가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연주로 마련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가 무대에 올랐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 '환락의 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1850년에서 1851년까지 2년 간 작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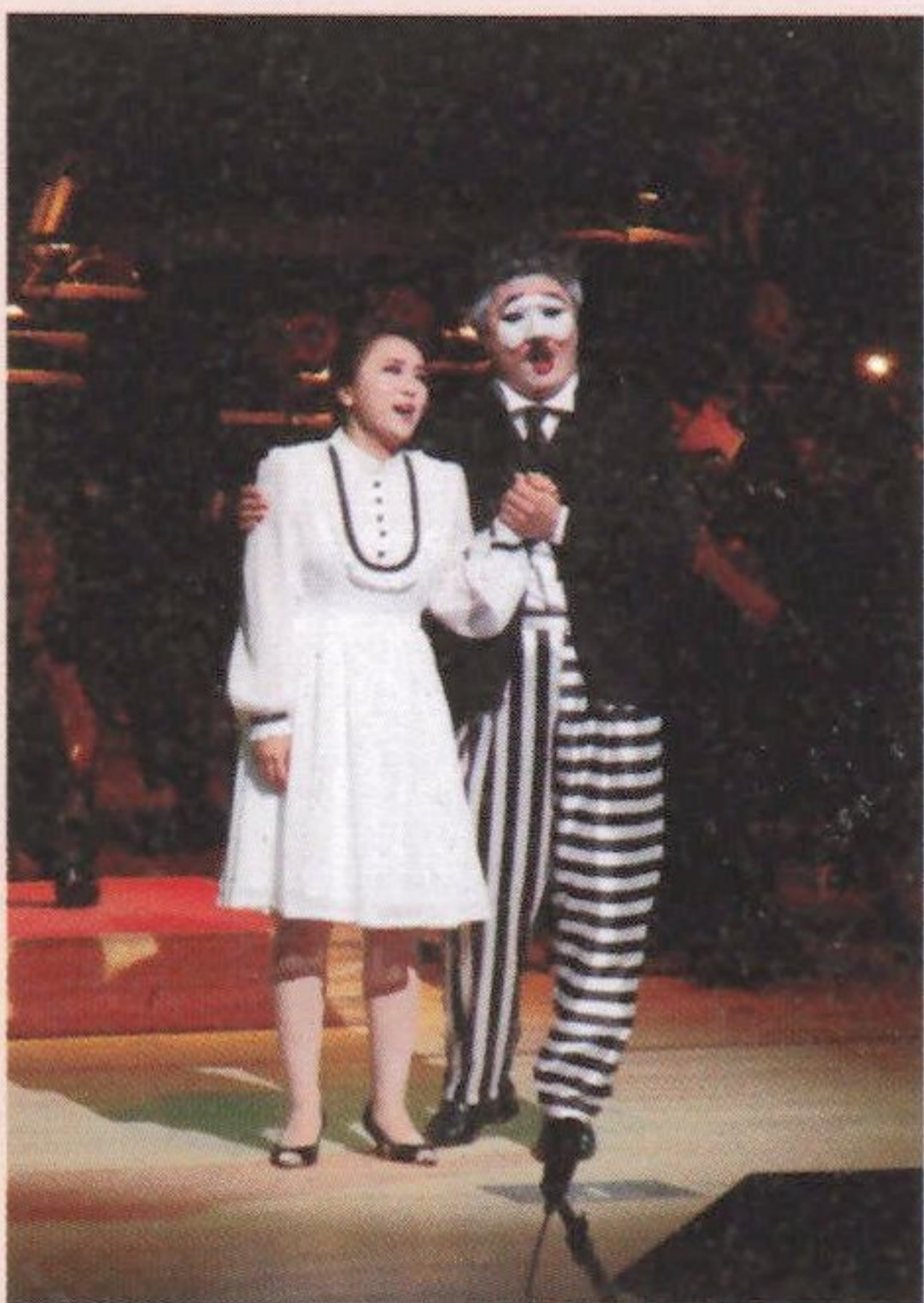
수많은 여자들과의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만토바 공작과 그의 광대인 곱추 리골레토, 그리고 리골레토의 하나 밖에 없는 사랑스런 딸 질다의 사랑과 납치, 복수와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귀족에 대한 폄하라는 평가 속에 초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진통 속에 초연은 성공적으로 상연되었고 특히 만토바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는 지금까지 많이 불리는 대표적 아리아이다. 대부분의 오페라 작품은 테너와 소프라노에게 음악의 중요도가 주어지는 반면 이 작품은 바리톤인 리골레토에게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지고 있어,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질다 역을 맡은 소프라노 김정은은 리골레토의 사랑스런 딸에 걸맞은 외모와 부드러우면서도 호소력 있는 음색, 흔들림 없는 기교적 표현, 인물의 성격을 재현해 내는 연기력 등 모든 면에서 정상급 오페라 가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1막에서 가난한 청년으로 알고 있는 만토바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아리아 '그리운 그 이름'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서정적이고 드라마틱하지만 가수에게는 난이도 높은 이 곡을 김정은은 곡이 담고 있는 설렘과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게 담아냈다.

바리톤 제상철은 곱추 리골레토 역을 맡았다. 리골레토에 대한 깊은 해석력과 보는 이로 하여금 그의 감정안으로 빠져들게 하는 몰입도를 보여 주었다. 특히 권력에 대한 조롱과 아부, 딸에 대한 사랑과 공작에 대한 분노, 죽음에 대한 절규 등 다양한 감정변화에 대한 음악적 표현력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만 했다.

2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리골레토와 질다의 2중창은 연기의 절정으로 공연장 전체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놓았다. 테너 이승묵 역시 약탈과 배신, 쾌락을 자신의 세상을 굴러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만토바 공작 역을 능숙하게 연기하였고 공연 내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감정 표현을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에 담아 표현하였다.

전체 무대 구성 측면은 세심하게 안배되어 화려함과 안정감, 완성도와 감동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오케스트라 뒤에 쌓은 단과 객석 쪽의 오케스트라 비트를 극의 무대로 사용했는데, 무대라는 하나의 공간을 두 개로 분할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간적 다이내믹을 살려 훨씬 생동감 있는 진행을 가능케 했다. 무엇보다 필자를 감탄하게 했던 것은 음향적 설계였다. 여러 연기자의 동선과 연기자와 오케스트라 간의 음향이 중첩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눈에 띄지 않았다. 각각의 관악기들은 선율의 표현력 뿐만 아니라 리듬이나 밸런스 측면에서도 지금까지의 그 어떤 연주보다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 주었다. 마에스트로 리신차오는 약 2시간 길이의 오페라 악보를 모두 암보하여 지휘했는데, 무대 어느 곳에서도 가수의 노래는 오케스트라에 의해 간섭 받지 않았으며 반주의 아름다움이 선명하게 객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그가 부산시향과 함께 그 동안 선사해 왔던 음악적 완성도에 더하여 오페라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의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 부산광역시립극단 '언챙이 곡마단'

■ 김문홍\_연극평론가

## 역사의 희화적 은유를 통한 반전극

부산시립극단의 <언챙이 곡마단>(김상열 작, 문석봉, 오세준 공동 연출, 2013. 9. 26-29,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은 인물의 개인적 버릇이 역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희화적 풍자의 시각으로 은유한 작품이다. 즉,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높은 곳에서 부감해 보면 그것은 한낱 곡마단 어릿광대들의 땅재주만큼이나 부질없는 것임을 비관적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주요 작중인물들은 모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김춘추는 전쟁을 즐기는 소영웅심리, 계백은 국가를 위한 순교적 희생, 의자왕은 이미 정해진 역사의 사필귀정적인 흐름을 수용하는 현실순응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연출자는 프로시니엄아치 위에 마당놀이판의 회전무대를 설정하고, 관객들이 버릇대로 사유하고 행하는 어릿광대들의 땅재주 같은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는 형태로 객석과 무대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 또한 역사는 순환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곳'의 사회문화적 대중의 정서와 정치 권력을 은유하고 풍자하는 담론과 유행어를 삽입시켜 재미를 주고 있다.

## 시청각적 볼거리에 문힌 배우들의 힘

이번 공연의 무대는 시청각적 볼거리로 가득 차 있다. 마당놀이판의 회전무대는 공간과

상황을 순발력 있게 변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배우들의 동선과 운신의 폭을 좁히는 아쉬움도 있다. 차라리 텅 빈 무대를 통해 오로지 배우들의 역동적이고 섬세한 연기로 승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무대 후면의 다양한 영상은 관극적 재미와 서사적 전개에 도움은 주고 있지만 극적 상상력을 약화시키는 아쉬움도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사 전달의 정확성을 위한 화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민 역의 김성열, 관창 역의 전지은, 기자 역의 이수아와 김보경 등은 비교적 화술이 정확하여 믿음이 간다.

이번 공연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연출의 연극적 자장은 아주 크고 화려한데 배우들이 과부하에 걸려 그러한 극적 상상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이만큼의 역동적인 무대를 꾸며 판을 벌였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닐 수 없다. 내년부터는 좀 더 진지하고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무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 부산시립극단 '언챙이 곡마단'의 한장면

# 사과향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깊어가는 가을 정취로 가득했던 지난 10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91번째 테마 여행이 펼쳐졌다. 10월의 테마여행지는 사과향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테마여행이 어느덧 90회를 넘겼지만 영주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영주 테마여행은 영주소백산예술촌이 주관하는 야간 여행으로, 역사와 문화예술, 자연이 어우러지는 알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테마여행이 있던 11일 아침,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뚫고 테마여행 당첨의 행운을 안은 44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떠나는 가을여행에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부산을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부석사 인근에 자리한 영주소백산예술촌에 도착했다. 영주소백산 예술촌은 지난 2011년 2월, 폐교인 부석북부초등학교에 설립된 지역 문화공간으로, 연극연출가인 조재현 촌장을 비롯해 손진책, 김성녀, 이호재, 강준, 조홍 등 문화예술인들이 운영위원으로 참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은 한국 유교문화의 뿌리인 소수서원과 선비촌에서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석양 노을의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는 문화유적 체험과 소백산예술촌에서 마술과 인형극, 모듬북춤 배우는 예술체험, 밤하늘 가득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소망풍등 날리기와 캠프파이어, 추억의 화로구이를 즐길 수 있어 전국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영주소백산예술촌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조재현 촌장이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간단하게 하루 일정 설명을 들은 후 영주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과일, 사과따기 체험을 위해 인근 과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지가 부러질세라 주렁주렁 영근 사과에 시선을 뺏긴 것도 잠시, 한입 베어문 사과의 달콤한 과즙에 여기저기서 회원들의 감탄소리가 터져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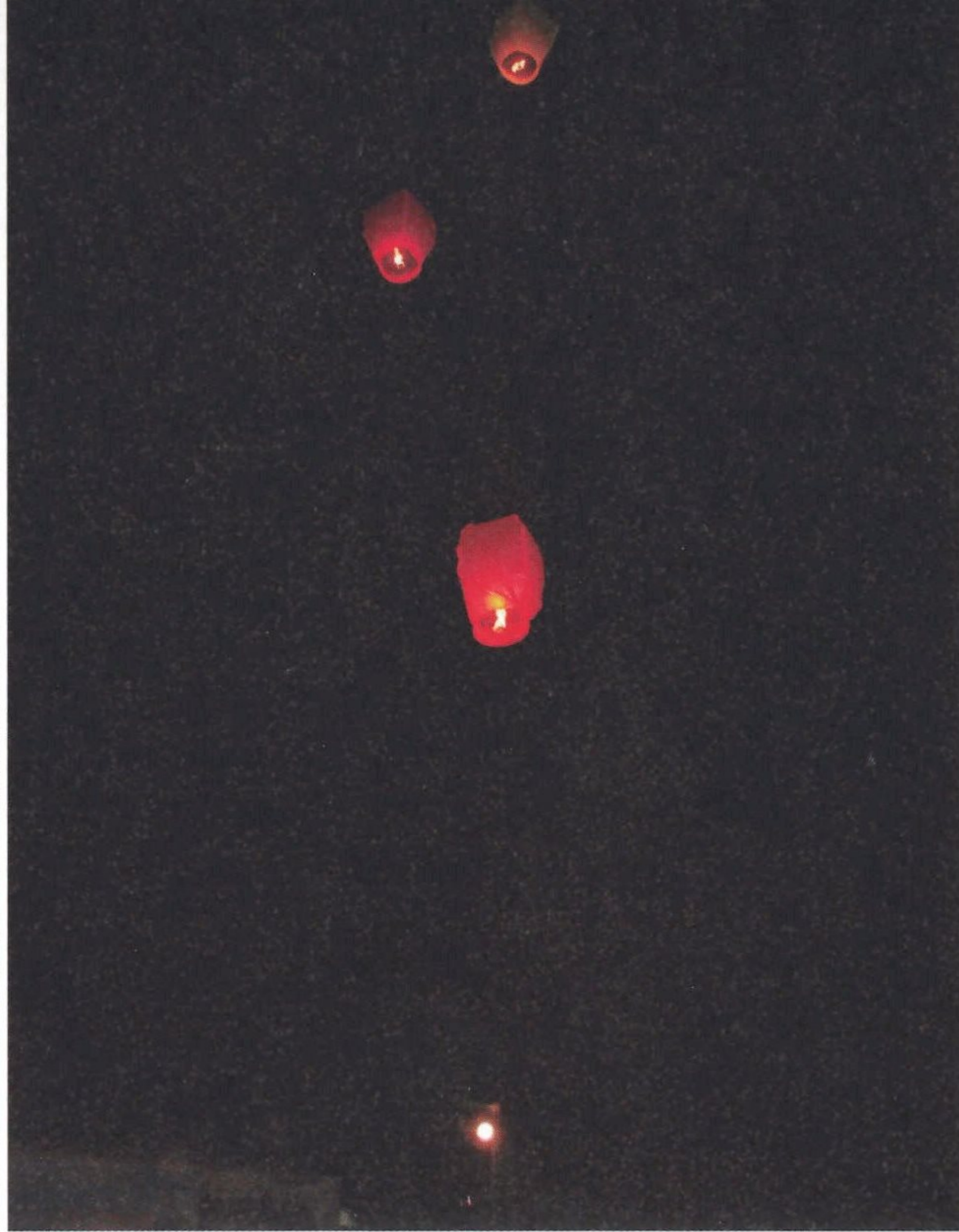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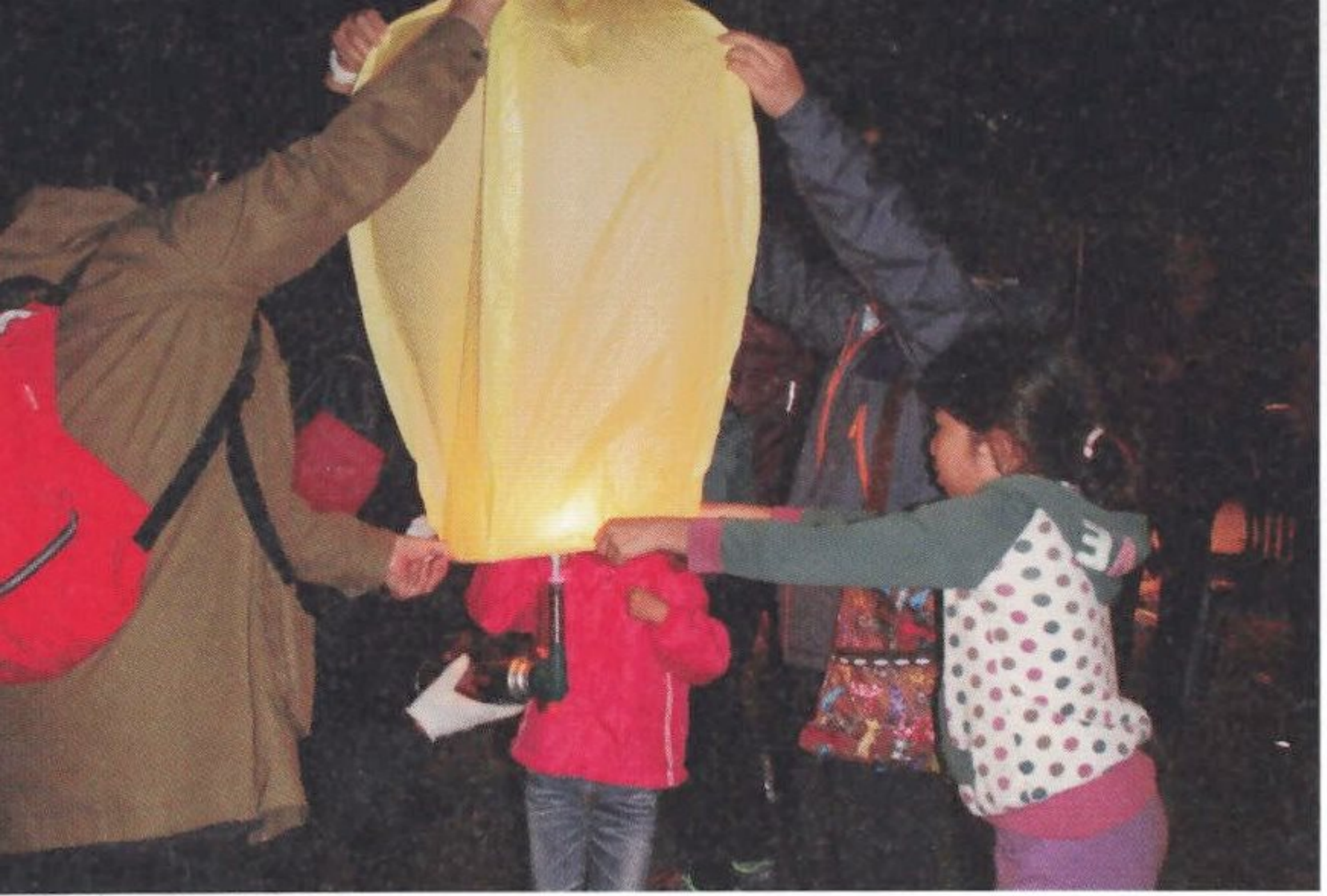
코 끝에서 맴도는 사과향을 뒤로 하고 다시 영주소백산예술촌으로 돌아온 정기회원들은 본격적인 예술촌 탐방에 나섰다. 조재현 촌장이 그동안 모아온 연극 관련 팸플릿, 포스터, 소품 등이 전시된 예술촌에서는 직접 연극의상을 입고 사진까지 찍어볼 수 있다.

아름다운 석양 노을을 바라보기 위해 늦기전에 부석사로 향했다. 신라 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6점



■ 사과따기

■ 부석사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정기회원 가족들



■ 흥겨운 모듬북 배우기와  
풍등날리기

1월에는 고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11월 16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10월 당첨자

● 엽서신청자

김강영(동래구 복천동)  
김명곤(남구 대연3동)  
김성덕(사상구 주례2동)  
김은경(남구 대연3동)  
박민숙(영도구 영선동)  
손남주(연제구 연산5동)  
장은지(사하구 당리동)  
정미숙(사하구 하단동)  
최영민(영도구 청학2동)  
한영모(남구 용호1동)

● 신규가입자

김나영(연제구 거제4동)  
김연옥(수영구 망미2동)  
류혜경(부산진구 개금3동)  
박명자(연제구 연산9동)  
우병애(남구 용호동)  
윤봉재(남구 용호동)  
윤인영(해운대구 재송2동)  
윤지현(해운대구 좌4동)  
최영락(남구 용호1동)  
최정현(동구 초량4동)

등 많은 문화재를 지닌 우리나라 10대 사찰 중 한 곳이다. 부석사 하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지냈던 혜곡 최순우 선생의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가 저절로 떠오른다. 혜곡 선생은 이 책에서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 싶어진다'며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고 썼다. 저녁 석양 속에 수묵처럼 번져가는 능선들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오랫동안 숨죽이며 자리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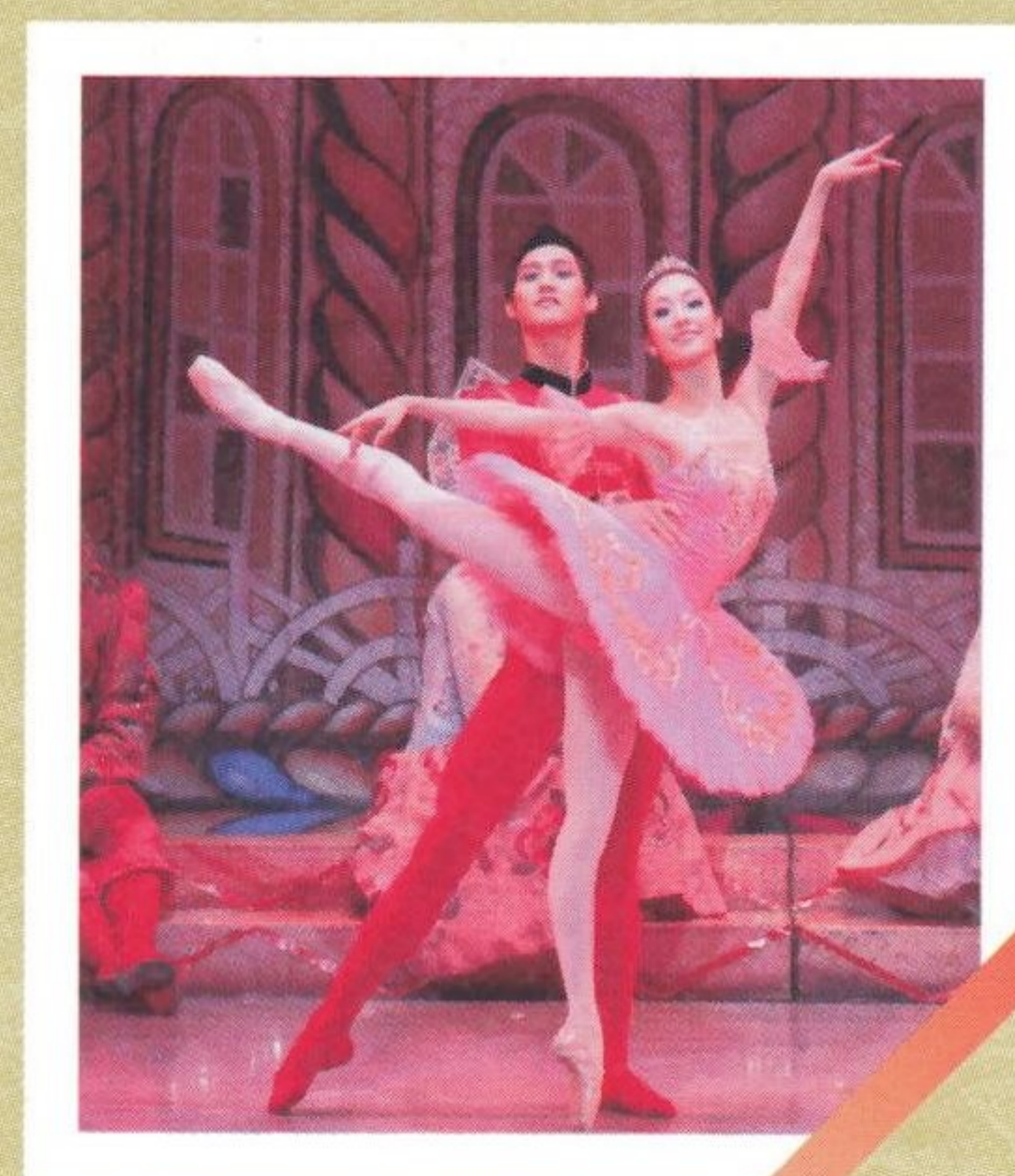
부석사 아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남아있는 일정을 위해 다시 예술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모듬북 배우기에 앞서 예술촌에서 준비한 엽서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모듬북 강습에서는 조재현 촌장의 아들 국원 씨가 강사로 나섰다. 뛰어난 연주실력과 서글서글한 말솜씨에 어느덧 교실은 모듬북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회원들의 열화같은 요청에 펼쳐진 조국원 씨의 모듬북 공연에서는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칠혹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운동장에는 캠프파이어 준비가 한창이다. 색색깔 고운 한지로 만들어진 풍등에 불을 켜고 더운 공기를 불어 넣어 하늘로 올려보내고 본격적인 캠프파이어가 시작됐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준비해놓은 풍등을 모두 띄우지는 못했지만 색색깔 고운 자태를 빛내며 올라가는 풍등에 시선을 땔 수 없었다. 곧바로 이어진 캠프파이어 점화. 하늘로 치솟는 불길에 쌀쌀했던 밤기운이 저만큼 달아나버린다. 한켠에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구워지는 삼겹살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어느새 영주의 밤이 깊어간다. 이제는 아쉽지만 부산으로 돌아갈 시간. 촌장님과 예술촌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 하고 밤 10시, 부산으로 출발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선비골 영주 야간여행. 자연과 역사, 예술, 여기에 사람의 따뜻한 정이 있어 더 특별했던 영주 여행은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힐링 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포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Culture Life

- 38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5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6 New Music
- 57 New Book
- 58 Special Movie



### 부산코러스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코러스합창단(010-2551-7542)

1999년 합창음악을 사랑하는 전문 음악인들과 합창 애호가들로 결성된 순수 민간 혼성합창 부산코러스합창단(단장 정현모)의 제10회 정기연주회. 제3대 지휘자로 부산코러스합창단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한성용 지휘자와 마련하는 첫 정기연주회로, 편안함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힐링의 무대를 선보인다.

#### ▶프로그램

보리밭, 사랑의 이름으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등 수곡  
· 지휘/한성용 · 반주/최지선  
· 독창/베이스 최현욱



### '아인 앙상블' 지구가 전하는 편지 5th 가을 여행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아인앙상블(010-5423-7460)

아인(Ein)앙상블이 오카리나와 로우 휘슬, 피아노 등의 악기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앙상블 공연과 솔로 공연을 함께 선사한다. 아인은 맑을 '뽕'에 어질 '느'을 써서 음악을 통해 바르고 어진 마음을 배운다는 뜻으로 부쳐진 이름.

#### ▶프로그램

알베니스/스페인 모음곡 작품165  
양방헌/제주의 왕자  
가요/가시나무, 동지, 겨울 바람 등 수곡  
· 연주/노은주(피아노), 홍광현(기타리스트), 옥준, 김경순, 배혜정, 박미현, 배강균 외



### 제24회 이견음악회

#### 피아니스트 '시몬 디너스틴(Simone Dinnerst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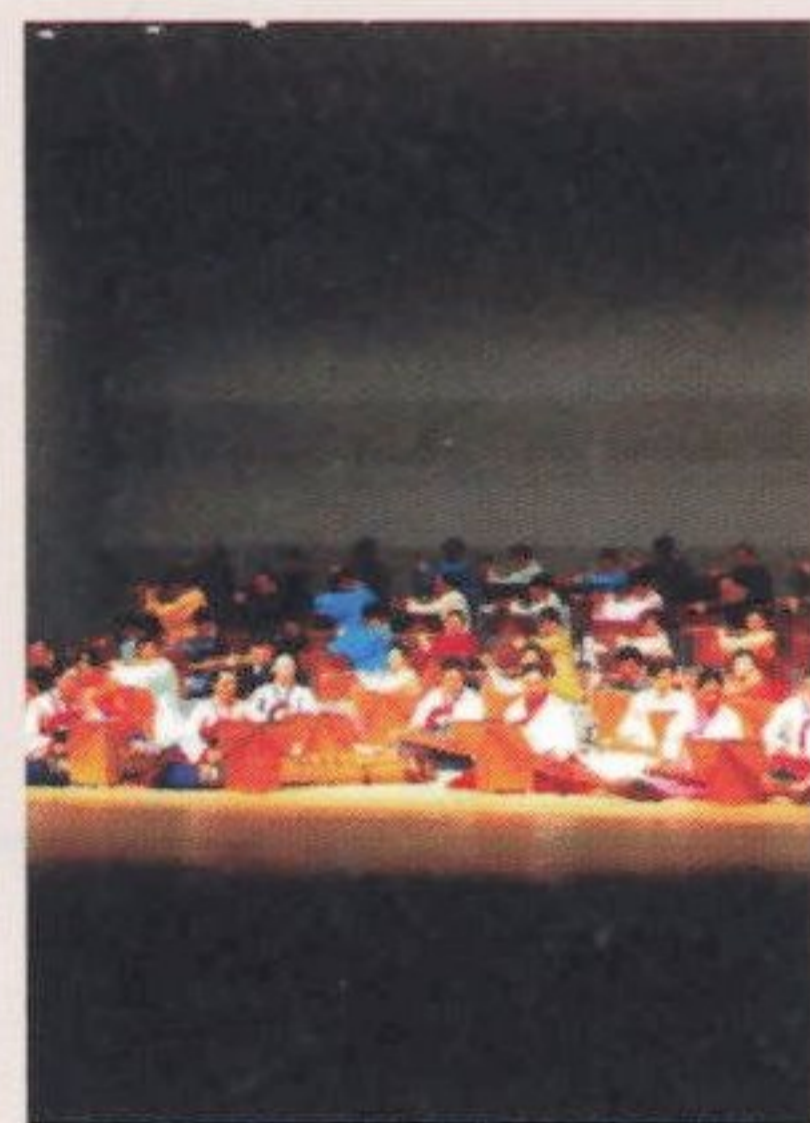
11월 2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문의 | 이견창호  
(02-547-5707, 010-9146-8667)

1990년부터 매년 가을, 문화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견음악회' 제24회 무대. 지난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라스 앙상블에 이어 올해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시몬 디너스틴(Simone Dinnerstein)'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2007년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 음반을 발매한 시몬 디너스틴은 그해 미국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다.



### 2013 한얼樂會 제8회 정기연주회

11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얼樂會(010-4503-1175)



1990년 부산문화회관 강습을 통해 인연을 맺은 국악동호인들로 결성된 이래 20여년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채수만 악장의 지도로 우리 음악의 전승, 보급에 힘써온 한얼악회의 2013년 무대.

#### ▶프로그램

대금, 소금제주/송구여지곡  
대금독주/요천순일지곡  
가야금제주/최옥산류 가야금 산조  
판소리/춘향가 중 쑥대머리, 사랑가  
가요합주/봄날은 간다, 부초같은 인생, 당신이 좋아 등



### 유럽 최고의 기타리스트 제레미 쥬브 & 조현미 듀오 콘서트

11월 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1600-1803)

2002년 폴란드 티히(Tychy) 국제기타콩쿠르 최우수상, 2003년 미국기타재단이 주최하는 국제기타콩쿠르 대회(GFA)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세계무대에 등장한 기타리스트 제레미 쥬브 부산초청 연주회. 13세의 어린 나이에 그르노블음악원(Conservatoire de



제레미 쥬브 조현미

Grenoble)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레미 쥬브는 낙소스(NAXOS)에서의 음반녹음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40회의 기타독주회를 지원받았다.

#### ▶프로그램

J. Rodrigo/Tiento antiguo, U Cavalcade nto al Generalife, Toccata  
파가니니/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Sonata Concertata 가장조  
라벨/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하바네라 형식의 소품  
피아졸라/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탱고의 역사 중 'Cafe 1930' 'Nightclub 1960' 등 수곡  
· 특별출연/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신라대학교 교수)



### 부산은파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11월 3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은파합창단(010-3839-1084)



2011년 50세 이상의 여성 합창 매니아들로 결성된 부산은파합창단(회장/차순남, 단장/박경자)의 제3회 정기연주회. 9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은파합창단은 부산국제합창제, 부산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홍길 지휘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운 금강산, 경기민요, 가요메들리 등을 들려준다.

### 휴피리 제25회 정기연주회

11월 3일 일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휴피리(632-5697, 010-2947-9580)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키리나 동호회 휴피리 제25회 정기연주회.

1999년 창단 휴피리는 지역시민을 위한 동호회 운영 및 정기연주회, 국립해양박물관, 용두산공원, 영도 패총박물관 연주회,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공연,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공연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키리나 연주곡, 클래식 연주곡, 영화 & 드라마 Ost, 가요, 국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11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15만 · R석 12만원 · S석 10만원  
 A석 8만원 · B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1951년 '사무일 사모수드'에 의해서 창설된 이래 나단 라클린, 키릴 콘드라신, 드미트리 키타옌코, 바질리 시나이츠키, 마크 엄러, 구 소련의 공훈 예술가 유리 시모노프 등 뛰어난 지휘자와 음악 감독들을 거치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해온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차이코프스키를 탁월하게 해석하여 호화스러운 낭만적인 기풍을 고양하면서도 설득력을 잃지 않는 훌륭한 지휘자로 정평이 나 있는 유리 시모노프가 지휘하고 '현존 최고의 피아니스트', 필립스 선정 '20세기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사람으로 선정된 안드레이 가브릴로프가 협연한다.

### ▶프로그램

글린카/오케스트라를 위한 왈츠-판타지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제3번  
 라흐마니노프/교향적 무곡  
 · 지휘/유리 시모노프  
 · 피아노/안드레이 가브릴로프



###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37회 정기연주회

11월 5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이태리음악연구회(010-6439-1875)

1985년도 창단된 부산 이태리 음악연구회가 들려주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두 번째 무대로 베르디 초기, 중기의 오페라 8개에서 아리아와 이중창 등을 선곡, 해설과 함께 재미있게 구성,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프로그램

오페라 'Giovanna d'arco' 중 'quale piu fido amico'  
 오페라 'IL corsaro' 중 'egli non riede ancora'  
 오페라 'IL trovatore' 중 'stri della vampa' 'madre non dormi'  
 오페라 'La traviata' 중 'de miei bollenti spiriti' 'parigi o cara' 'un di felice' 등 수곡  
 · 소프라노/전혜란, 이윤정, 권경미  
 · 테너/장원상, 정거화, 김철수  
 · 바리톤/김길수, 채범석, 윤풍원  
 · 피아노/안선애, 전은영



### 제16회 사랑과 평화의 음악회

11월 6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강학윤(010-9287-6350)

남구지역 문화예술인들로 결성된 남구문화회가 매년 가을 지역민을 위해 들려주는 사랑과 평화의 음악회.

### ▶프로그램

장일남(편곡)/신고산타령  
 김성태/동심초



임공수/그대 창밖에 서서  
 카르딜로/무정한 마음 등  
 · 출연/소프라노 박미경, 박순희, 박혜경, 테너 강학윤, 테너 김정민, 바리톤 하병욱, 색소폰 나용승, 클래식 기타 고충진, 피아노 김경미



### 제2회 한영길 대금 독주회 樂·歌·舞

11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영길(010-3863-102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한영길의 두 번째 대금독주회 '樂·歌·舞'. 대금독주의 대표곡인 '청성곡'과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을 비롯한 정악, 승무와 메나리 토리 민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 ▶프로그램

대금독주곡 상령산 청성곡, 표정만방지곡 중 상령산 대금시나위, 승무와 대풍류, 육자백이 메나리-이별가,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신고산타령 등  
 · 연주/김경수(피리), 방병원(해금), 홍영혜(아쟁), 윤경선(가야금), 송강수(장구), 김명진(좌고), 구란영(승무)



### 부산여성문화회관 풍물놀이봉사단

### 제3회 정기공연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4)

1998년부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재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의 계층들에게 문화공연, 지도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여성문화회관 풍물놀이봉사단의 제3회 정기공연.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보급하기 위한 이번 무대에서는 설장구, 앉은반놀이, 북놀이 등 그동안 공연 봉사활동에서 선보인 흥겨운 우리가락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 찬조출연/가야금예술봉사단



### 소프라노 조희정 귀국 독창회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조희정(010-3861-1903)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조희정 귀국 독창회. 조희정은 유학중 2회의 독창회,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교민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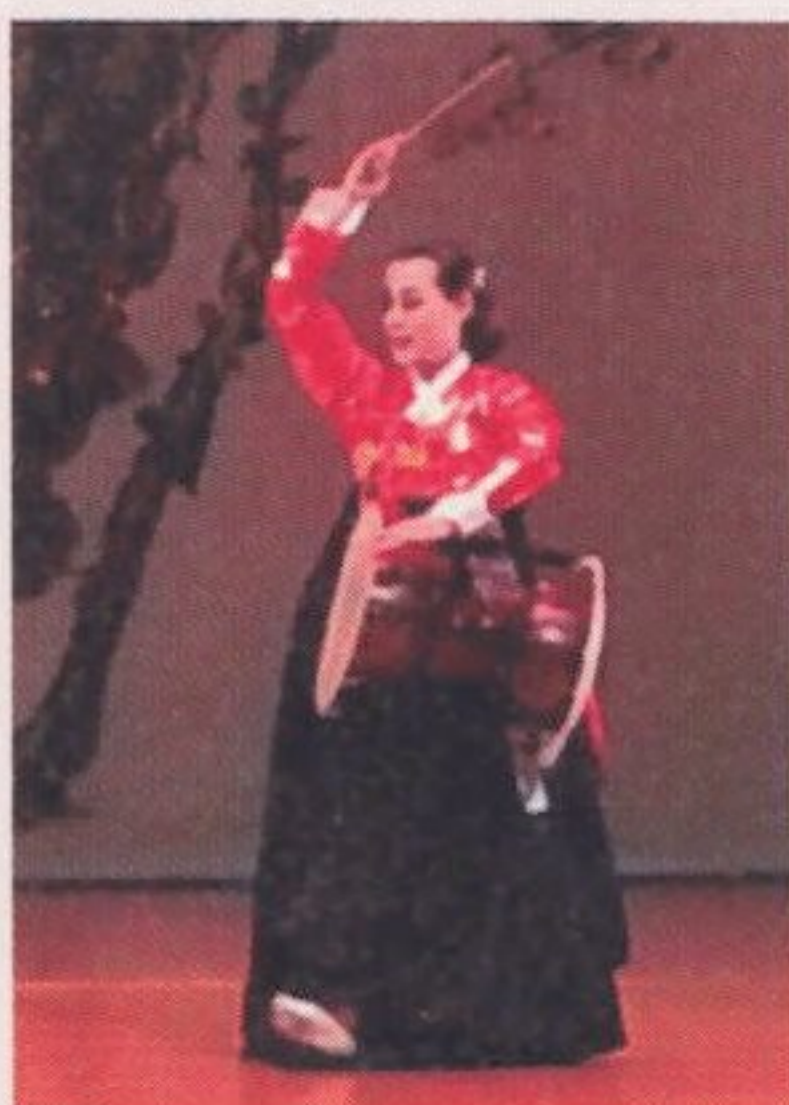
#### ▶프로그램

글린카/종달새, 벚꽃은 지고, 오페라 '이반 수사닌' 중 '안타니다의 로망스'  
림스키 코르사코프/높은 곳에서 불어온 것은 바람이 아니라네, 고요한 밤에 관하여 등 수곡  
· 피아노/이승윤



### 김신희 무용단 첫 춤판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신희(010-2841-4544)



우리 춤의 전승, 보급을 위해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온 김신희 무용단의 첫 춤판. 김신희 무용단은 인도네시아 초청 공연, 일본 후쿠오카 공연 등 국내외에서 우리문화를 알리는 공연활동과 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축원무, 입춤(김진홍류), 살풀이(김진홍류), 교방굿거리춤, 부채춤, 장고춤(김진홍류), 사물놀이 판 굿



### 동아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및 창단 36주년 기념음악회

11월 9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안희순(010-3866-7274)



동아대학교 합창단 동아리 동아합창단의 졸업생 모임인 연음회와 동아합창단이 들려주는 창단 36주년 기념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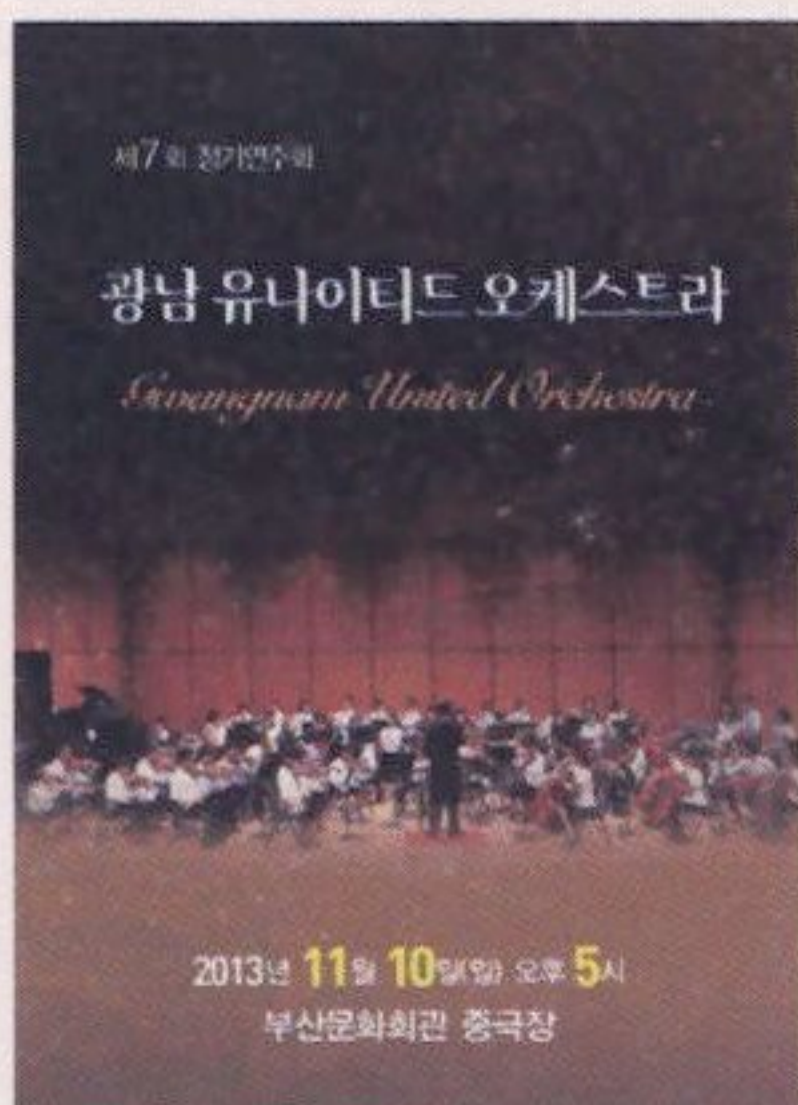
#### ▶프로그램

The World is Yours, 우리가 어느 별에서, 우리들의 겨울, 한계령, 먼지가 되어, 개구리, 푸니쿨리 푸니쿨라, 별빛 달빛  
· 지휘/장현두, 박장만 · 반주/이선희, 손혜진



###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윤강수(010-4555-1740)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1999년 광남초등학교 관현악부로 출발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는 부산초등학교 꿈나무 음악회, 부산 KBS 동요대회, 유진박과 함께한 열린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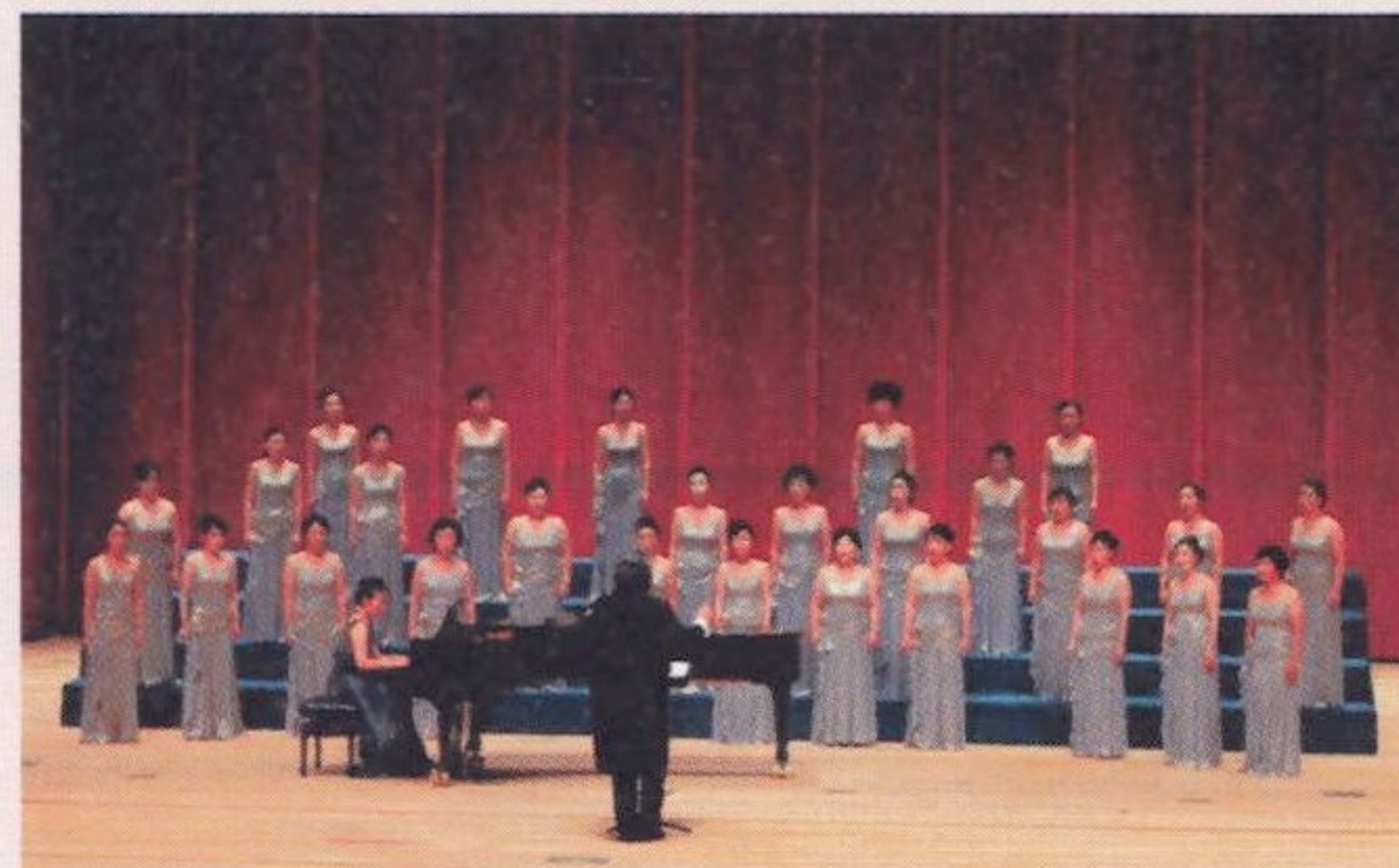
#### ▶프로그램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5번  
정재명(편곡)/숲속을 걸어요, 섬마을, 노래는 빛이야  
비발디/조화애의 영감 등 수곡  
· 지휘/윤강수(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 지도/양혜원, 이상숙, 권숙지, 이지윤, 장극태, 이보은, 황수빈, 정재은  
· 사회/박기홍(MBC아나운서)



### 제11회 부산광역시여성연합합창단 협의회 정기연주회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광역시여성연합합창단 협의회 (011-833-0621)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6개 구군 여성합창단 연합회 소속 회원이 함께 하는 정기연주회 무대로, 가을의 서정을 담은 우리가곡과 가요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그리운 금강산, 가고파, 빈센트, 문 리버, 내가 만일 등  
· 지휘/윤정윤 · 반주/이현주  
· 특별출연/소프라노 서경숙, 테너 곽성섭



### 독일가곡연구회 제43회 정기연주회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독일가곡연구회(010-2692-6856)

1987년 독일어권에서 유학한 부산의 음악인들로 창단된 독일가곡연구회는 창단 이후 지난 26년간 독일예술가곡의 연구, 보급을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슈베르트/즉흥곡 작품 90 제3번  
슈만/여인의 사랑과 생애 중에서-그를 본 후부터, 모든  
이 중 최고인 그, 달콤한 친구  
브람스/얼마나 화사하신지 나의 여왕, 사랑의 노래  
슈트라우스/4개의 마지막 노래 중 9월, 취침 등 수곡  
·출연/소프라노 김혜정, 장은영, 정은미, 장희진, 테너  
김현식, 이은민  
·피아노/박필은, 공소현, 임호진, 박미은, 김성희, 김경미



부산무용협회 새물결 춤 작가전

11월 11일 월요일, 13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무용협회(632-5116)



개성 있는 차세대 무용가들의 창작 열정을 만날 수 있는 부산무용협회 '새물결 춤 작가전' 2013년 무대. 부산지역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이번 무대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다양한 장르의 창작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 11일(월)  
춤 '栗' 디아스포라의 눈(안무/김윤희)  
그랑발레 緣 나와 나를 잇다(안무/이혜인)  
June Dance Company 'The moment of truth'(안무/김미현)
- 13일(수)  
JULY Dance Theater '나는 아빠다'(안무/구은혜)  
Wings Dance Company '나를 슬쁘게 하는 것들'(안무/허소정)  
로고현대무용단 '뽕'(안무/정보람)



제6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음악협회(634-1295)

10월 1일 피아노협주곡의 밤에 이어 부산지역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마련하는 제6회 피아노 그랜드 페스티벌. 부산음악협회의 독창적인 기획인 여덟 개의 손(4대의 피아노)을 위한 앙상블 무대로 피아노를 통한 오케스트라의 웅장함,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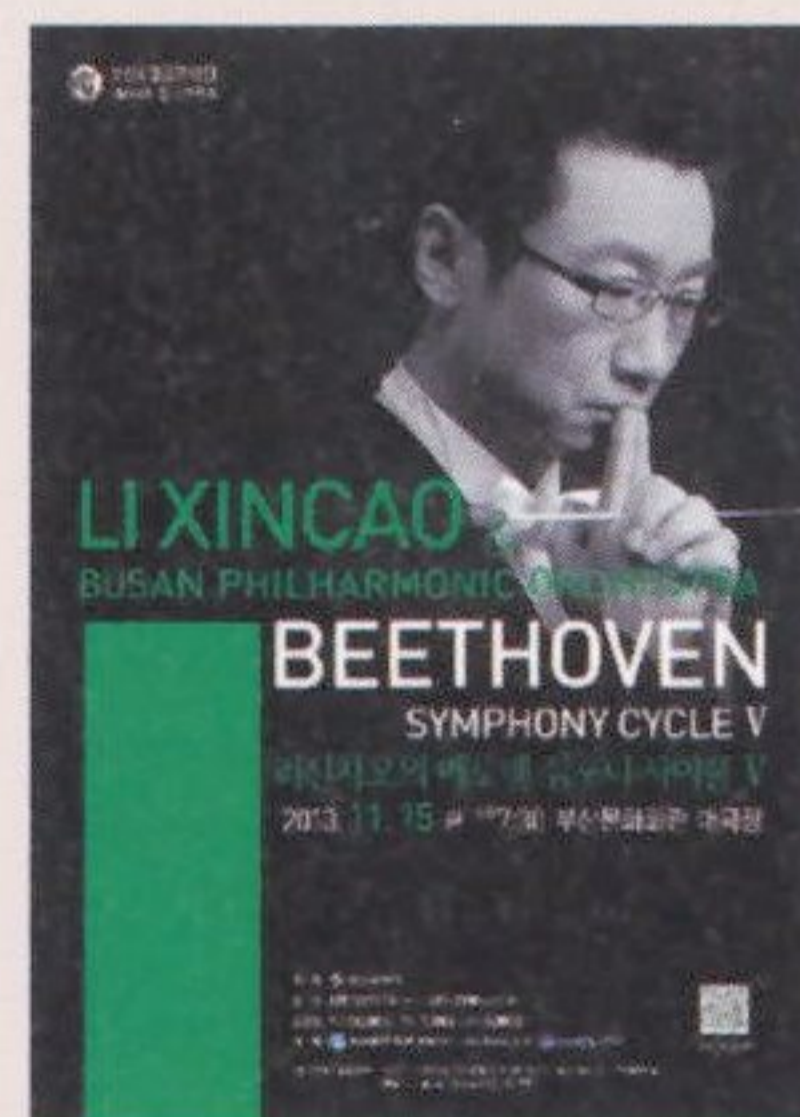
▶프로그램

시벨리우스/핀란드어 작품 26 제7번  
슈베르트/송어 작품 32  
발라키레프/이슬라메이 등 수곡  
·연주/장근미, 서숙지, 이미라, 이정아, 이정현, 이민숙, 한은아, 김은실, 김선희, 김은진, 김은미, 서영섭, 정희정, 김지현, 안미정, 정정화, 최은실, 김민자, 노귀혜, 김명진 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3월 20일 교향곡 제1번, 교향곡 제2번 연주를 시작으로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와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다섯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백절불굴의 투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한 승리자이자 고전음악의 완성자인 베토벤의 양대 대표곡 교향곡 제5번 '운명'과 제6번 '전원'을 들려준다. 교향곡 제5번 '운명'과 제6번 '전원'은 같은 해의 작품이라 스케치, 전개 등의 면에서 예술적 연관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제5번은 인간을 표현하고 남성적이며, 지극히 집중적인 곡임에 비해, 제6번은 자연을 표현하고 여성적이며, 넘쳐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곡으로 완전히 상반된 면도 있다.

▶프로그램

교향곡 제6번 바장조 '전원' 작품 68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소프라노 김시하 귀국 독창회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시하(010-4081-6490)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탈리아로 유학,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성악(수석입학)과 실내음악(10 Lode 만점 수석졸업) 졸업하고 폭넓은 음악수업과 음악활동을 펼치고 귀국한

소프라노 김시하 귀국 독창회.

▶프로그램

헨델/내가 만일 유발의 수금을 가졌다면(Oratorio 'Joshua' 중)  
벨리니/세 개의 작은 아리아-뜨거운 열망, 슬픈 모습의 나의 휠레어, 방랑하는 은빛 달이며  
빌라 로보스/브라질 풍의 바흐 제5번 등 수곡  
·첼로/현리사 ·피아노/홍지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39 휴먼레이스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문화회관에 '하늘아래 그 콘서트'의 서른 아홉번째이자 마지막 주인공 휴먼레이스의 부산무대. 2011년 한국 인디밴드(부산)의 1세대 격인 앤(ANN)의 베이시스트 출신 최민수와 또 다른 부산밴드 '비 마이 게스트(Be My Guest)'의 드러머 출신 장재송이 주축이

되어 보컬 윤성기, 기타 신재혁을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휴먼레이스(Human Race)는 영어로 '인류'란 뜻으로, 인류의 모든 감정을 담겠다는 의미로 팀명을 정하고 2012년에 두 장의 EP 'It's You'와 'November'를 발매했다. 휴먼레이스의 보컬 윤성기는 Mnet 보이스 코리아 시즌2의 Top4까지 올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무대는 새로운 싱글앨범 발표 후 부산 첫 단독콘서트로 라이브 밴드의 진수를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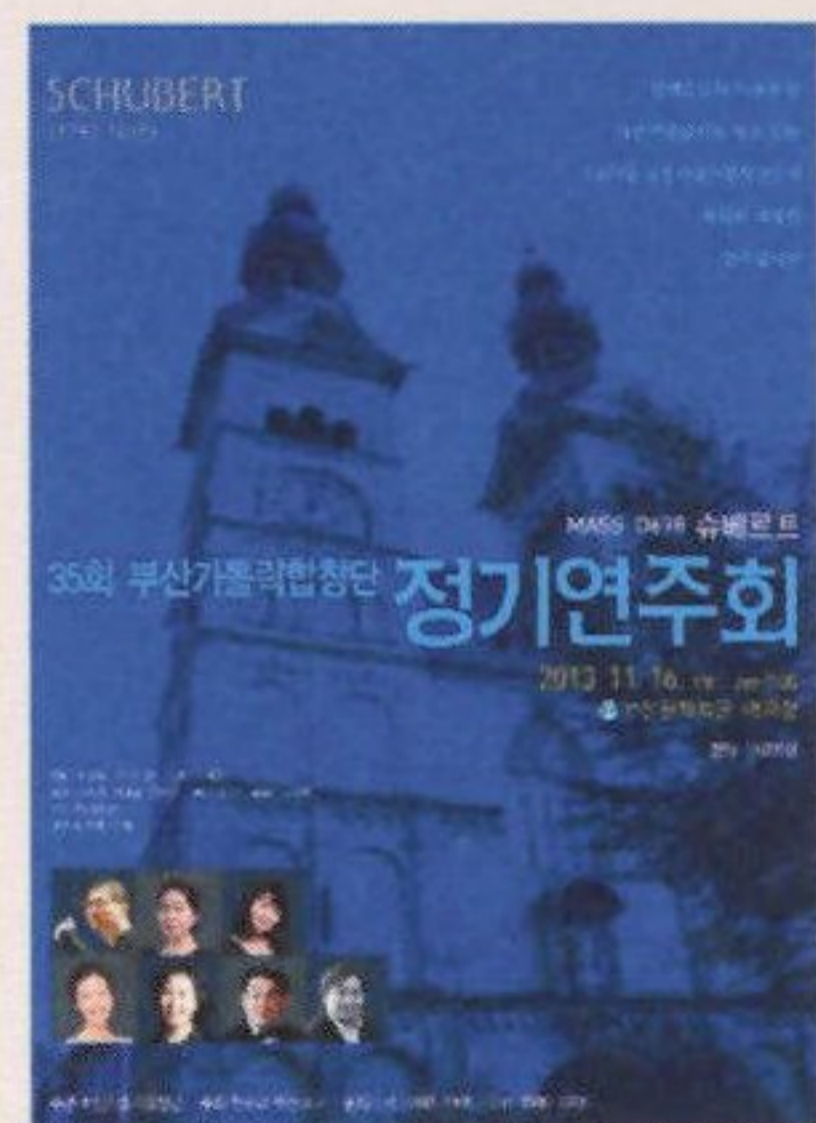


### 부산가톨릭합창단 제35회 정기연주회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가톨릭합창단(010-8368-2445, 010-3586-938)



1982년 3월 시편(88,1)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 하리라'를 모토로 부산교구 소속 직속합창단으로 출발한 부산가톨릭합창단 제35회 정기연주회.

부산가톨릭합창단은 그동안 시대를 초월한 수많은 작곡

가의 성가를 발굴, 연주하면서 정기연주회,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수준 높은 성가 무대를 선사해왔다.

부산국제합창대회에서 무반주 종교합창 부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한 부산가톨릭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슈베르트 미사곡 중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사 D.678을 부산가톨릭합창단만의 독특한 색깔로 들려준다.

#### ▶프로그램

- 기도/주여 임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 무반주 성가/오 큰나큰 신비여, Jesu christe
- 동심의 무대/애니메이션 매들리
- 슈베르트/미사 D.678 등 수곡
- 지휘/이성훈 · 피아노/이민아
- 오르간/이효진 · 소프라노/강혜정
- 메조소프라노/정수연
- 테너/김성진 · 베이스/조규희
- 연주/네오필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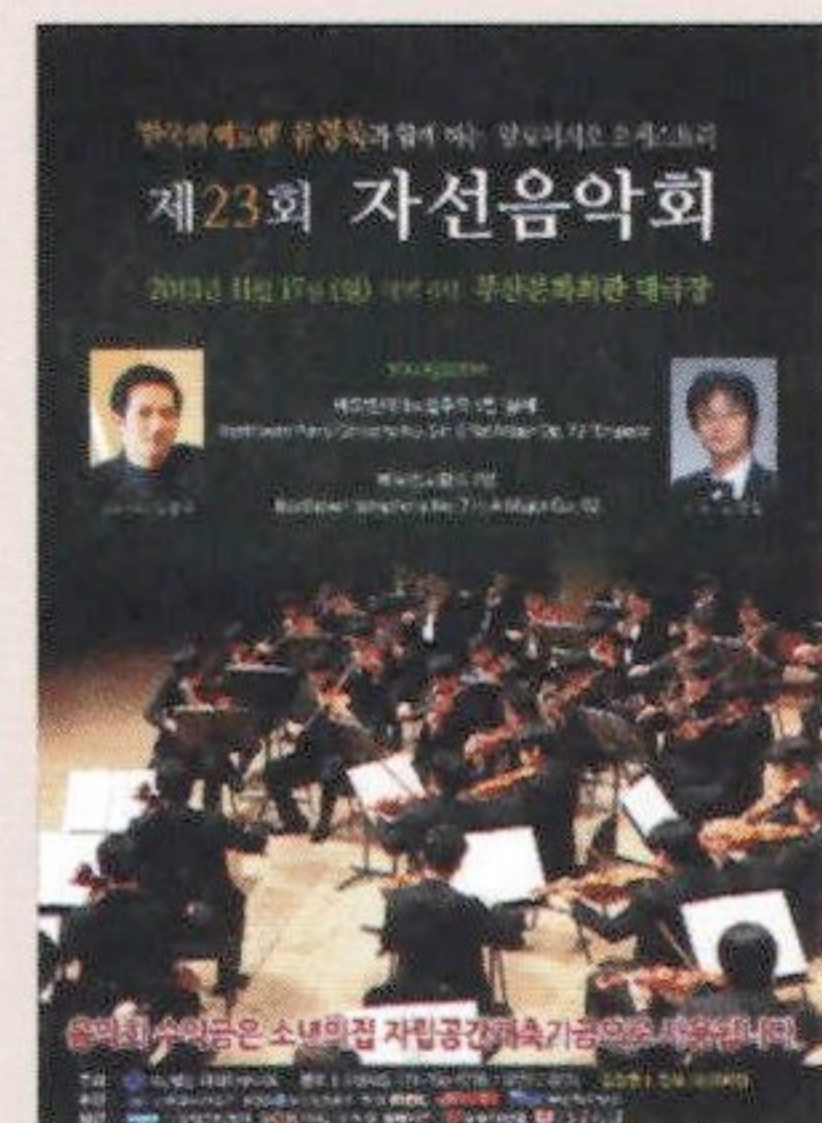
### 한국의 베토벤 유영욱과 함께 하는

###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제23회 자선음악회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소년의집(250-5270, 010-2732-3910)



전국의 각종 음악경연대회에서 개인 또는 파트별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온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제23회 자선음악회. 1999년 장영주 독주회 앙코르 무대, 유진박과 사랑의 음

악회 등 많은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과의 협연을 가진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는 2010년 2월 모든 음악인들이 꿈꾸는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서 뉴욕의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무대는 스페인 산탄데르 국제피아노 콩쿠르 만장일치 대상을 차지한 한국의 베토벤 피아니스트 유영욱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연다.

#### ▶프로그램

-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 베토벤/제7번 교향곡



### '꿈☆노력☆도전', 세계 속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힐링콘서트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시리즈 II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 A석 1만원 (수능생 무료초대-수험표지참, 선착순 전화예약, 학생 전석 50% 할인)

문의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아름다운 열정과 역동적인 면모를 발휘하며 부산지역 민간오케스트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함께 들려주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시리즈 II,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부

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야심차게 준비한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시리즈는 지난 4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1번의 부산초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하순봉(부산대 외래교수)의 창작곡 교향시 '부산기질'이 초연된다.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위촉 작곡된 '부산기질'은 부산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시대의 애환과 역사,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부산만의 특징을 그린 곡이다.

#### ▶프로그램

- 하순봉/교향시 '부산기질'
-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마단조 작품27



### 피아니스트 김은희의 클래스 연주회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6: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은희(010-9269-5567)

독일 에센국립음대,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마틴 루터 대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은희의 클래스 음악회.

- 연주/박사현, 김지은, 정명후, 김희진, 윤고은, 최지혜, 서예은, 이환희, 방현주, 김하경, 선희정, 이안나, 신나리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9회 정기연주회 새로움, 설렘, 동행!

- 옥류금, 해금, 중국양금, 철현금, 태평소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전통과 어우러지는 창작국악관현악곡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69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국악애호가들의 가슴에 우리음악의 새로움을 전달하고, 다양한 악기군의 협주곡으로 우리 음악의 다양성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한국, 북한, 중국악기의 음색과 협연자들만의 음악적 색깔이 관현악과 어우러진다.

▶프로그램

박위철(편곡)/옥류금 협주곡 '황금산의 백도라지'  
 이정면/해금협주곡 '활의 노래'  
 홍정희/양금협주곡 '바람의 노래' (부산초연)  
 이태백/철현금 협주곡 '공감' (부산초연)  
 황호준/태평소 협주곡 '검은 평화' (부산초연)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하지희(옥류금), 김소현(해금), 윤은화(양금), 유경  
 화(철현금), 김경수(태평소)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40주년 기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제 69회 정기공연  
 40-춤추는 영혼

11월 21일-22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신 중 '천고'

생과 사,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전하  
 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창단 40주년 기념공연 '40-춤추  
 는 영혼'.

지난 40년간 수많은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리며 인간과  
 삶, 우주와 세계를 춤으로 승화시켜온 부산시립무용단  
 이 창단 40주년 기념무대로 자신있게 준비한 '40-춤추  
 는 영혼'은 고전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감각의 작품이다.

'40-춤추는 영혼'은 조선시대 판타지 로맨스 소설 '이  
 생규장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영원한 사랑을 꿈꾸  
 는 현대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 안무 및 구성/홍경희(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연출/구현철(극단 차이 대표)
- 대본/이미연(연극놀이 연구소 As if 소장)

정미숙의 춤 '춤길' III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정미숙(010-3869-1530)

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이수자, 부산무용협회 부지회  
 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미숙 무용단의 춤 무대.

▶프로그램

승무춤/정미숙  
 검무(안무/이매방, 춤/정혜림, 이윤혜, 이민아, 김정경)  
 한영숙류 태평무(춤/정미숙)  
 설장고(춤/박순호), 살풀이춤(춤/정미숙)

제44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오케스트라로, 대학교수진과  
 유능하고 열정 있는 단원들  
 로 결성된 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문화소외지역 찾  
 아가는 음악회, 대형오페라  
 연주, 도시락보내기 등의 자  
 선음악회, 시민을 위한 순회

야외음악회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Russia Saint petersburg rimskii-korsakov 국립음대  
 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유경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바그너/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서곡

2013 신라대학교 합창 정기연주회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신라대학교 음악학과(999-5265)

신라대학교 음악학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음악  
 도들이 그 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합창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팔레스트리나/키리에  
 헨델/주의 영광  
 칼오르프/'카르미나브라나' 중 '세상을 다스리는 운명  
 의 여신' 등 수곡  
 · 지휘/박광하 · 반주/이소영, 김지연

평양 한민족 예술단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콘서트

11월 24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마하사(010-3627-2228)

천주교 당감성당과 마하사가 종교를 초월한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웃사랑음악회.  
 올해는 자유를 찾아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온 평범한 북  
 한 이탈주민 여성들로 결성된 평양한민족예술단이 출  
 연, 평화와 행복한 단일민족전통의 통일을 기원하는 특  
 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고구려 복소리, 중창 '반갑습니다', 독창 '뱃노래', 부채  
 춤, 이중창 '짚레꽃', 4인무 소개춤, 4중창 '아리랑 낭  
 낭', 쌍무 '새봄을 노래하네', 가요곡 '평북영변가' 등

소리쟁이 성악연구회 10인의 음악회

11월 24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소리쟁이 성악연구회(010-3165-4414)

바리톤 고봉수를 주축으로 노래를 사랑하는 부산의 성  
 악가들로 결성된 소리쟁이 성악연구회가 창단연주회에  
 앞서 내소날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10인의 음악회  
 로 풍성한 소리의 향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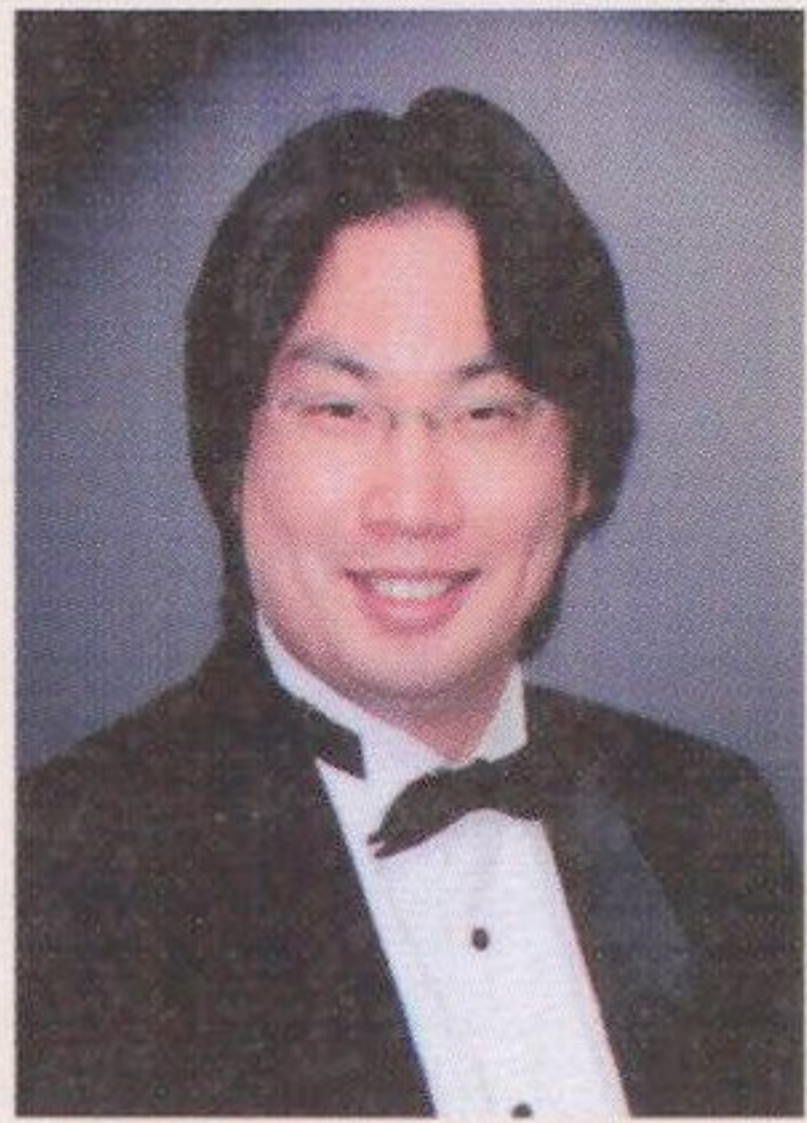
특히 이번 무대는 기성 음악가와 함께 젊은 영아티스트  
 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김동진/수선화  
 베네딕트/달콤한 4월이 오면  
 도니제티/집시의 노래 등 수곡

### 바리톤 윤오건 귀국 독창회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윤오건(010-9304-6791)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Santa Cecilia 국립음악원, Tito Schipa 국립음악원, AI.ART. 아카데미 합창지휘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바리톤 윤오건 귀국 독창회.

윤오건은 유학중 Voci Nuove

Per La Lirica 국제콩쿠르 1위, Spazio Musica 국제콩쿠르 1위없는 2위, Euterpe 국제콩쿠르 2위에 입상한 바 있다.

#### ▶ 프로그램

스카를라티/해는 이미 갠지스 강에서, 그대 나의 죽음에  
포레/만돌린, 달빛  
임금수/그대 창밖에서 등 수곡



###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복희(010-8523-2306)  
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4)

음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소통하고 봉사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32명의 여성합창인들로 결성된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의 정기연주회.

1993년 창단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어온 미루샘합창단은 2009년 부산 후쿠오카 교류 20주년을 기념하여 후쿠오카 여성 후쿠오카 합창단과 함께 '2009 부산 후쿠오카 우정의 해 기념 교류음악회'를 가진 바 있다.

####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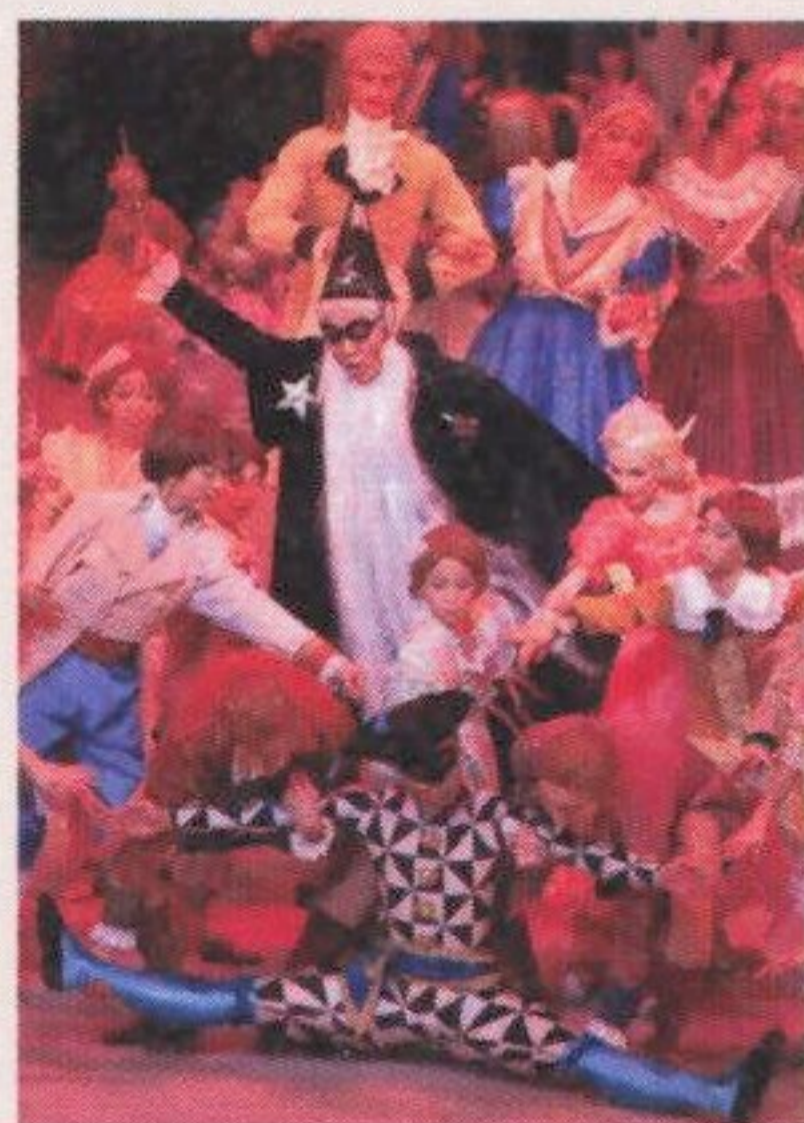
석별, 노을, 행복한 산책, 로미오와 줄리엣, 부드러운 목소리, 아름다운 것들, 편지, 산노을, 나를 잊지 말아요 등 수곡

- 지휘/한정현 · 반주/최승희
- 단장/이복희
- 찬조출연/테너 임성규, 양산초등학교 합창단, 박수향(오카리나)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30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 S석 7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8)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고전발레의 명작 '호두까기인형' 부산공연.

마리우스 프티파가 대본을, 레프 이바노프 안무로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세계

초연된 '호두까기인형'은 그 후 여러 안무가에 의해 재안무되어 지난 120년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최초의 한국 발레단으로 사랑받고 있는 유니버설발레단이 바실리 바이노넨 버전 '호두까기인형'으로 부산 관객들과 만난다.



### 2013 부산성악아카데미 정기연주회

#### 가곡과 아리아의 밤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성악아카데미(010-7767-4390)

다양한 연주와 교육, 학술활동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해온 부산성악아카데미의 2013년 정기연주회. 1987년 미국, 유럽에서 음악수업을 마치고 귀국한 성악인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부산성악아카데미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가곡과 아리아의 밤, 영·호남 교류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 ▶ 프로그램

- 헨델/라르고
-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흘린 눈물'
-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등 수곡
- 출연/이흥득, 김길수, 이은민, 김성배, 황성학, 김정대, 이민정, 우명화, 박현정, 한현미, 백현영 외

### 동의대학교 예술콘서바토리 국악과

#### 판소리동인 '소리마루' 창단공연 三人 三色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서한결(010-9304-3233)



동의대학교 예술종합콘서바토리 국악과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학생, 졸업생들로 결성된 '소리마루' 동인들의 창단연주회.

'소리마루'는 우리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전통판소리

의 전승 및 계승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 프로그램

- 춘향가 중 온갖 생각 대목(소리/박쌍규 · 고수/신호수)
- 춘향가 중 이별대목(소리/송명자 · 고수/신호수)
- 적벽가 중 적벽싸움부터 새타령대목까지(소리/서한결 · 고수/신호수) 등
- 해설/엄익준(동의대학교 예술종합콘서바토리 국악과 객원교수)



### 슬로바키아

####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 내한연주회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 코리아뮤지카(02-2272-6516)

중부 유럽에 위치한 슬로바키아를 대표하는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의 부산연주회.

고도의 숙련된 음악적 테크닉, 격렬하고 열정적인 연주로 정평이 나있는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는 전 유럽은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이집트,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지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 ▶ 프로그램

- 모차르트/디베르티먼트 바장조 KV 138
- 사마르티니/신포니에 가장조
- 드볼작/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2

## Music

### 2013 대학교향악축제

10월 31일(목)-11월 1일(금), 4일(월)-8일(금)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10월 31일 부산대학교 교향악단 연주를 시작으로 동의대학교(1일), 고신대학교(4일), 신라대학교(5일), 동아대학교(6일), 인제대학교(7일), 경성대학교(8일) 등 7개 대학 관현악단의 무대가 펼쳐진다.

### 신도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정희자(011-589-3111)



초등학생 60여명으로 구성된 신도관현악단은 지난 1998년 창단 후 부산영어방송국 초청 유진박과의 협연 무대,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정희자  
· 협연/소프라노 장은영, 베이스 박상진

### 스페이스 음 목요일음악회

1일(금), 7일(목), 21일(목) 오후 7:30  
스페이스 음  
입장료 | 균일 1만원(1일 공연 무료)  
문의 | 스페이스 음(557-3369)

차 한잔의 여유와 작은 음악회로 누리는 만원의 행복 스페이스 음 목요일음악회 '차가 있는 음악회' 11월 무대.

### ▶1일 비올리스트 이성호와 함께하는 비올라이야기



· 피아노/김유미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Ars앙상블 단원, La Musica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비올리스트 이성호 초청 무대.

#### ▶프로그램

훔멜/환타지  
바흐/비올라협주곡 다단조 등

### ▶7일 소프라노 김삼희 독창회

경성대학교와 이태리 파르마 'A. Boito' 국립음악원, 파르마 'Orfeo', 제노바 'Ducale'를 졸업한 소프라노 김삼희가 '사랑'을 주제로 한 독일 연가곡과 한국가곡,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한수명

### ▶21일 피아니스트 박정현의 2nd 앨범

#### 'sometime somewhere' 쇼케이스 콘서트

중앙대학교와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바이마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세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현의 무대로, 뉴에이지와 재즈, 팝 발라드 등이 수록된 두 번째 자작연주 앨범인 'sometime somewhere' 쇼케이스 무대가 펼쳐진다.

### 조성철 플루트 독주회

11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조성철(010-8525-2295)



플루트 독주회.  
· 피아노/김승환

경성대학교와 프랑스 Passy 시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파리사범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수석, 페르티바 플루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중인 조성철

###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 오페라 이야기 속으로 제2화

####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11월 2일 토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부산우드윈드앙상블(010-5660-3919)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오페라 이야기 속으로' 두 번째 무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서곡과 주요 아리아를 목관앙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 연주/강미경(플루트), 안현영(오보에), 원준연, 황윤원 (클라리넷), 변지윤, 하해림(바순), 이민정, 최창현 (호른), 김성희(피아노, 해설)

부산악기점  
www.piano123.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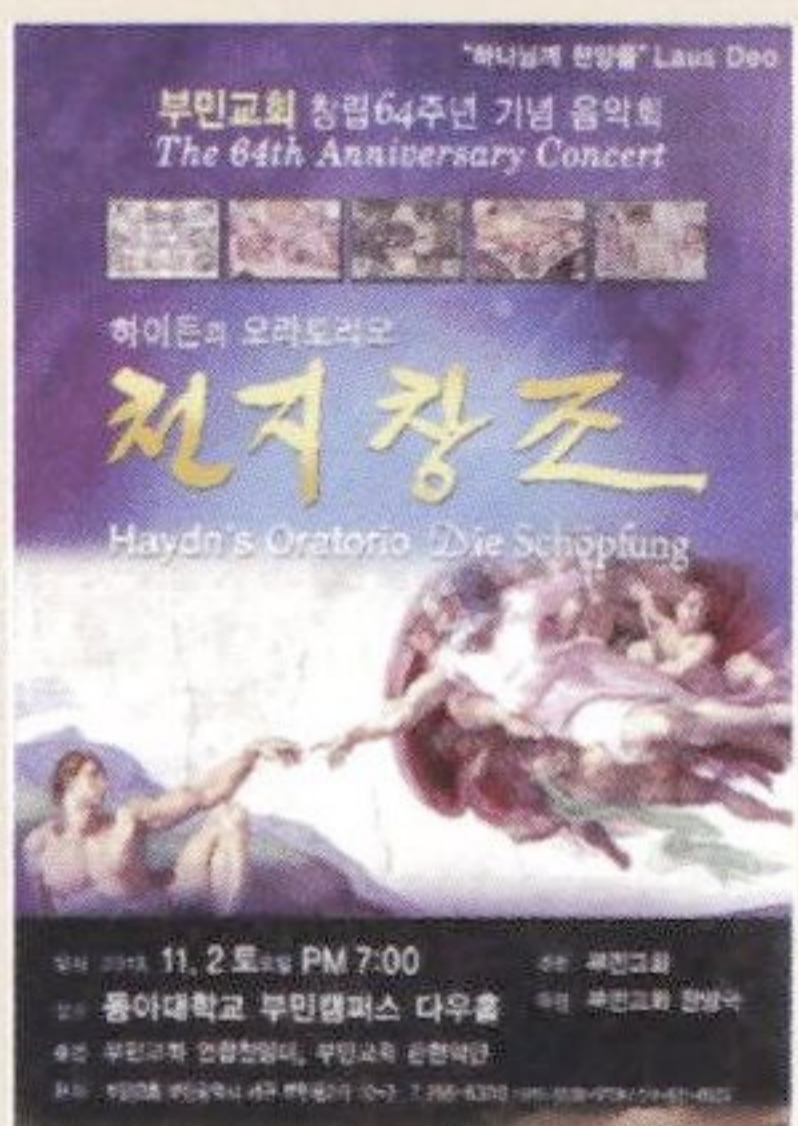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부민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음악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1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민교회(256-6300)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로 마련되는 부민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음악회.

· 지휘/김진영  
· 솔로/소프라노 구민영, 허은영, 테너 조성환, 바리톤 유형광, 김동욱

· 연주/부민교회 연합찬양대, 부민교회 관현악단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IPB 챔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11월 3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IPB(744-0067)

지난 2012년 창단 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리더를 초청, 객원악장 체제를 유지하며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



해운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현재 도이치심포니오케스트라, Mutter's Virtuosi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웨이 루가 객원악장으로 참여하며, 춤꾼 노명덕, 중국국립중앙음

악원 교수 Guang Chen(트럼펫), Yi Man(혼)이 협연자로 관객과 만난다.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11월 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청소년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서울대학교와 미국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론지음대 Artist Diploma, 보스턴음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올해 3월 동아대학교 강의전담교수로 발탁된 피아니스트 박정희의 부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대단한 에너지와 기교를 요하는 라흐마니노프 '6개의 악흥의 순간', '9개의 에튀드 작품 39'를 들려준다.

차와 향기가 있는 브런치 콘서트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1: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지난 2002년 이태리, 독일, 러시아 등에서 수학한 남성 성악가들로 결성된 후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온 남성중창단 해피양상블과 함께하는 해운대문화회관 차와 향기가 있는 브런치 콘서트.

지휘자 손명균과 함께하는 불가리아 페스티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1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문의 | 손명균(010-3830-1636)



동유럽 최고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불가리아 페스티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

▶ 프로그램

로시니/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브람스/카르멘환타지

모차르트/교향곡 제31번 K.551 '주피터' 등

· 지휘/손명균

· 협연/이민희(소프라노), 김선영(피아노), 황미리(플루트)

Hacking Brahms & Schumann  
조윤환 가곡 독창회

11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청소년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고신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 베를린 국립음악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을 지닌 테너 조윤환의 무대.

비엔나음대 교수인 세계적인 가곡 반주자 노먼 쉘러의

연주로 브람스, 슈만의 가곡으로 꾸며진다.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26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5일 제133회 심새미 가야금 독주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아시아 금교류회, (사)한국가야금연주자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가야금주자 심새미 독주회. 폭넓은 농현(弄絃)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들려준다.

▶ 12일 제134회 장인숙 전통춤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 동아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7회 서울국제무용제 개인연기상, 제28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장인숙의 전통춤판.

▶ 19일 제135회 조현영의 춤'개화-춤...꽃이 피다'

경성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조현영무용단 대표로 활동중인 조현영의 전통춤판.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 6일 테너 이철성이 들려주는 Paolo Tosti의 '사랑과 슬픔'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까를로 베르곤지, 오르페오, 보게라, 손드리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동양인 처음으로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이철성이 들려주는 토스티 가곡의 밤.

▶ 13일 제29회 뮤즈앙상블 정기연주회

1988년 뮤즈트리오를 시작으로 1989년 현악사중주와 목관오중주로 창단한 뮤즈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부산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KBS FM콘서트, MBC목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연주/임병원(음악감독, 바이올린), 김언정(바이올린), 최영식(비올라), 이동열(첼로)

▶ 20일 피아니스트 김성숙, 안준희의 프로젝트 콘서트 집중탐구시리즈(7)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성숙과 부산대학교와 프랑스 에콜 노르말 고등음악원, 웨일 말메종 국립음악원, 메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반주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안준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콘서트 7번째 무대로, 슈베르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 27일 소프라노 김정아 독창회 '한국가곡 사계'

부산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르페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김정아가 들려주는 한국가곡의 밤.

2013년 필로스 색소폰 오케스트라 가을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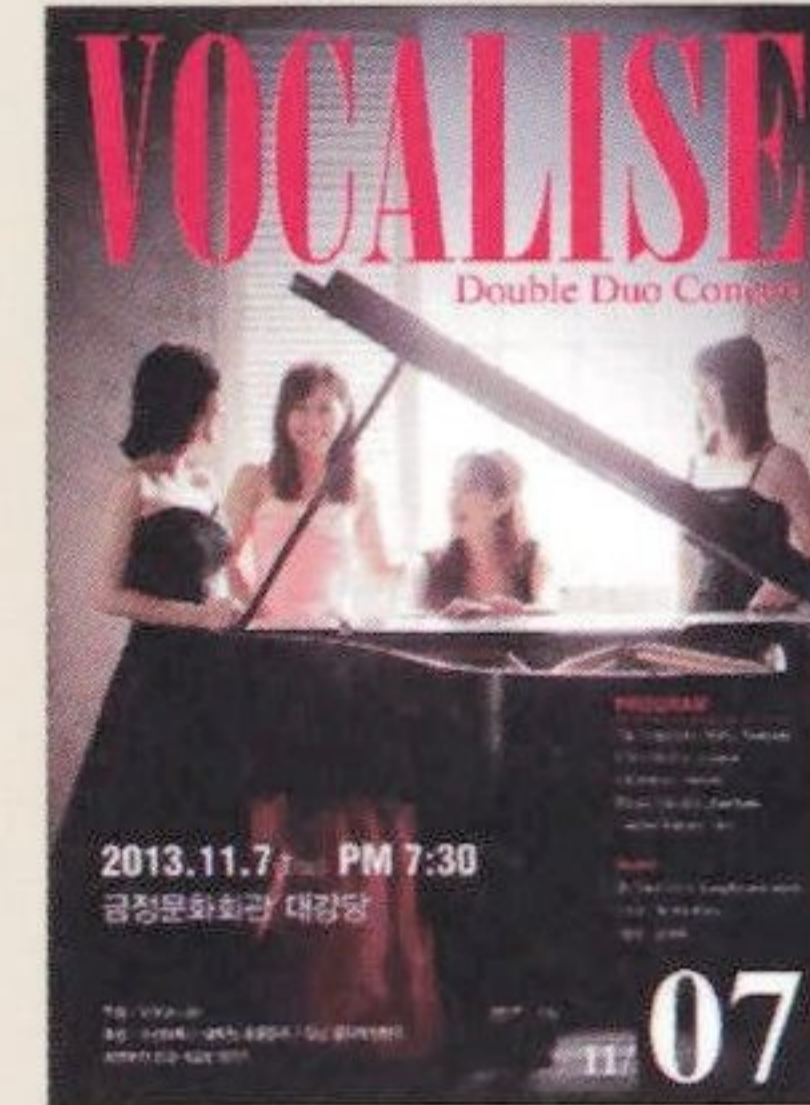
11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필로스 색소폰 오케스트라 (010-8724-5551)

지난 2011년 색소폰 선율의 매력에 빠진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창단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필로스 색소폰 오케스트라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 단장/장문호 · 지휘/임일용

VOCALISE 'Double Duo Concert'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VOCALISE(010-4338-0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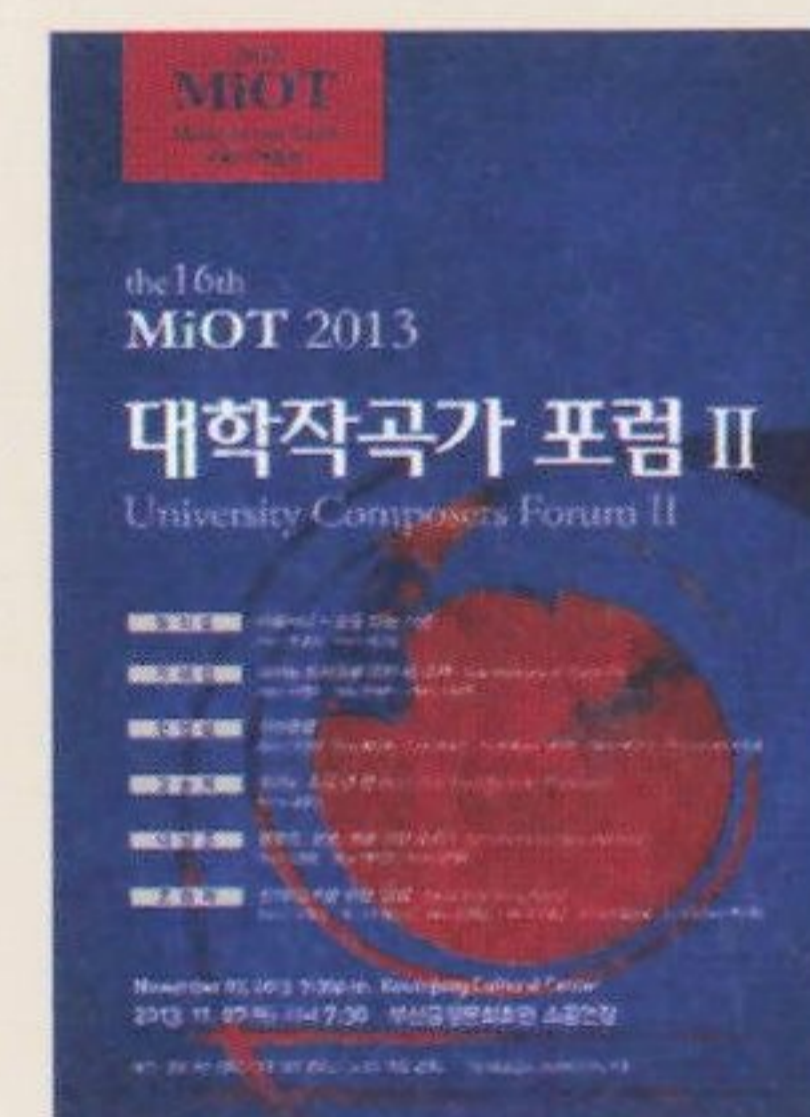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대학원 동문인 젊은 피아니스트 전소영, 이경진, 송화연, 고운정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 무대.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거쉬인/ Got Rhythm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비제/카르멘 환상곡 등  
· 게스트/소프라노 김지현, 드림 박아론  
· 해설/심미화

MiOT 제16회 정기연주회 대학작곡가 포럼 II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MiOT(701-1584, 018-566-1584)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려진 MiOT(Music in Our Time, 우리시대음악)의 16번째 정기연주회.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 작곡/정희운(동아대학교 작곡과), 지혜정(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천영진(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대학원), 강순희(전 부산대학교 교수), 이상준(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조현재(인제대학교 음악학과)

| 국제 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녹음홀 | 글로빌아트홀

www.glovil.org 051 505 5995 / 070 8880 5995

대 관  
독창회/독주회/실내악/세미나/행사



연주자에게는 편안함을  
관객에게는 감동을 주는  
글로빌아트홀

-부양구조와 음향확산공법에 의한  
최적의 어쿠스틱 연주홀  
-객석 어느곳에서든지 고른 음향 전달

녹 음  
음반녹음/유학,콩쿨 제출용/영화음악/개인소장



실제 공간울림을 들으며  
녹음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어쿠스틱 음향홀

-영국 BBC 방송사와 동일한 녹음장비 보유  
-클래식 녹음 전용 마이크 다수 보유  
-음악전공 전문엔지니어에 의한 녹음  
및 Editing, Mastering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 글로빌아트홀

### 음악대륙 가이아 'AWAKE GREEN Concert'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음악대륙 가이아(010-3273-8184)



다양한 음악장르를 국악과 융합시켜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퓨전 국악실내악팀 음악대륙 가이아의 환경과 이웃을 위한 'AWAKE GREEN Concert'.

▶ 프로그램  
신정현/꿈꾸다

손한별/슬픈고래는 노래해  
최요섭/환경미화원 아기씨 등



### CBS콘서트 '모스틀리 심포닉 CCM'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CBS부산방송(636-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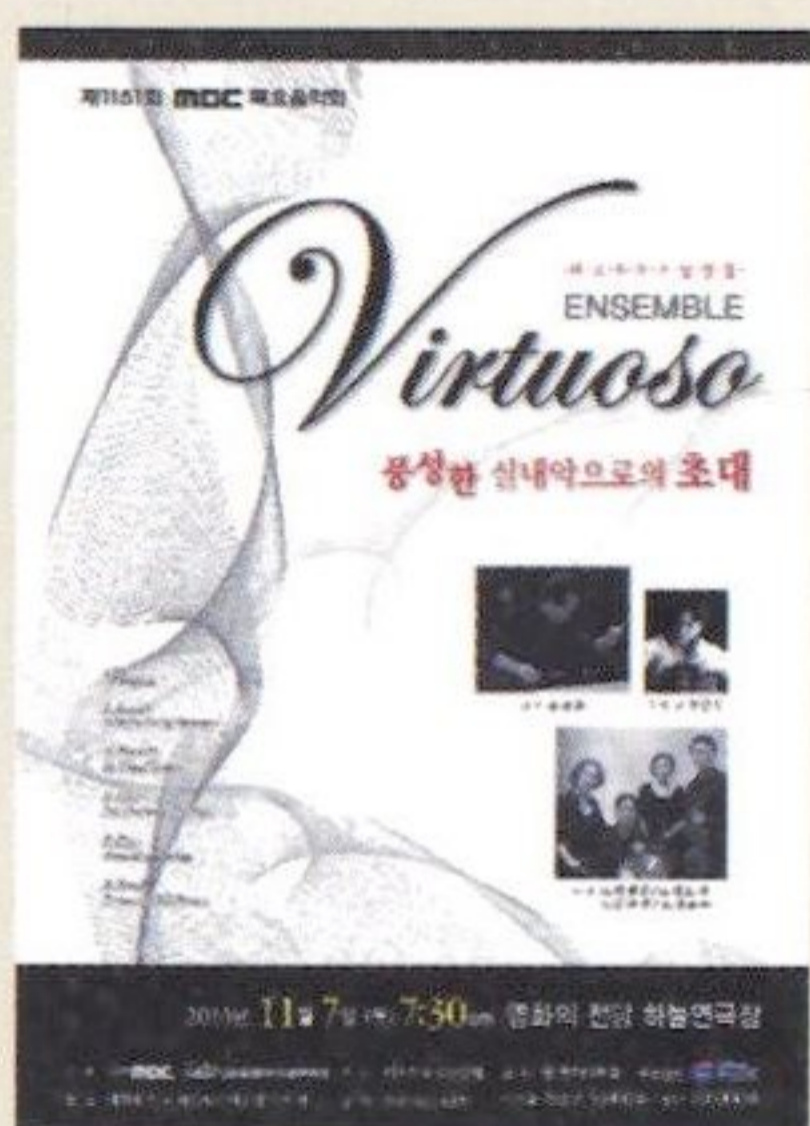
클래식에서부터 뮤지컬, 영화음악, 가스펠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나온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백석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박주옥, 한국CCM계를 대표하는 여성 보컬리스트 남궁송옥이 함께하는 CBS콘서트.



### 제1151회 MBC 목요일음악회

#### 비르투오조앙상블 '풍성한 실내악으로의 초대'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청소년 5천원  
문의 | (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인 비르투오조 앙상블의 무대로 마련되는 제1151회 MBC 목요일음악회. 리더 백재진 동의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25명의 비르투오조들이 풍성한 실내악 무대를 선사한다.

#### ▶ 프로그램

야나체/현을 위한 조곡  
피아졸라/그랜드탱고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수련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수련합창단(010-3073-6154)

신라대학교 일어교육과 교수인 이명희 단장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수련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사랑노래, 우리가요, 우리가곡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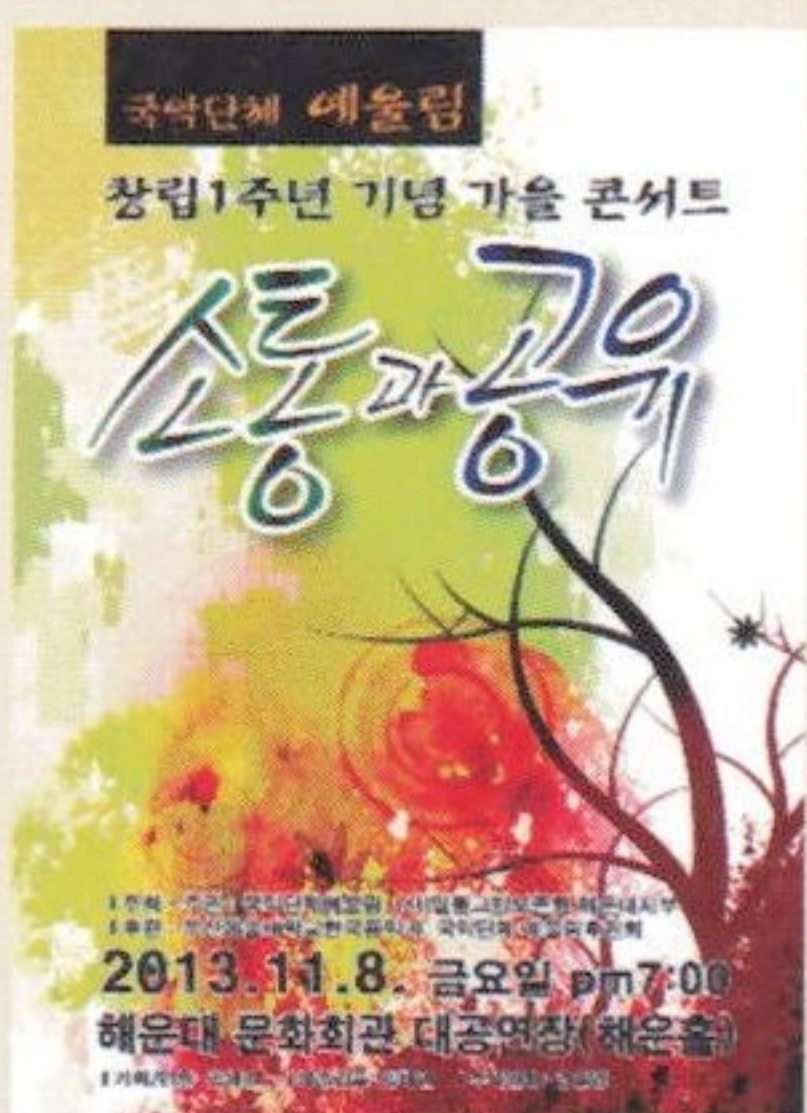
· 지휘/김태형 · 반주/김경출, 심민정



### 국악단체 예울림 창립1주년 기념 가을 콘서트

#### 소통과 공유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국악단체 예울림(781-0199)



지난 2012년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재학생과 동문, 지역주민들이 함께 결성한 국악단체 예울림 창립 1주년 기념무대.

· 기획, 연출/김예신  
· 예술감독/김태인  
· 특별출연/신문범, 박성희

· 우정출연/김갑용, 박소산, 최정욱

### 한얼정악연구소 제18회 정기공연

#### 시조로 만나는 사계절의 흥취

11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한얼정악연구소(010-3870-8597)



완제(전라도), 내포제(충청도), 경제(서울, 경기), 영제(경상도) 등 각 지역에 구전되어 전해지는 시조와 석암 정태경 선생이 각 지방제의 장점을 살려 채보, 편집한 시조인 석암제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이종록, 오종수, 김연소 등 전국 각 지역의 시조문화재 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조창의 진수를 들려준다.

· 출연/이종록(영제시조 보유자), 오종수(완제시조 보유자), 정인경(가사 이수자), 문현(가사 이수자), 김연소(내포제시조 보유자), 김희준, 이희재, 박수진, 정유정



###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14회 정기연주회

11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강희숙(010-2562-6561)



청소년 단원 개개인의 기량과 앙상블 능력을 선보이는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독주의 기교와 테크닉이 어우러진 연주곡에서부터 리코더 앙상블의 정감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여주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동래문화회관 토요일클래식뮤직사위**

11월 9일(토), 23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 9일 강미와 함께하는 모차르트 음악여행

태고음악으로 대표되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를 만날 수 있는 피아니스트 강미와 떠나는 모차르트 음악여행.

▶ 23일 노래로 떠나는 세계여행

서울대학교와 미국 맨하탄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인재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신민원이 이탈리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각국의 유명 가곡을 들려준다.



**제4회 예오름 발표회 '恨, 신명 그리고 아리랑'**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예오름(010-3041-0252)

2008년 창단한 예오름의 네 번째 정기 발표회로,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 축하하는 아리랑 퍼포먼스를 펼친다.

· 단장/김신영



**제25회 을숙도명품콘서트**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공연 '아름다운 저녁'**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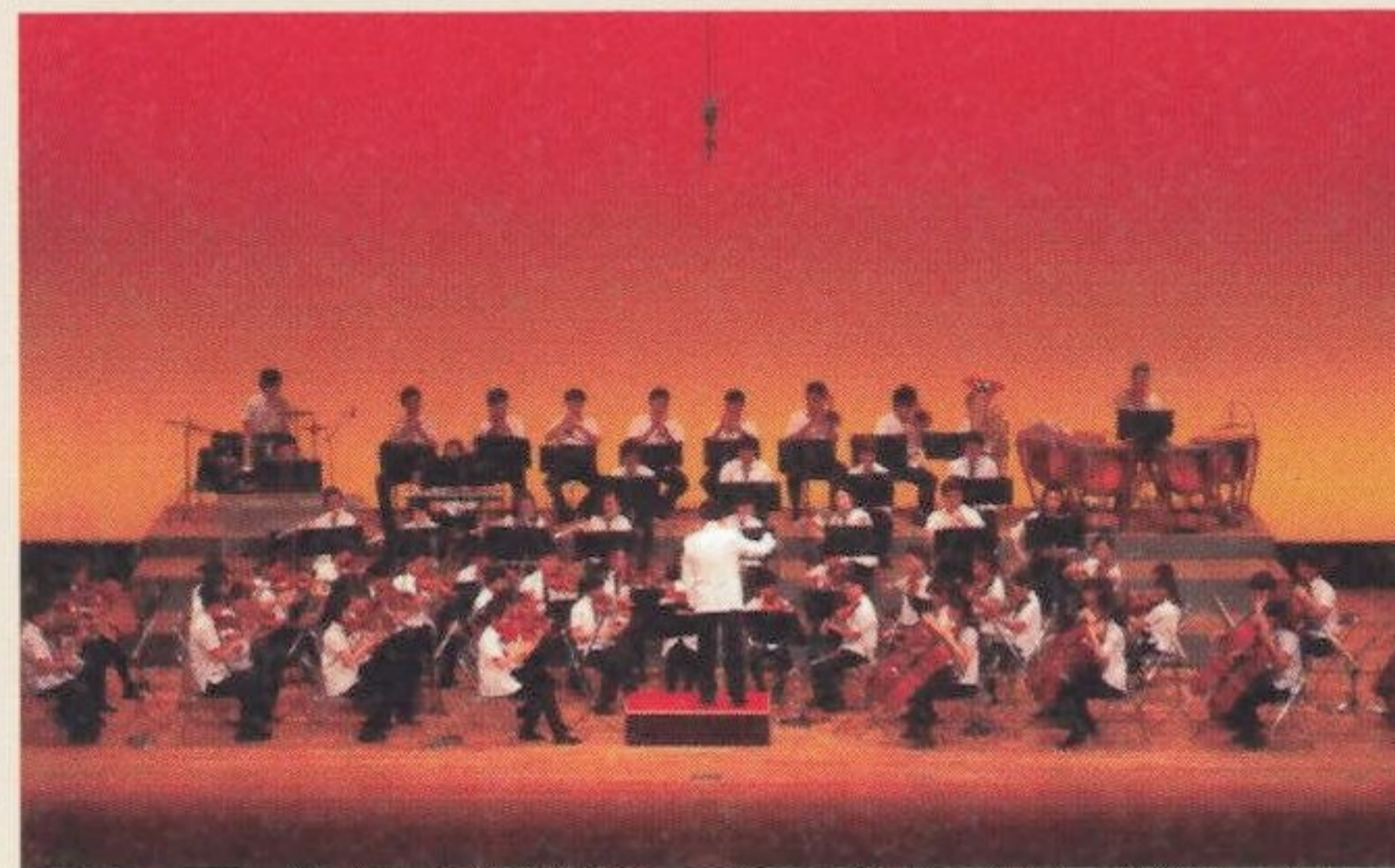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 초청 무대로 마련되는 제25회 을숙도명품콘서트. 2011년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만나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와 늦가을 서정에 어울리는 매혹적인 선율을 들려준다.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Dance & Music**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010-8733-7438)



2000년 12월 해운대지역 초, 중, 고교생들로 결성된 후 해운대의 홍보사절단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운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 지휘/정우영 · 협연/김병주(클라리넷)



**제12회 하늘소리 정기공연**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이웃돕기성금 포함)  
 문 의 | 풍물패 하늘소리(909-7902)

지난 2002년 창단 후 매년 한차례 정기공연을 비롯해 축하공연, 위문공연, 지신밟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하늘소리 정기공연.

어린이부터 60대 단원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소통과 공감'을 우리가락으로 승화시킨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YAMAHA-KAWAI-STEINWAY  
 PIANO DI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 051-753-8963  
 H.P. 010-9003-8963

**서혜리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청소년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과 실기수석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미국 신시네티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내년 4월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리의 귀국 독주회.



**전은지 Project Ensemble Flute'z**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전은지(010-2749-6015)



오스트리아 부르크엔란트 주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수석 졸업한 플루티스트 전은지를 리더로 플루티스트 강현진, 길도영, 바이올리니스트 이민지, 비올리니스트 유정주, 첼리스트 현리사로 결성된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의 무대.

플루트와 현악앙상블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를 선사한다.

· 해설/김혜정

권혁주 파가니니 카프리스 24개 전곡 연주

권혁주 VS 파가니니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BRAUM 매니지먼트(02-2055-1556)



2004년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 우승과 함께 덴마크 작곡가 작품 특별상, 젊은이 인기상, 200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을 통해 주목받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부산연주회.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단원, 칼라치 현악4중주단, 올림푸스 앙상블 리더로 활동중인 권혁주는 이번 무대에서 악마의 기교라 불리며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파가니니의 무반주 카프리스 24개 전곡 연주에 도전한다.

해운대문화회관 맞춤기획공연 오페라 '봄봄'

11월 12일-14일 화-목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김유정의 단편소설 '봄, 봄'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오페라 '봄봄'. 원작소설의 탁월한 언어 감각과 해학을 우리 전통의 놀이판 형식과 서양 오페라의 어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출연/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하만택, 바리톤 정지철, 판소리 왕서은

베토벤 기획 연주 시리즈 5

Guten Abend, lieber Beethoven!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권준(010-8717-7963)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짜르테움, 미국 신시내티대학교를 졸업하고 Marsala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입상, CCM Concerto Competition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권준 독주회.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베토벤 기획 연주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28번과 제29번 '하머클라비어' 등 두 곡을 들려준다.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장일범의 영화 속의 음악 시리즈 4 'Tango'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의 영화 '탱고', 베르나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트루 라이즈' 등 영화 속 탱고음악을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 탱고 전문 연주단체 '코아모러스 탱고 프로젝트', 정열의 테너 류정필의 연주로 들려준다.

오페라 '현대판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

11월 12일-14일 화-목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1만원  
(전화로 예매시 일반 50% 할인)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모차르트의 동명의 오페라를 21세기 오늘의 이야기로 풀어낸 현대판 '코지 판 투테'. 약혼녀의 정절을 시험하는 두 친구를 통해 연인들 사이의 사랑과 갈등, 신뢰를 이야기한다.  
· 음악감독/장진규 · 피아노/하영하, 조은지

부산YWCA 생명사랑 음악회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YWCA(441-2223)

지역문화 활동을 선도하고 시민운동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하는 부산YWCA 생명사랑 음악회. 가수 해바라기와 라메르오케스트라, 부산YWCA 문화예술단이 출연,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를 선사한다.

2013년 수능 콘서트

피아니스트 현미경씨의 베토벤 talk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30, 18일-19일 월-화요일 오전 10: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 박해영(010-4570-5409)



베토벤의 일대기와 교과서에 수록된 명곡을 피아니스트 현미경의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고3 수험생과 함께하는 2013 수능 콘서트.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온 현미경은 이번 무대에서 피아노 소나타 '월광', '비창', '폭풍', 교향곡 제5번, 9번 등 베토벤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암모암모 콘서트

11월 16일(토), 30일(토) 오전 11: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기존의 클래식음악회와는 차별화된 재미와 웃음이 있는 암모암모 콘서트. 이태리 가곡 '푸니쿠니 푸니쿨라'에 나오는 노래가사로, '가자, 가자'라는 의미의 이탈리아 방언인 '암모암모' 콘서트는 개그맨 전유성의 연출로, 온가족 3대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알핀로제요델클럽 창립 40주년 기념  
요델의 메아리**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핀로제요델클럽(010-4177-7823)

알프스 지방에 전해오는 아름다운 노래 '요들'을 즐기고 알리기 위해 지난 1973년 창립된 부산알핀로제요델클럽 창립 40주년 기념연주회.  
· 우정출연/광주엔시안 · 특별출연/서용률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쉼텃 탱고를 연주하다**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바이올리니스트 김채원, 허선옥, 비올리니스트 김민주, 첼리스트 장여정이 들려주는 탱고음악의 밤.



**제11회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정기연주회**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초중고생 5천원  
문 의 | 서승완(010-5198-0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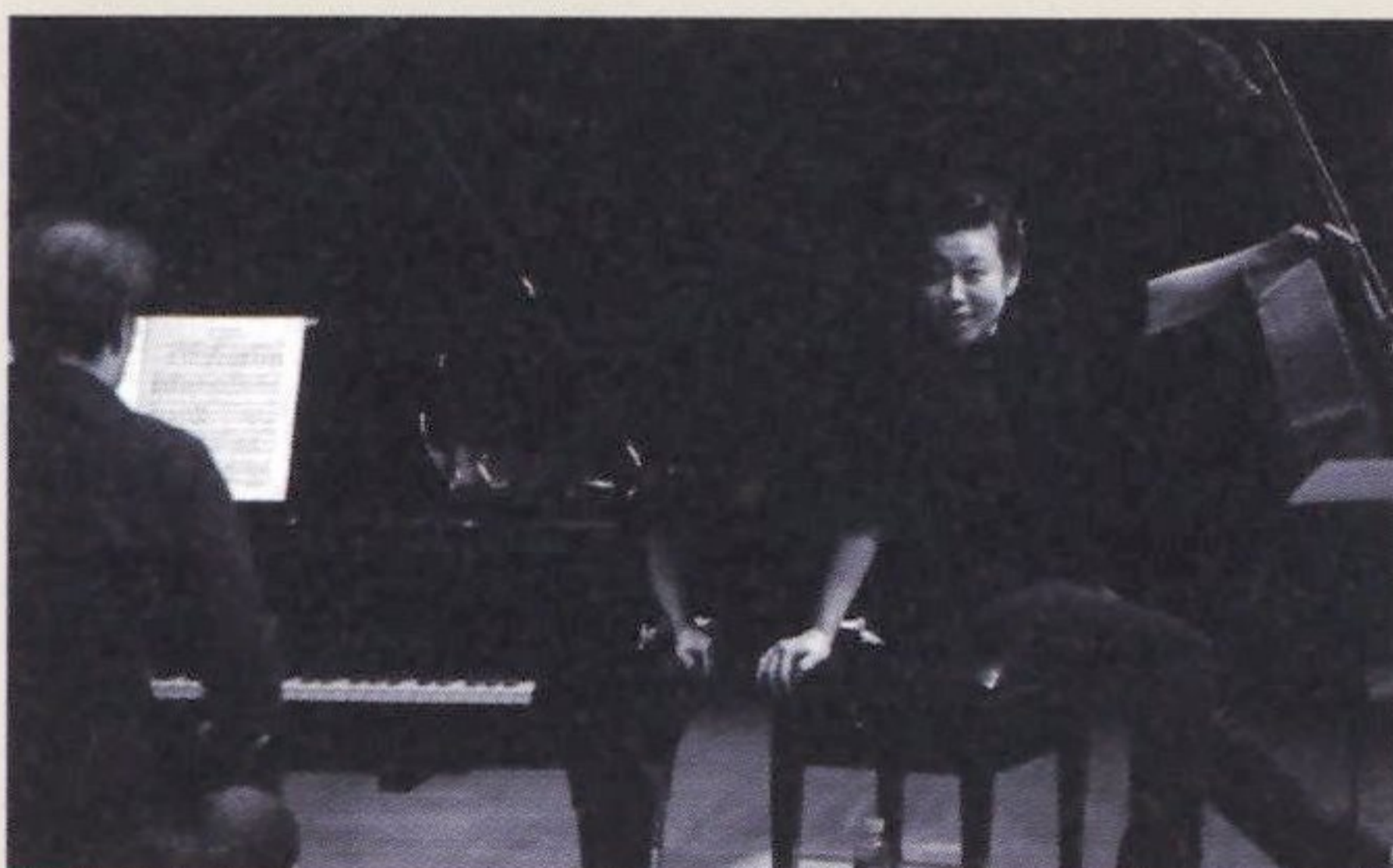


지난 2002년 전문연주자와 전공자, 애호가들로 결성된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의 11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고충진, 김경태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힘찬 음색, 완벽한 기교와 대단한 열정을 가진 환상적인 첼리스트라는 호평을 받으며 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 방송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동아대학교 이명진 교수의 첼로 리사이틀.  
· 피아노/올리브 케른(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교수)



**제8회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제자 향상음악회**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고봉수(010-4434-6605)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무대.  
· 출연/윤여진, 우해진, 이은채, 김민주, 김해미, 김지은, 서세정, 지기희, 임미나, 류신기, 고승현



**최민경 피아노 독주회 21세기 음악 II**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민경(010-9496-2687)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빙엔 국립음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최민경이 21세기 음악을 연구하고 관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제83회 한낮의 유U; 콘서트  
러시아 챔버앙상블 'Bright Bows'  
음악으로 떠나는 러시아여행**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국제신문(500-5222)



지난 1993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Kuzin Marina의 제자들로, 러시아 전역에서 가장 젊고 기량이 뛰어난 현악 챔버앙상블로 꼽히는 'Bright Bows' 초청무대.  
· 지휘/박광식 · 협연/소프라노 박상희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다우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  
(010-8733-7438)

1995년 동아윈드오케스트라로 창단된 후 2007년부터 명칭을 바꿔 활동해온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 정기



정지영 박재희 서상민

연주회.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2002 부산아시아게임 초청연주회, 김해가야문화제,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정우영
- 협연/박재희(트럼펫), 정지영(소프라노), 서상민(테너)



러시아 챔버앙상블 'Bright Bows' 음 초청공연  
러시아에서 보내온 음악편지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7:00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  
문의 | 스페이스 음(557-3369)

지난 1993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Kuzinz Marina의 제자들로 결성된 러시아 챔버앙상블 'Bright Bows' 초청공연.

- 해설/바이올리니스트 박광식



농암(農巖) 정우수 선생의 '一路'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주현(011-581-3000)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부산고분도리걸립' 예능보유자인 정우수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 개인발표회.

- 출연/정우수, 강정수, 강신일, 김경화, 김상헌, 김정용, 김한동, 박종환, 성현우, 성낙길, 이복남, 이주현, 전진삼, 정성엽, 최오성, 최익철

길, 이복남, 이주현, 전진삼, 정성엽, 최오성, 최익철

'나눔을 통한 행복 후원의 밤' 힐링음악회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아동복지회(818-0058)

부산아동복지후원회 창립 4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후원의 밤 '힐링음악회'.  
· 출연/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남광 별들의 울림 합창단, 소양 오케스트라, 은혜 오카리나 연주단, 희락 히어로즈 합창단, 동성 드림윈드 앙상블



울속도문화회관 렉처콘서트  
미술사 & 음악사, 한눈으로 읽어내다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05)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중인 백한나의 창작곡 '그리움' 과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고전, 낭만주의 시대까지 그 시대 음악과 미술을 감상해본다.



I.O. Piano Society와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그동안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온 아이오 피아노 소사이어티 자선음악회.  
차이코프스키의 '사계'를 주제로, 관객들이 미리 보낸 사계절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해 연주와 함께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제기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11월 24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 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 시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제26회 울속도명품콘서트  
Berlin & Moscow '조우(遭遇)'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8: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속도문화회관(220-5812)



러시아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인 스티니슬라브 다첸코가 지휘하고 1995년 유고슬라비아 죄네스 뮌지칼 국제첼로콩쿠르에서 1위 수상하고 1997년부터 독일 베를린 필 하모닉 첼로 수석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첼리스트 마르틴 뢰어가 협연하는 제26회 울속도 명품콘서트.

- 예술감독/김현영
- 지휘/스티니슬라브 다첸코(모스크바음악원 교수)
- 협연/첼리스트 마르틴 뢰어
- 연주/T.I.F 심포니오케스트라



임현지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대학교와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함부르크 브람스 콘서바토리 최고연주자과정과 성악, 기악반주자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임현지는 콘서트, 임현지는 2012 이태리 IBLA Grand Prize 콩쿠르에서 입

상한 바 있다.



### 을숙도문화회관 힐링콘서트 부산거문고악회 '가을의 속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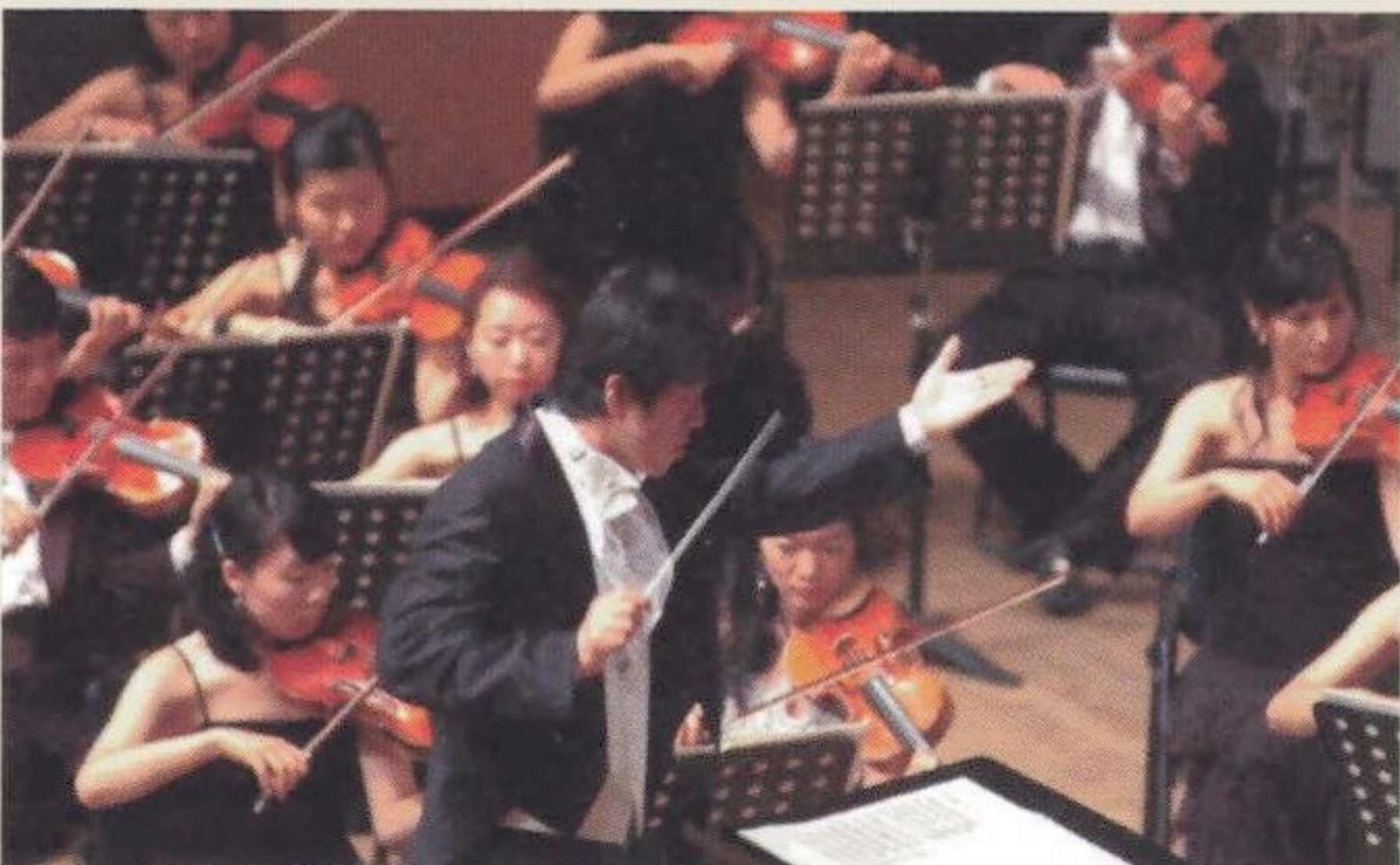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지난 2009년 부산대학교 재학생들과 동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거문고악회의 무대로 마련되는 을숙도 문화회관 힐링콘서트 11월 무대.  
· 사회/전혜정(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제24회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지난 2007년 결성된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뉴프라임오케스트라의 24번째 정기 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1813년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초연무대를 가진 베토벤 교향곡 제7번을 들려준다.

· 지휘/임준오

### 롱비치대학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 동의대학교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동의대학교(890-1318)



미국 롱비치대학과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류무대.

#### ▶ 프로그램

스메타나/오페라 '팔려간 신부' 서곡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가단조 등

· 지휘/Mueller-Stosch Johannes(롱비치대학 교수)  
· 협연/김소형(피아노, 동의대 교수), 전준승(첼로, 롱비치대학 교수), 백재진(바이올린, 동의대 교수)



### 2013 꼬레아오페라단 푸치니/라보엠 '겨울의 오페라'

11월 28일-30일 목-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A석 4만원 · 학생 2만원  
문의 | 꼬레아오페라단(010-2400-5271)

가난하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보헤미안들의 기쁨과 슬픔, 사랑을 노래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으로 마련되는 2013 꼬레아 오페라단 정기공연.

· 출연/구민영, 김화정, 윤선기, 안상철, 김기환, 박기범, 박상진(28일), 정혜리, 양승엽, 정재영, 윤풍원, 김방진, 이상철, 박상진(29일), 박지인, 김성진, 이지은, 최대우, 장진웅, 김도형, 박상진(30일)



### 제3회 소년소녀합창대축제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각 구별 소년소녀합창단 등 11개 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하는 소년소녀합창대축제 2013년 무대.

### 최지혜 클라리넷 독주회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최지혜(010-3203-2231)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최지혜 독주회.

최지혜는 그동안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 첼로/배성아 · 피아노/이현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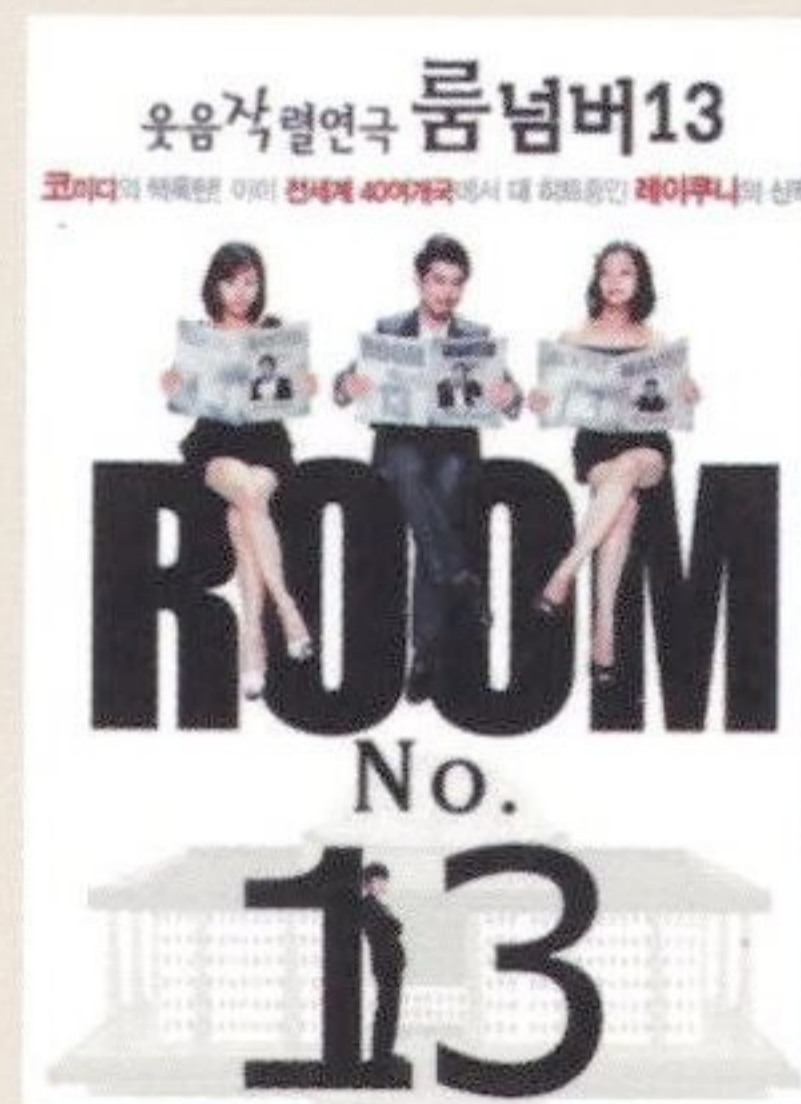
## Play

### 코미극 '룸넘버 13'

9월 26일(목)-12월 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큰 웃음을 선사하는 코미극 '룸넘버 13'.

· 작/레이 쿠니



### 창작뮤지컬 '괘락천사'

10월 10일(목)-11월 10일(일) 화-토요일 오후 5:00, 8:00, 일 · 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2인조 아이돌 그룹의 파란만장 성공기와 그들의 새콤달콤 사랑이야기를 신나는 음악 속에 담아낸 2013 본격청춘로망 큐비컬 '괘락천사'.

· 출연/채민수, 김동환, 김경원, 강시형, 허성준, 양은미

### 창작 코믹극 '불편한 타이밍'

2013년 10월 24일(목)-2014년 1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12/24일 오후 5:00, 8:00, 12/25일 오후 2:00, 5:00, 8: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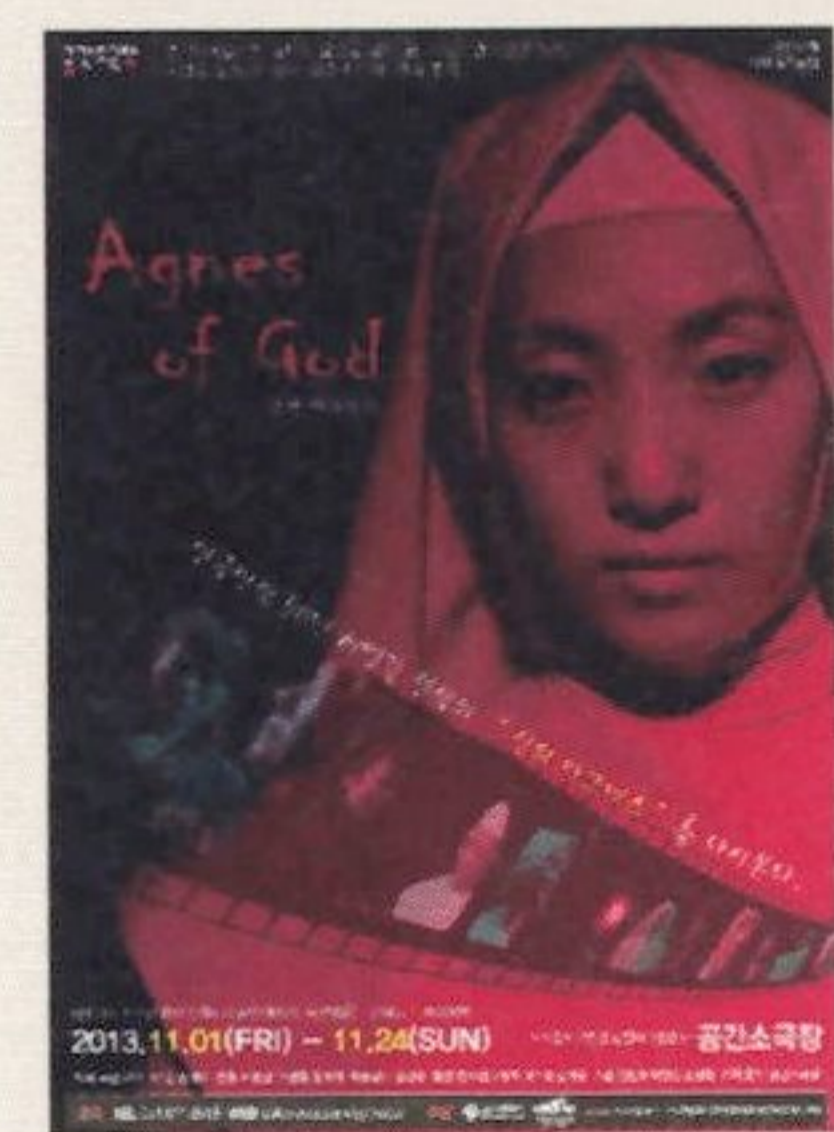
오랜만에 만난 세 친구가 광안의 파티를 벌인 후 벌어지는 황당한 상황과 사라진 친구를 찾기위해 기억을 되짚어가는 과정을 코믹한 웃음으로 풀어낸 창작 코믹극 '불편한 타이밍'.



### 극단 사계 제73회 정기공연

#### 연극 인생 50년 허영길의 '신의 아그네스'

11월 1일(금)-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공간소극장(611-8518, cafe.naver.com/ggtheater)



지난 1964년 극단 전위무대 창단 멤버로 활동하다 1978년 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창단, 1994년 극단 사계(구, 극단 세이) 대표로 활동하며 부산 연극을 이끌어온 연출가 허영길 연극인생 50년을 기념해 마련한 연극 '신의 아그네스'.

· 작/존 필미어 · 연출/허영길  
· 출연/변지연, 우명희, 이수정, 김가을



### 연극 '손속의 어머니'

11월 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분단의 현대사를 억척스럽게 살아낸 우리시대 어머니를 그려낸 '손속의 어머니'.

### 2013 을숙도 연극열전

11월 6일(수)-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 ▶ 6일-9일 극단 액터스 '달이 물로 걸어오듯'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영원과 조우하려는 한 인간을 그린 창작극 '달이 물로 걸어오듯'.

#### ▶ 11일-14일 권철 모노드라마 '호랑이 아줌마'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다리로 포의 탄탄한 희곡을 바탕으로 한 어른을 위한 동화 '호랑이 아줌마'.

#### ▶ 16일-19일 끼리프로젝트 '바보미소'

조금 모자라지만 가슴따뜻한 소녀 미소를 중심으로 동화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창작극 '바보미소'.

#### ▶ 21일-24일 극단 에저또 '취뺨'

폭설로 교통이 마비된 어느 겨울날, 한 여인숙에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그린 연극 '취뺨'.



### 정행심 모노드라마 꽃女 곡쟁이 여자(부제:비손)

11월 18일(월)-24일(일)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액터스소극장(908-5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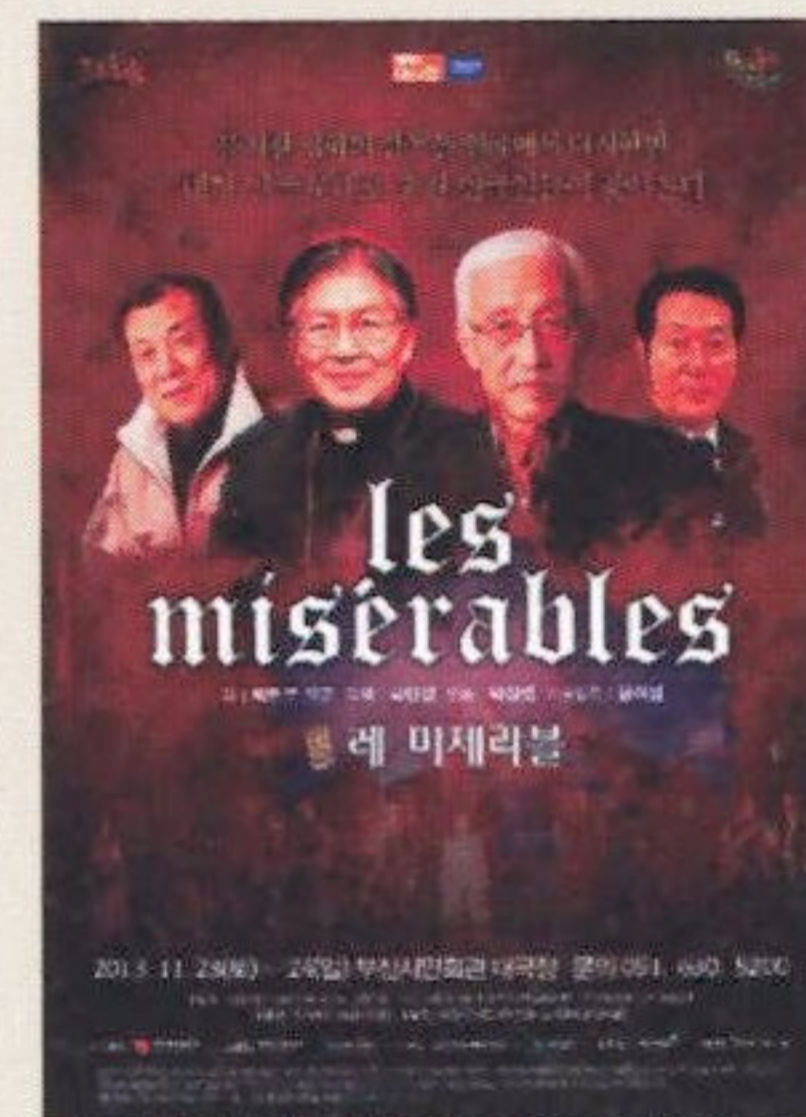
한 많은 인생을 살아온 늙은 여인의 일생을 담백하면서도 가슴절절하게 그려낸 정행심 모노드라마. 부산시립극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정행심이 늙은 여인 역을 맡아 열연을 선사한다.  
· 원작/최송림

· 각색/오리라 · 연출/오정국



### 연극 '레미제라블'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24일 일요일 오후 2:00, 6: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한국 연극사와 함께 해온 중견 연기자들이 주축이 된 '50대연기자그룹'의 '정통연극 명작시리즈' 제 1탄 '레미제라블' 부산무대.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00여명의 배우와 스테프, 풍성한 무대세트가

명작연극의 진수를 선사한다.



### 코믹 어드벤처 뮤지컬 '천방지축 곤'

11월 26일-27일 화-수요일 오전 10:30(단체관람), 오후 5:00,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2만원(단체관람 1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에 실제 숲 속에 있는 듯한 환상적인 무대와 의상, 신나는 음악과 춤이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어린이 뮤지컬 '천방지축 곤'.



### 창작극 '우리는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11월 27일(수)-12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자유바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극단 새벽(245-5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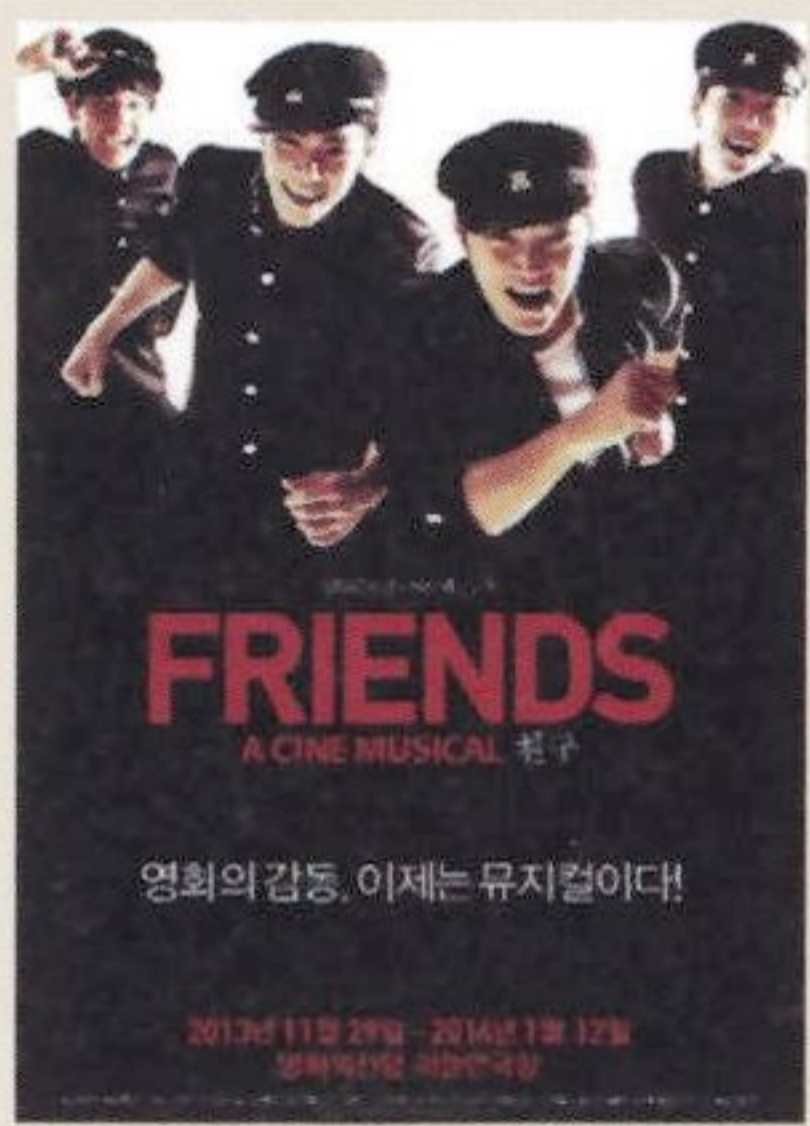


고교시절 가출여행의 행선지를 찾아 떠나는 세친구의 추억여행을 통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치유와 성장을 따뜻하게 그려낸 여성 심리극.

· 연출/이성민 · 목소리출연/이현식, 전상미  
· 출연/유미희, 변현주, 박정아, 정주리

## 뮤지컬 '친구'

2013년 11월 29일(금)-2014년 1월 1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3:00,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780-6000)



지난 2001년 부산을 배경으로 개봉 당시 818만명을 동원했던 광경택 감독의 흥행작을 뮤지컬로 제작한 '친구'는 원작인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준석과 동수의 대립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선보인다.

· 출연/안재모, 조형균, 김찬호, 김지훈, 권민수, 조윤영 외

## Dance

### 담장너머 국화꽃이-이경화의 춤

11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이경화(010-8912-4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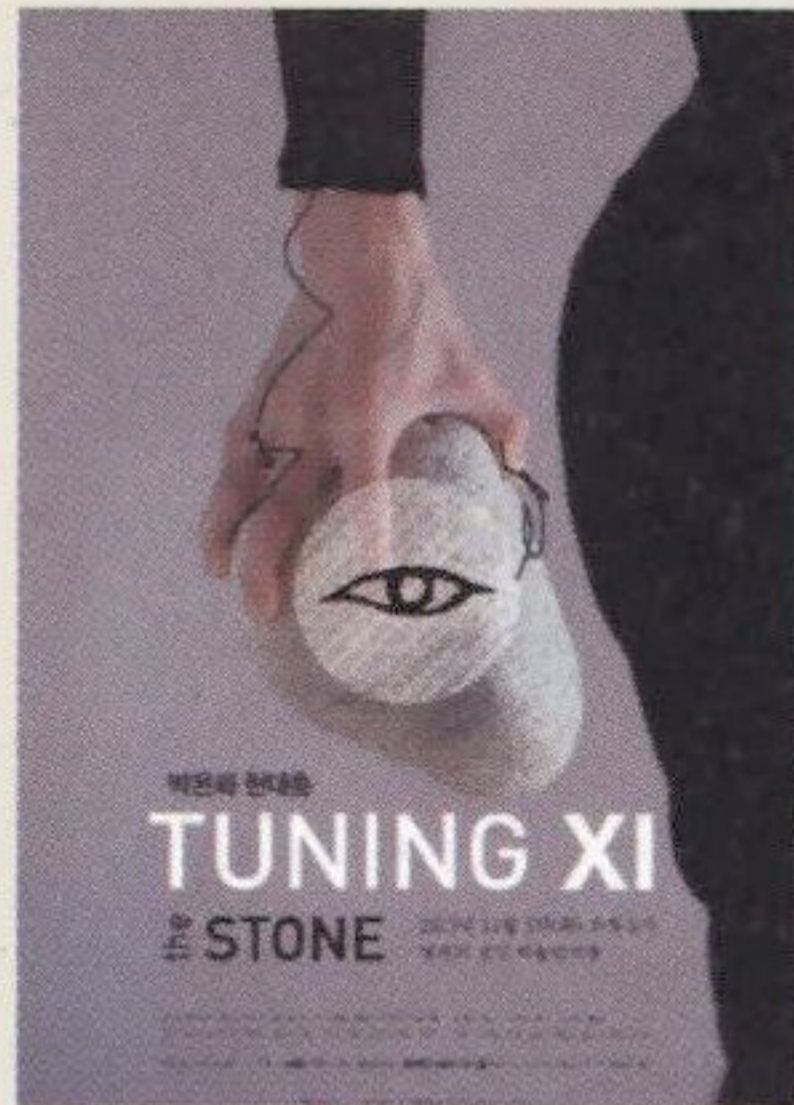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이수자, 이경화무용단 대표로 있는 이경화의 춤. 이경화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 참가한 바 있다.

### 박은화 현대춤 TUNING XI the STONE

11월 5일 화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박은화무용단(510-2956)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펼쳐 온 현대무용가 박은화의 창작춤. 나를 버림으로써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 자아와 이 시대의 정체성을 응시해보는 'TUNING



시리즈' 11번째 무대 'the STONE'을 선보인다.

· 안무/박은화  
· 출연/박은화, 김현정, 안선희, 허종원, 김다영, 김미정, 이나라, 장지은, 황지현, 신지원, 안희주, 엄지민

### 연무용단 '춤의 바다에서 행복을 건져냈어요'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연무용단(010-6328-6362)

우리춤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전승하기 위해 모인 아마추어무용단인 '연무용단'의 창단공연.

· 안무, 연출/최준옥(연무용단 단장)  
· 특별출연/심지영  
· 찬조출연/홍기태, 최준명, 아모르 오카리나양상블, 버슴새예술단

### 춤나래 정기공연-공감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경미(010-2939-1260)

지난 2005년 금정문화회관 한국무용반 수료생들로 결성된 아마추어 무용단인 춤나래 정기공연.

· 총연출/김경미  
· 출연/김순덕, 김우심, 김순현, 김순연, 김숙이, 이숙자, 유애심, 전선향, 조현아, 한순녀, 황영자, 정일순, 정귀수

## Event

### 시울림 시낭송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11월 6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예강(010-5516-1867)

### 제81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음악회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 시마당 제137회 시낭송회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안태봉(867-2569)

## Gallery

### 김동귀 목공예전

11월 1일(금)-11월 16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 김호빈 개인전

11월 4일(월)-11월 9일(토) **스페이스 움**  
문의 | 스페이스 움(557-3369)

### 장혜용展 '엄마의 정원'

11월 5일(화)-12월 6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747-2612)

###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베르나르 포콩

2013년 11월 9일(토)-2014년 1월 26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 최규식 개인전 '명현현상'

11월 11일(월)-11월 30일(토) **스페이스 움**  
문의 | 스페이스 움(557-3369)

### 'The Earth' 임상섭展

2013년 11월 15일(금)-2014년 1월 13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문의 |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 한·중 미술교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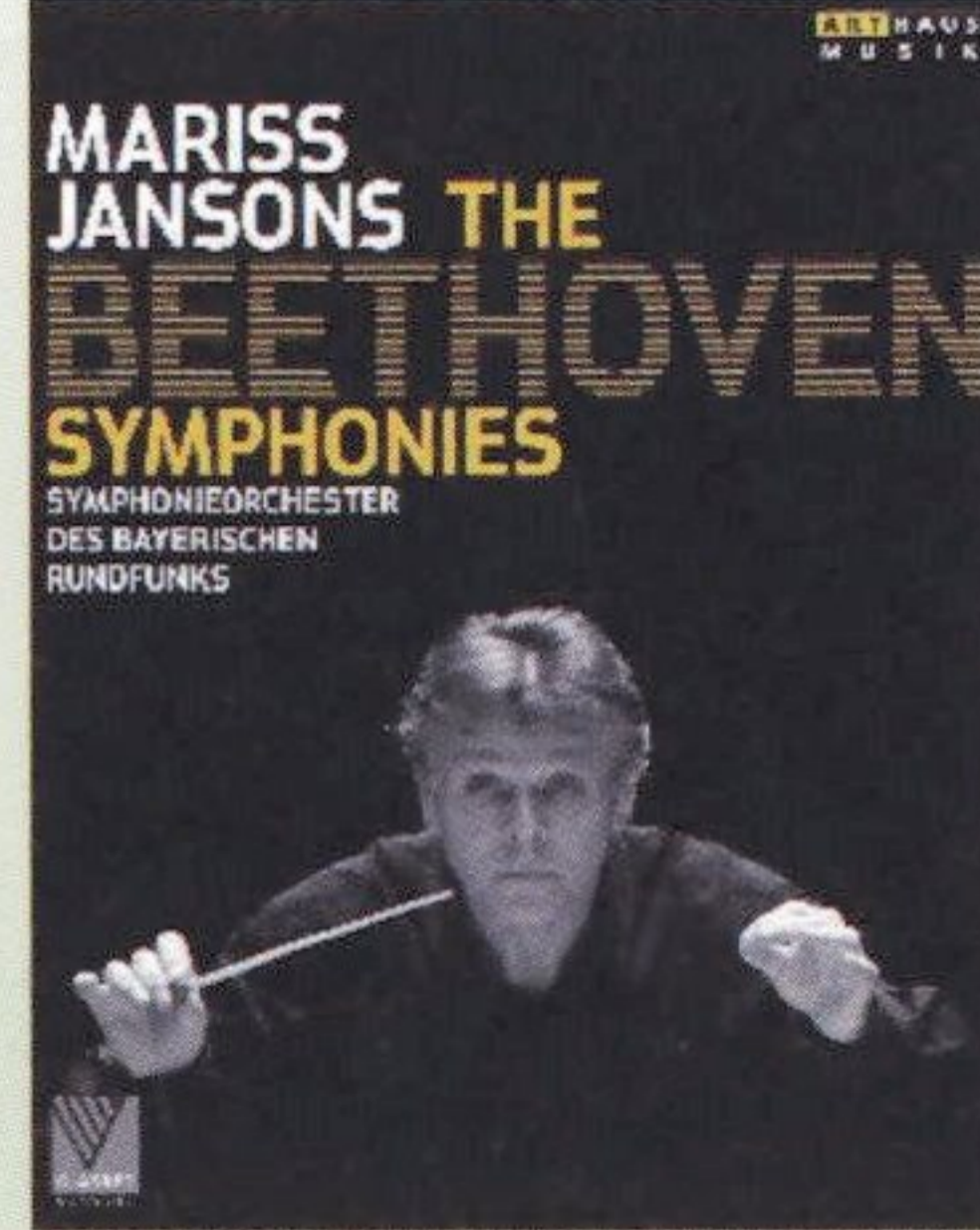
11월 19일(화)-11월 30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464-3939)

## 베토벤: 교향곡 전집

크리스티아네 카르크(sop)/미호코 후지무라(ms)/마이클 셰이드(te)/미카엘 폴레(bass)  
 마리스 안손스(지휘)/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

### ▶ 베토벤 교향곡의 정수를 담은 마리스 안손스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산토리홀 실황

마리스 안손스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은 지난 2012년 11월 20일, 21일 양일 동안 예술의전당에서 베토벤 교향곡의 진수를 들려줌으로써 많은 음악애호가들을 감동시켰다. 이들은 내한공연 직후 도쿄 산토리홀에서도 4일(11/26, 27, 30, 12/1)에 걸쳐서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무대에 올렸는데, 바로 그 실황들이 뛰어난 화질의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요훤, 쿠벨릭, 콜린 데이비스, 마젤 등의 열정적인 조련을 통해서 비교적 단시간 내에 독일을 대표하는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급성장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탄탄한 기량과 군더더기 없는 명쾌함 속에서도 각 교향곡들의 맥을 꼼꼼히 짚어 나가는 안손스의 섬세한 해석이 함께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너지를 이 영상물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보너스로 함께 제공되는 44분 분량의 러허설 영상 또한 안손스의 팬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교향곡 9번의 마지막 악장에는 한글자막이 첨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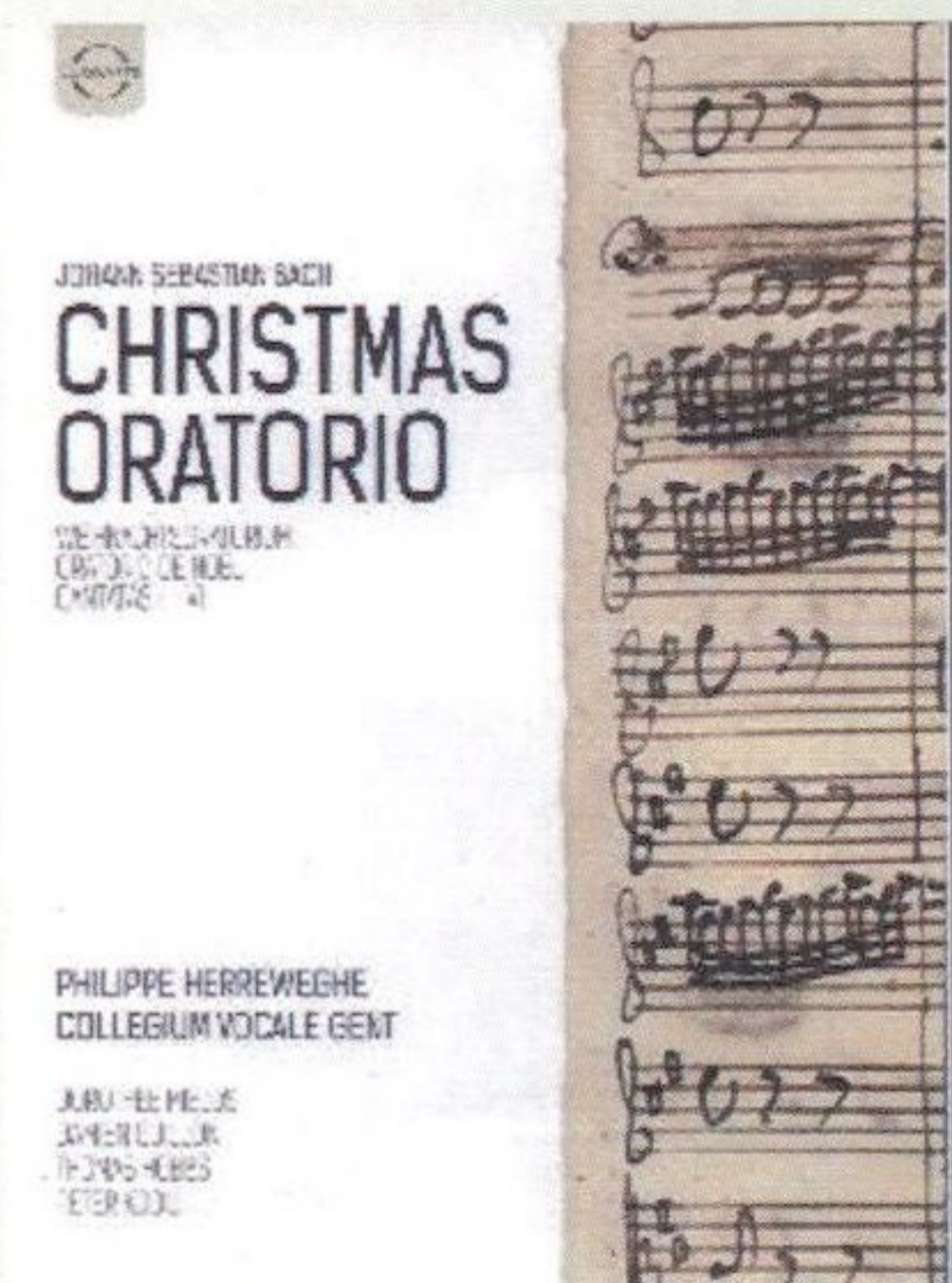


## 수호천사 - 바흐, 비버, 타르티니, 피젠델 등의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들

레이첼 포저(바이올린)

### ▶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자 레이첼 포저가 들려주는 무반주 바이올린 음악

우리 시대의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자, 레이첼 포저가 오랜만에 무반주 바이올린 음악으로 돌아왔다. 비버의 파사칼리아나 피젠델의 소나타, 그리고 어릴 적부터 즐겨 연주했다는 바흐의 무반주 플루트 파르티타(직접 편곡) 등은 모두 포저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작품들이며, 동시에 무반주 바이올린 음악의 역사를 관통하는 연주자의 예리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포저 특유의 촉촉하고 섬세한 바이올린 음색과 풍부한 뉘앙스, 악보가 암시하는 성부마저도 놓치지 않는 놀라운 상상력, 인간적인 여유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해석은 진정 인상적이다. 현대 바로크 바이올린 연주의 성과를 보여주는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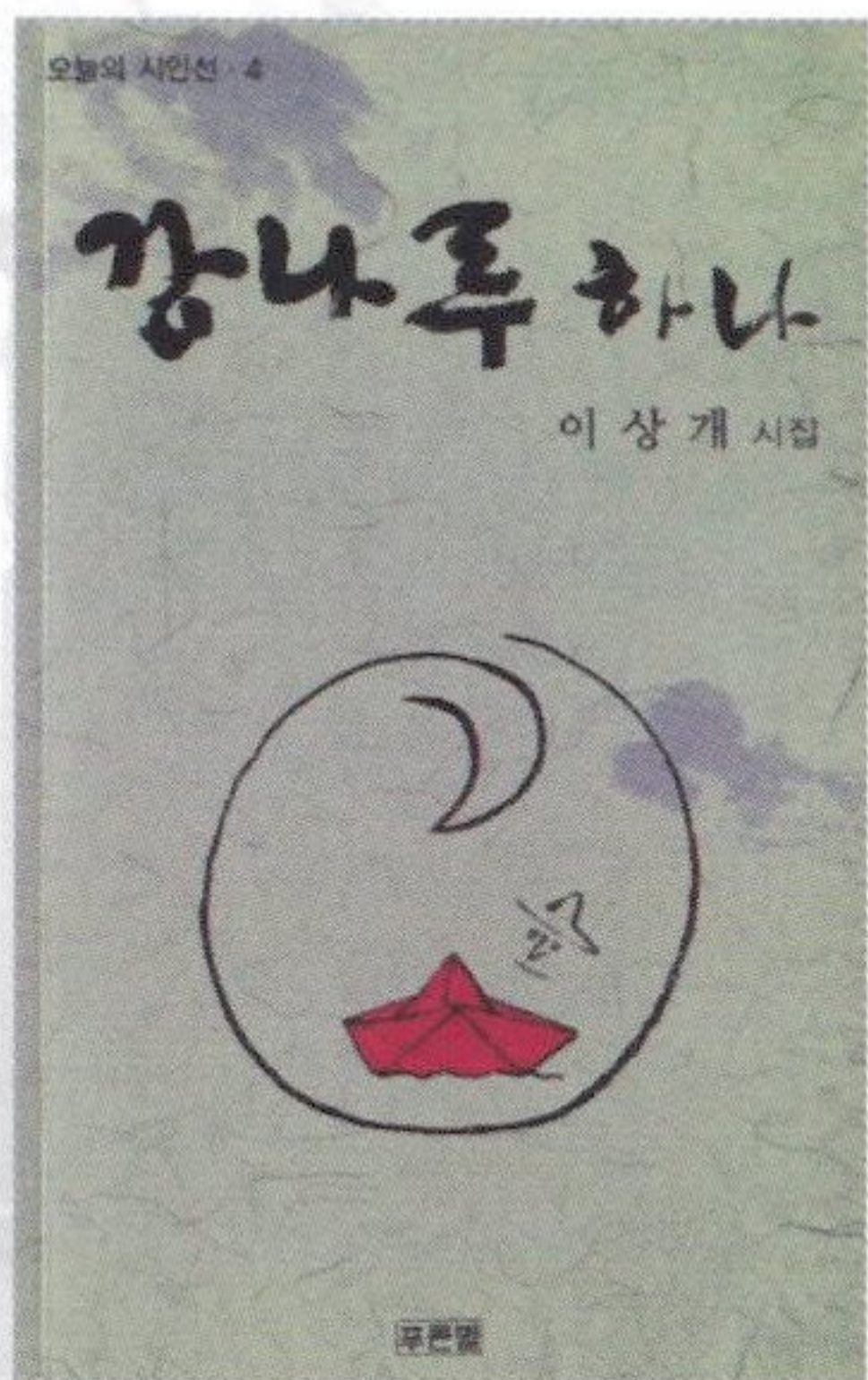
## JS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 248

도로테 밀즈(sop)/다미앵 기용(alt)/토마스 흡스(te)/페터 코이(bass)  
 필립 헤레베헤(지휘)/콜레기움 보칼레 헨트

### ▶ 바흐 종교합창곡의 아이콘, 필립 헤레베헤의 최근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다

필립 헤레베헤는 명실상부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바흐 종교음악 스페셜리스트이다. 수많은 레코딩을 통해서 그의 뛰어난 음악적 해안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영상물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만나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의 최근 모습을 담은 이 DVD는 그의 팬들에게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바흐가 완성한 가장 위대한 종교합창곡의 하나인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담고 있다는 점은 금상첨화도 같은 소식이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와는 다소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오라토리오와는 즐거리가 있는 종교적인 이야기에 음악을 붙인 것이지만, 이 작품은 엄밀히 말해서 여섯 개의 칸타타를 함께 묶어 놓은 것과 유사한 외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르의 모호성과 상관없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소리 높여 노래하는 이 위대한 걸작은 슬픔으로 점철된 두 수난곡이나 진지한 분위기의 B단조 미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음악적 감동을 전달해준다. 2012년 12월 브뤼셀 팔레 드 보자르 실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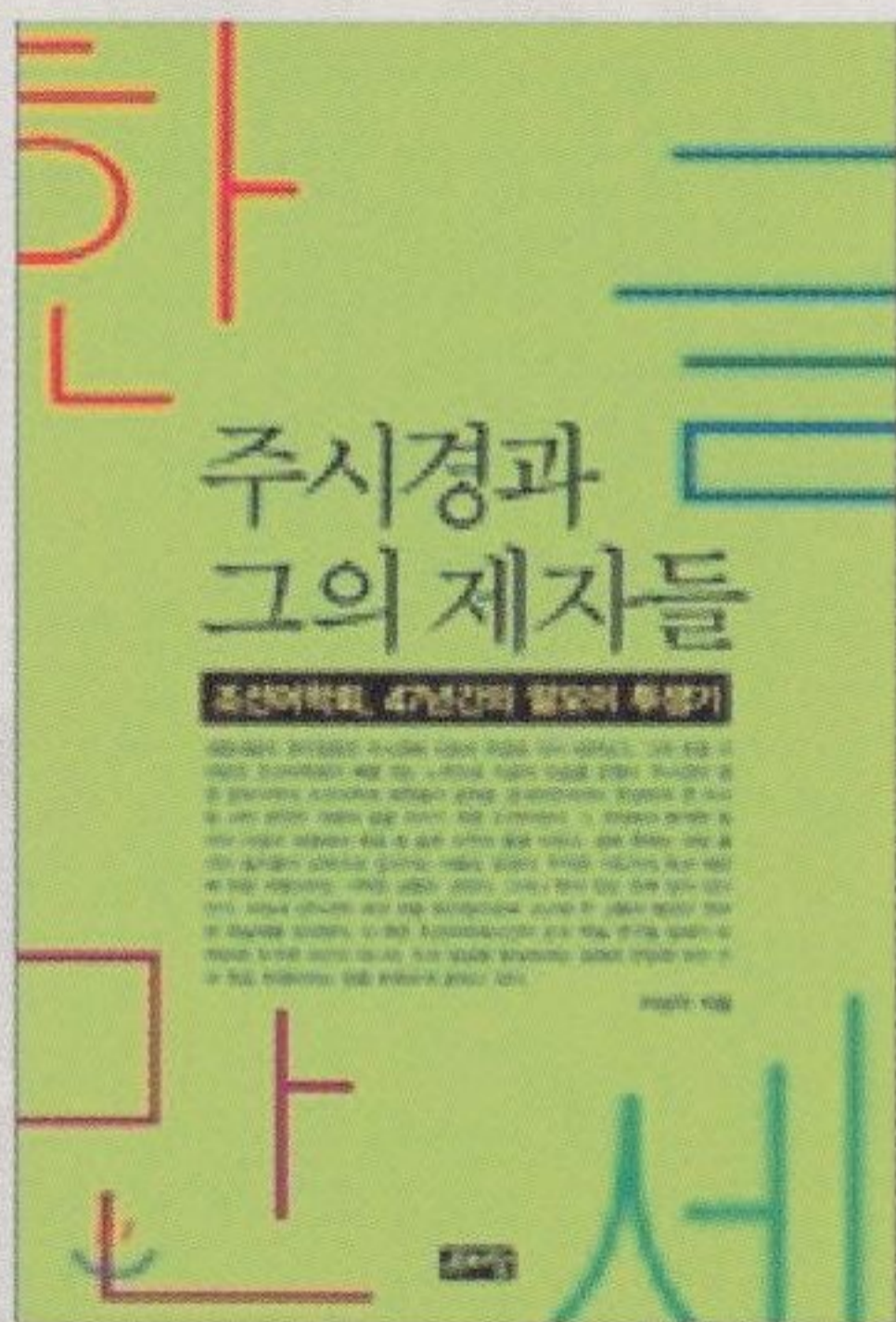




## 강나루 하나

이상개 지음 / 푸른별 / 127p / 8천원

시력(詩歷) 50여년의 이상개 시인이 11번째 시집을 발표했다. 시인은 1941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창원에서 성장했다. 1965년 <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은 부산 중앙동에서 빛남출판사를 운영하며 무크지 <문학의 지평>과 시집을 발간하며, 부산 문단을 이끌어왔다. '시와 자유', '잉여촌'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 시집에서는 평소 시인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 아래에 깔린 묵직하고도 첨예한 시정신이 느껴진다. 시집 말미에 수록된 시인의 산문은 시보다 더 재미있다. 이상개 시인은 "시는 다만 시로써 존재할 것이 아니라 시의 효력을 최대한 발휘하라. 굶아터진 세상의 환부를 단순한 약물이 아닌 독침으로 고쳐야 한다. 이열치열이요, 이도제독(以毒制毒)의 시술이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라고 일갈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다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마음 하나로 다스려야 한다고 깨달았을 땐 이미 칠순의 나이가 되어 있었다"고 낮은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 이 시집에는 시사만평가 안기태 화백의 일러스트가 실려 시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촌철살인의 시사만평과는 달리, 부드러운 풍자가 담긴 안기태 화백의 그림이 이상개 시인의 시와 잘 어우러지는 시집이다.



## 한글만세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이상각 지음 / 유리창 / 320p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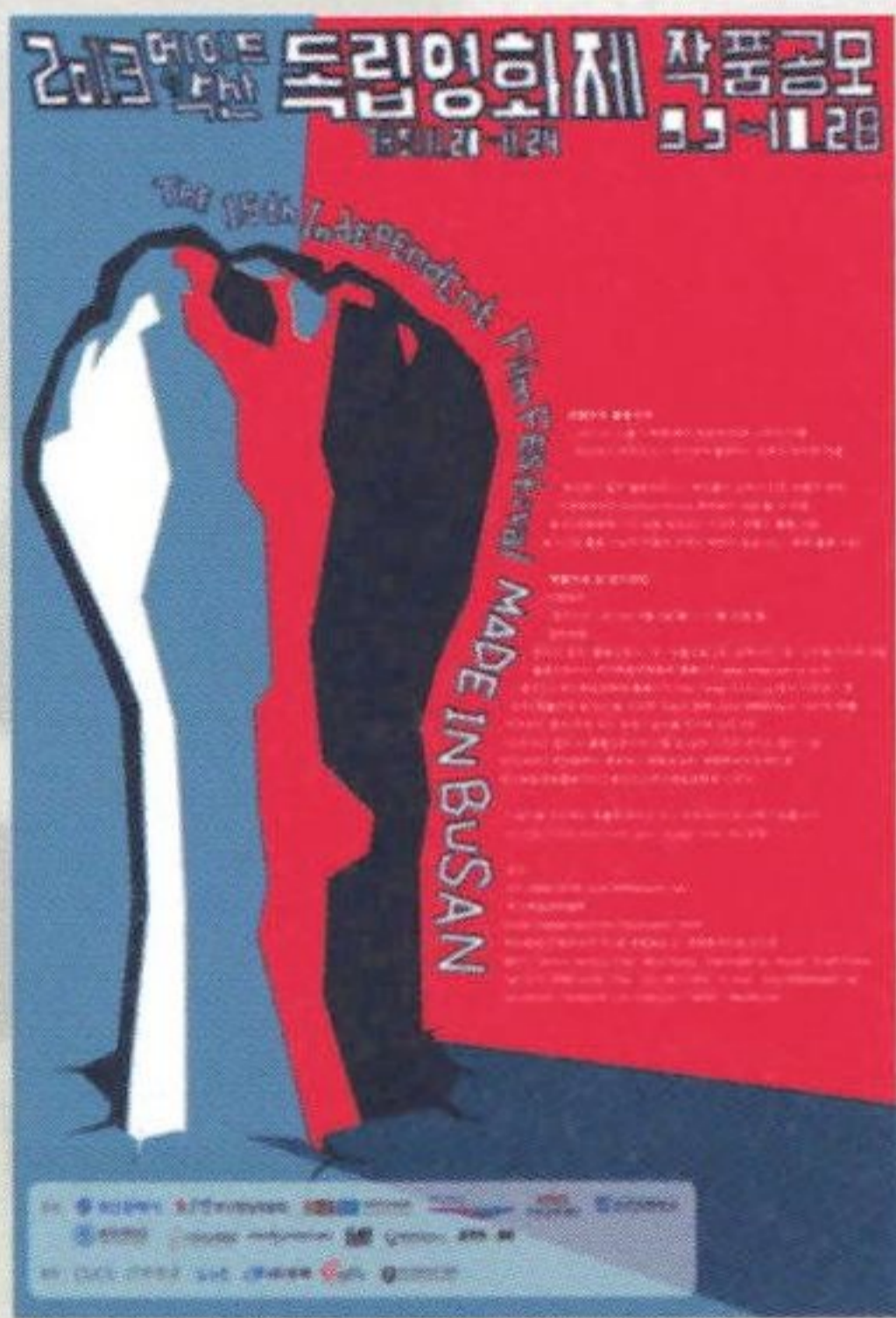
567돌을 맞은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됐다. 한글날은 1970년에 공휴일로 정해졌으나, 1990년을 마지막으로 취소됐다. 2005년 공휴일 없는 국경일로 지정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다.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책 한 권이 출간됐다. 이 책은 조선어학회 사건이 언어독립투쟁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최초의 교양서이다. 주시경은 1910년 무렵 '한글'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적으로는 1927년 조선어연구회 기관지 <한글>에서 처음 보이지만,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 및 국어학자들은 1910년부터 '정음'이나 '언문' 대신 '한글'이란 말을 사용했다. 물론 맞춤법의 체계를 잡아나간 것도 이 무렵 부터이다. 우리가 쓰는 한글이 이때 태어난 것이다.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은 우리 말글을 지키고 가꿔 나가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 장차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믿었다. 이 책은 한글학자의 한글 연구서가 아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한 근대사이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글이 어떻게 살아남아 이어졌는지 알게 하는 동시에, 한글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이주은 지음 / 이봄 / 288p / 1만 5천원

베스트셀러 '그림에, 마음을 놓다'와 '다, 그림이다'의 저자 이주은이 이번에는 '벨 에포크'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벨 에포크(La belle époque)'는 아름다운 시절, 좋은 시절이라는 의미이다. 인류의 긴 역사 중 유럽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그 짧은 20년을 사람들은 '벨 에포크'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시기로는 1890년경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1914년경까지를 말한다. 미술에서는 인상주의와 같이 모던한 미술경향이 두드러지는 1870년대부터이다. 그 길지 않은 시간을 꼭 짚어 사람들이 '아름다운 시절'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껏 짧지만 가장 찬란했고, 완벽해서 못 견디게 불안했던 그 시절에 대해 제대로 들려준 이가 없었다. 영화, 기차, 바캉스, 백화점 그리고 도시의 화려한 불빛 같은 오늘날의 거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그 시기에 폭발적으로 태어났음에도 말이다. 이 책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는 2013년을 사는 우리에게 100년 전 그 시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려고 한다. 몸으로는 오늘을 살지만, 정작 마음과 머리로는 내일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이 '찬란했던 어제'의 이야기는 오히려 내가 머무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감각을 선연하게 깨워준다.





**제15회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  
11월 20~24일 영화의전당 소극장·시네마테크

제15회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재)영화의전당 소극장과 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부산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는 지역 독립영화제 중 유일하게 부산지역 영화만으로 경쟁초청을 진행하는 영화제로, 부산 영상문화의 다양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행사이다. 또, 영화제를 통해 부산에서 영화를 만드는 이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창작물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창작자와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올해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에서는 공식 상영작 및 초청작 상영, 한국독립영화제연대 작품교환 상영, 청소년영화 특별섹션 상영으로 진행되며 일본의 후쿠오카 독립영화들을 초청함으로써 문화적 연대와 함께 창작의 교류를 가진다. 또 지난해에 이어 부산의 창작 다큐멘터리 및 실험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시선을 담아내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 지원하는 '메이드인 부산 & 월요일 아침 논픽션 프로젝트' 펀드의 작품제작 지원도 함께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과 상영일정은 메이드인부산독립영화제 홈페이지 ([www.ifmib.org](http://www.ifmib.org)) 참조.



**부산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옴니버스영화 '어떤 시선'**  
10월 24일 개봉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어떤 시선'은 사회적 약자나 신체적 약자, 혹은 어떤 결핍이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풀어낸 옴니버스 영화이다. 장애인 문제를 다룬 박정범 감독의 '두한에게', 노인 문제를 다룬 신아가, 이상철 감독의 '붕구는 배달중',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 민용근 감독의 '얼음강' 등 세 편의 단편영화가 상영된다. 영화 '무산일기'의 박정범 감독이 연출한 '두한에게'는 뇌병변장애를 지닌 두한과 두한의 친구인 중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갈등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길 잃은 유치원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다 납치범으로 오해 받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붕구는 배달 중'은 7세 할아버지 붕구와 7세 꼬마 행운이의 파란만장한 동행을 통해 60년이라는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낸다. 입대를 앞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어머니와 이별하는 과정을 그린 '얼음강'은 군입대를 앞두고 남모를 고민 중인 20대 청년과 이를 알아채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엄마와의 관계를 감독 특유의 섬세한 감정이 돋보이는 드라마로 그려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우정 '한나를 위한 소나타'**  
10월 24일 개봉

지포니 영화제 최우수 유럽영화상 수상, 예루살렘 최우수 작품상, 샌디에고 영화제 관객상 수상 등 해외 우수 영화제에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휩쓴 영화 '한나를 위한 소나타(감독/마르쿠스 로젠뮐러)'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음악으로 우정을 만들어 간 세 명의 음악천재들의 이야기를 그린 음악영화이다.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유대인이자 음악천재 남매인 아브라사와 라리사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인정받아 러시아를 돌며 순회공연을 펼친다. 그리고 우연히 이들의 공연을 본 독일 소녀 한나는 그들의 연주에 매료되어 함께 음악공부를 하며 우정을 쌓아간다. 하지만, 독일의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이들의 운명은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 아이들의 아름다운 스토리와 극 중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잔혹한 전쟁의 시대적 상황과 대비되어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 영화 '한나를 위한 소나타'는 지난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섹션에 상영되어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등 뜨거운 주목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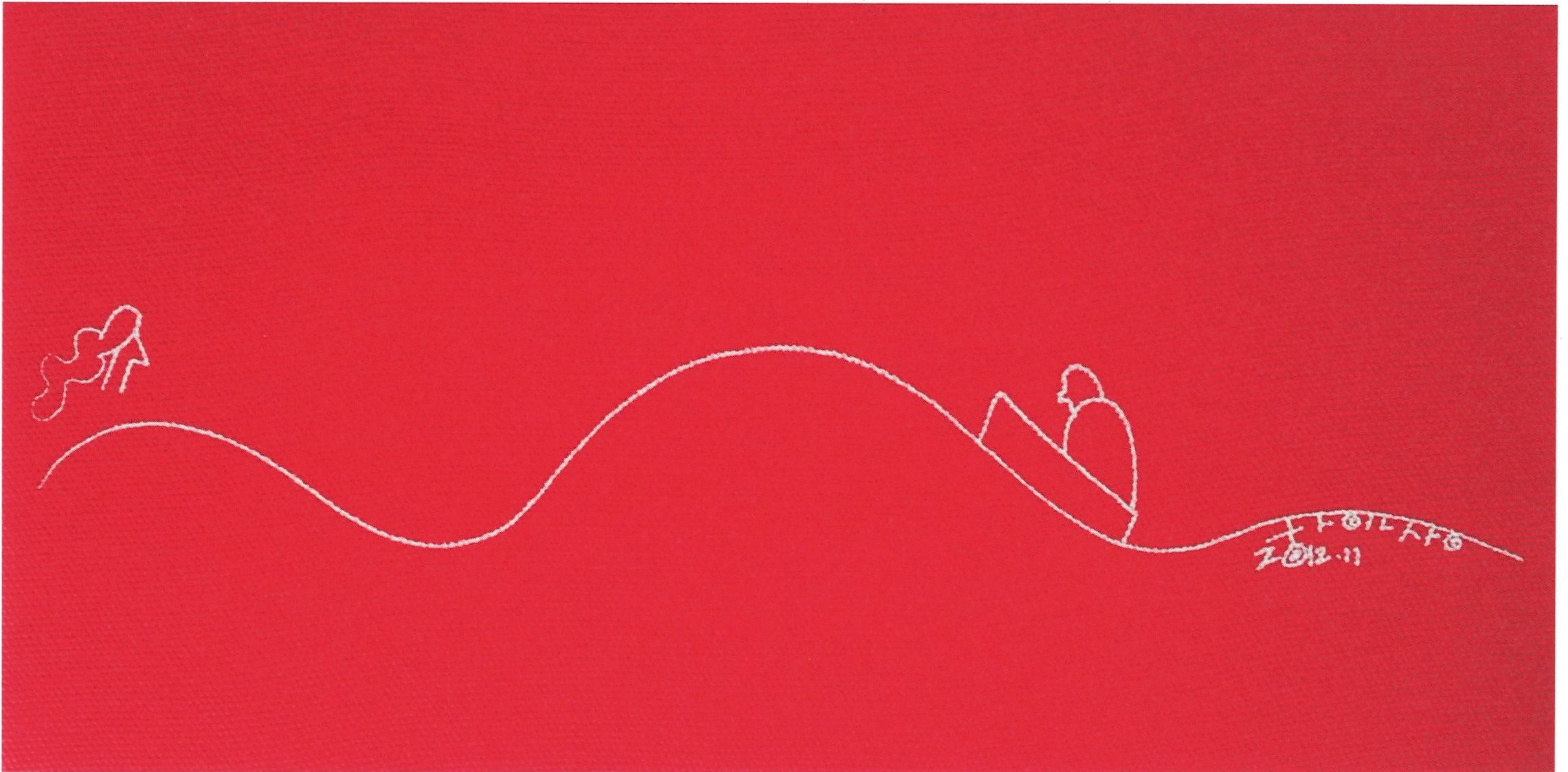
하인상의  
생각그림

# Metaphortoon

## 흐르다Ⅲ

세상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지만 때로는 거슬러 오르려는 욕망이 우리를 갈등과 번민으로 몰아넣는다.

메타포투니스트, 시인



## 부산문화회관 2013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에서 마련하는 부산문화회관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이 11월과 12월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은 매년 수능이 끝난 후 부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부산시립예술단 5개 상임단체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11월 12일(화)	11:00	부산시립합창단 'For the Dream'
11월 14일(목)	11: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힐링 콘서트'
11월 18일(월)-19일(화)	11:00	부산시립극단 '귀족수업'
11월 21일(목)-22일(금)	11:00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12월 17일(화)	11:00	부산시립무용단 '구령당당 신선비'

## 11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문화회관의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11월 일정이 확정되었다. 11월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모아사랑 태교음악회'을 비롯해 2회의 내사랑 부산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11월 5일(화)	14:30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화홀	교향악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제35회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11월 6일(수)	12:30	부산광역시청 로비	국악관현악단	내사랑 부산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11월 12일(화)	15:00	시민회관 대극장	합창단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내사랑 부산 공연 '부산장애인복지관 개관식'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6)

# 하늘아래 그 콘서트

## ‘하늘아래 그 콘서트’가 막을 내립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소극장 공연 활성화와 새로운 공연 문화 창출, 젊은 문화회관의 이미지 연출을 위해 장기 기획한 브랜드 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가 2009년 9월 시작으로 2013년 11월 서른아홉 번째 휴먼레이스 무대를 마지막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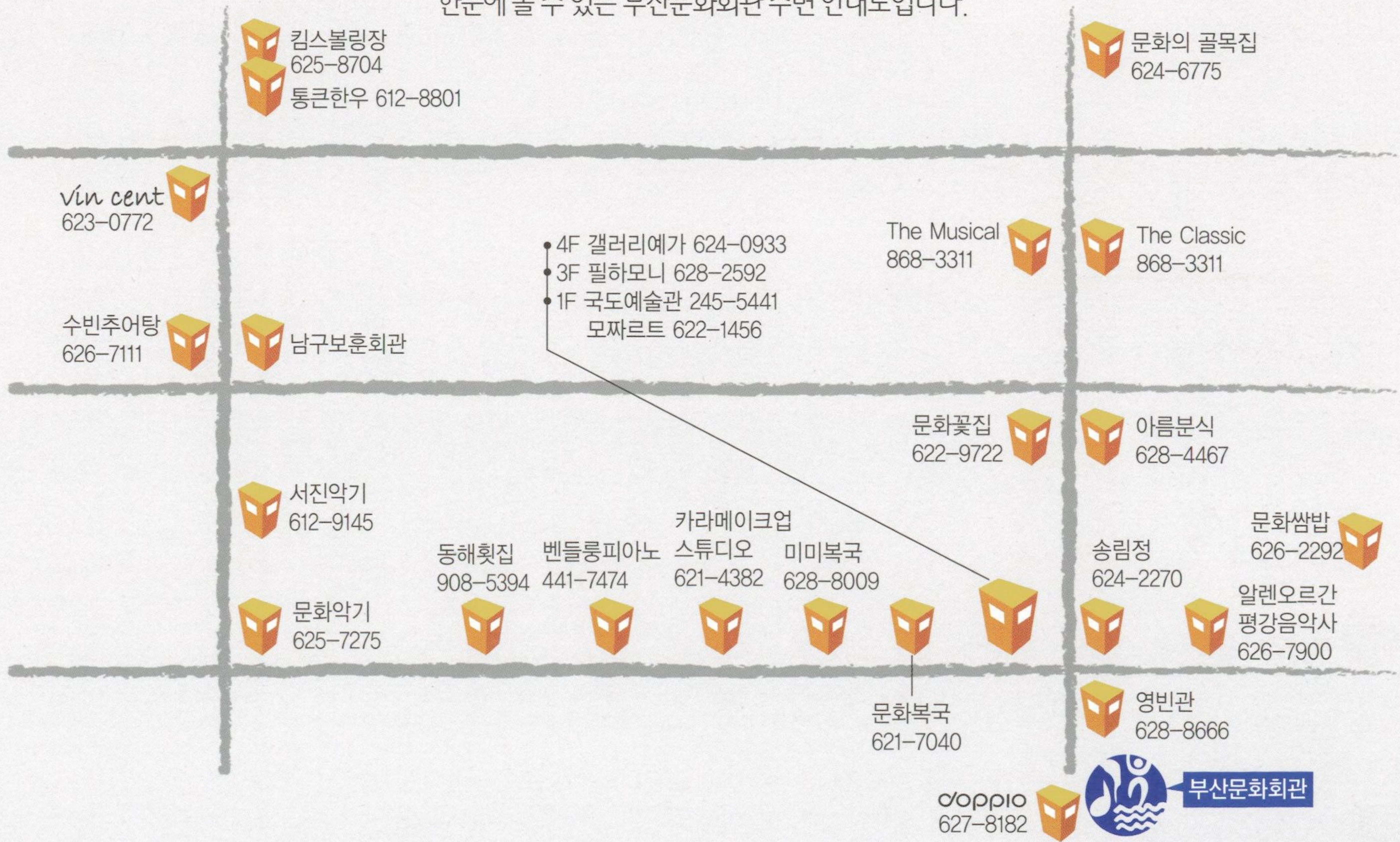
‘하늘아래 그 콘서트’는 실력 있는 뮤지션과 열정적인 관객의 만남이었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 음악팬들의 오랜 목마름이 해소되고 참신하고 다양한 음악이 소개되는 창구로, 관객과 뮤지션이 즐겁게 소통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 즐거운 소통은 ‘하그콘’이라는 애칭과 더불어 2천여 명의 팬들이 활동하는 클럽을 탄생하게 하였으며, 실력 있는 뮤지션의 열정을 더욱더 이끌어내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그콘은 젊은 감각에 맞춘 맞춤형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의 문화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관객과 뮤지션의 뜨거운 열정과 공감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하그콘’이 아니어도 부산 지역의 다른 공연장이나 민간 기획사를 통해 참신하고 실력 있는 뮤지션들을 만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그콘’은 박수와 아쉬움 속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그콘’에 보내주셨던 관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잊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기대와 선호에 부응하는 또 다른 공연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그콘 클럽’은 지속 운영되오니 좋은 의견과 뮤지션들의 정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그콘’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시간에 쫓겨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 지난호정답

유	키	구	라	모	토	가	덕	도
진	글	네				시		교
오		큰	마	오	리	족		
닐	암	스트	롱	페				성
	각	라		라		와		당
동	화	베	니	스	의	상	인	
		이		유				탁
외	비	우	스	고	령	화	가	족
	너		요				우	
노	스	트	라	다	무	스	디	스

### 10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덕희(부산진구 초읍동) 박영희(남구 문현동) 신미옥(수영구 수영동) 주미숙(동래구 안락2동) 홍소라(연제구 연산9동)

**조은극장 초대권** 김은미(서구 서대신동) 남정호(금정구 남산동) 박은영(중구 중앙동) 송서연(사하구 괴정동) 하은주(부산진구 개금동)

**큰집 식사권** 김신숙(사하구 당리동) 김옥재(부산진구 초읍동) 박장환(동래구 온천동) 조봉래(금정구 구서2동) 최진숙(사하구 하단2동)

**도서 감각의 미술관** 김정희(금정구 구서동) 배영미(수영구 망미동) 성정훈(해운대구 우동) 이창훈(동래구 온천3동) 주미영(부산진구 범일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韓國傳統飲食店 큰집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이주는



### [가로열쇠]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11월 29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발레공연. 독일의 환상소설 작가인 E.T.A. 호프만의 동화에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이 더해진 고전 발레의 명작이다.
-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영화산업의 각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에 가장 공헌도가 높은 분야나 그 담당자들에게 주어지는 황금색 상(像)의 명칭.
- 오스트리아의 지휘자(1908~1989). 1955년 이래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을 시작으로 유럽의 주요 오케스트라와 오페라극장을 장악했던 지휘자였고, 더 나아가 오페라 연출, 음악영화 연출, 매니지먼트 사업, 교육, 음악치료 등 뮤직 비즈니스에 전방위적으로 손을 뻗은 20세기 클래식 음악계의 황제였다.
-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주 이 말을 외치면서 더욱 유명해진 용어로, 영화에서는 전통과 규율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자유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다.
- 러시아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1901년(28세) 그의 대표곡인 '피아노 협주곡 제2번'으로 글린카상을 수상했다.

### [세로열쇠]

- 바르셀로나 태생인 스페인의 리릭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와 더불어 세계 3대 테너라 불린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洞). 일반적으로는 골동품, 화랑, 표구, 필방, 전통공예품, 전통차집, 전통음식점 등이 집중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제작자. 현재의 표준형 바이올린을 창시했으며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최고의 명기(名器)로 꼽힌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비평가들이 자기 나라에서 성행한 범죄와 파멸이 반복되는 내용을 다룬 일련의 할리우드 영화에 부여한 명칭.
- 19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강형철 감독의 영화.
- 유대계의 독일인 작가. 인간 운명의 부조리, 인간 존재의 불안을 통찰하여, 현대 인간의 실존적 체험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표현하여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대표작으로 '변신' '성(城)' '심판' 등이 있다.
- 미국의 대중가수이자 영화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려 특유의 저음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팝송.

###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1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사냥꾼. 사후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되었는데, 000자리는 가장 화려하면서도 찾기 쉬운 별자리로 손꼽힌다.
- 영국 남서부에 있는 지방.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제외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데다가 산맥이 한랭한 북동풍을 가로막아 서해안 일대의 기후가 온난해서 관광객이 많다.
- 나쁜 기운인 '살'을 쫓는다는 의미의 춤으로 무속이나 교방, 권번을 통하여 전해진 민속무용이다.
- 예술의 경지에 오른 위대한 무인 업문과 그를 사랑한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무림의 세계를 그린 왕가위 감독의 영화.
-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의 남동부에 있는 국가. 수도는 수바(suva). 바다와 섬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아름다워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고 있으며, '블루리군' '캐스트 어웨이' 등 영화촬영지로도 유명하다.
- 미국 프로야구 연맹의 최상위 두 리그를 이르는 말.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로 나뉘며, 양 리그의 우승 팀끼리 해마다 월드 시리즈를 치른다.
-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 경남지방 일대에 두루 분포되어 있던 민속가면극. 다섯 광대가 탈을 쓰고 춤추며, 대개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000라 불리었다.
- 눈 위를 지치는 데 쓰는 좁고 긴 판상(板狀)의 기구. 나무나 금속,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신발이 부착되어 있으며 2개의 지팡이를 잡고 달린다.
- 의붓아버지 헤롯왕 앞에서 춤을 춘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는 신약성서의 인물로, 와일드의 희곡, R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등 많은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어왔다.
- 재물을 훔친 후 매화 한 가지를 남겼다는 중국 소설 속 의적.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소설, 만화, 드라마 등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문화적 현상과 같은 어떤 대상이 처음 시작한 나라. 태권도의 000 한국.
- 인도의 여성들이 입는 민속의상. 재단한 의복이 아니고 한 장의 기다란 견포(絹布) 또는 면포를 허리에 감고 어깨에 두르거나 머리에 덮어써워 입는다.

# November 2013 Program Guide

# 11

2013  
November

● Grand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P.Y.O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 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10th Regular Concert of Busan Chorus Choir 19:30 Invitation/Busan Chorus Choir(010-2551-7542)</p> <p><span style="color: green;">●</span> Ein Ensemble 'Letter Conveying the Earth' 19:00 Invitation/Ein Ensemble(010-5423-7400)</p>	<p><span style="color: red;">●</span> Simone Dinnerstein Piano Concert 19:30 Invitation/EAGON(02-547-5707)</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8th Regular Concert of Korea Music Association Haneol 18:00 Invitation/Haneol (010-4503-1175)</p> <p><span style="color: green;">●</span> Saturday Regular Stage-Bus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3	4	5	6	7	8	9
<p><span style="color: red;">●</span> Jeremy Jouve &amp; Jo Hyeonmi Duo Concert 17:00 30,000/20,000/10,000(Busan Culture)(1600-1803)</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3rd Regular Concert of Busan Eunpa Choir 18:00 Free/Busan Eunpa Choir(010-3839-1084)</p> <p><span style="color: green;">●</span> The Ocarina Concert 16:00 Free/Busan Ocarina Club, Hurkpiri(010-2947-9580)</p>		<p><span style="color: red;">●</span> 2013 Moscow Philharmonic Orchestra in Busan 19:30 150,000/120,000/100,000/80,000/50,000(B.C.C)(607-6057)</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37th Regular Concert of Italian Music Study Group 19:30 Italian Music Study Group(010-6439-1875)</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16th Love and Peace Music Concert 19:00 Invitation/Namgu Culture-music Society(010-9287-6350)</p> <p><span style="color: green;">●</span> Han Yeonggil Daeguem Concert 19:30 Invitation/Han Yeonggil(010-3863-1028)</p>	<p><span style="color: blue;">●</span> Pungmulnori-the Korean traditional music 19:30 Free/Busan Women Culture center(320-8334)</p> <p><span style="color: green;">●</span> Special Performances for Foreigners 15:00 Free/Busan Cultural Center(607-6056)</p>	<p><span style="color: red;">●</span> Teatro Comunale Luciano Pavarotti Modena invited opera 'Nabucco' 19:30 280,000/230,000/160,000/100,000/80,000/50,000 SOL &amp; MUSIC COMPANY(1544-9373)</p> <p><span style="color: blue;">●</span> Soprano Jo Huijeong Recital 19:30 Invitation/Jo Huijeong(010-3861-1903)</p> <p><span style="color: green;">●</span> First Dance Performance of Kim Sinhui Dance Company 19:30 Free/Kim Sinhui Dance Company(010-2841-4544)</p>	<p><span style="color: red;">●</span> Teatro Comunale Luciano Pavarotti Modena invited opera 'Nabucco' 19:30 280,000/230,000/160,000/100,000/80,000/50,000 SOL &amp; MUSIC COMPANY(1544-9373)</p> <p><span style="color: blue;">●</span> 36 Founding Anniversary Concert of Donga Choir 18:00 Free/Ain Huisun(010-3866-7274)</p> <p><span style="color: green;">●</span> Saturday Regular Stage-Soribad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10	11	12	13	14	15	16
<p><span style="color: red;">●</span> Teatro Comunale Luciano Pavarotti Modena invited opera 'Nabucco' 19:30 280,000/230,000/160,000/100,000/80,000/50,000 SOL &amp; MUSIC COMPANY(1544-9373)</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7th Regular Concert of Gwangnam United Orchestra 17:00 Invitation(Gwangnam United Orchestra)(010-4555-1470)</p>	<p><span style="color: red;">●</span> The Regular Concert of Busan Women's Union Choir 19:30 Busan Women's Union Choir(011-833-0621)</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43rd Regular Concert of German Study Group Song 19:30 10,000/5,000(German Study Group Song)(010-2692-6856)</p> <p><span style="color: green;">●</span> Saemulgul Dance Performance 19:30 Busan Dance Association(632-5116)</p>	<p><span style="color: red;">●</span> Grand Piano Festival 19:30 10,000/The Music Association of Busan (634-1295)</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Harmony Choir for Teenager 'For the Dream' 11:00 2,000/B.M.H.C(607-3141-2)</p>	<p><span style="color: green;">●</span> Saemulgul Dance Performance 19:30 Busan Dance Association(632-5116)</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Special Concert of The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for Teenager 'Healing Concert' 11:00 2,000/B.M.T.O(607-3121-2)</p>	<p><span style="color: red;">●</span> The 49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V'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p> <p><span style="color: blue;">●</span> Soprano Kim Siha Recital 19:30 Invitation/Kim Siha(010-4081-6490)</p> <p><span style="color: green;">●</span> The Concert, Under the Sky Vol.39 'Human Race' 20:00 30,000/Busan Cultural Center(607-6057)</p>	<p><span style="color: red;">●</span> The 35th Regular Concert of Busan Catholic Choir 19:00 10,000/Busan Catholic Choir(010-8368-2445)</p> <p><span style="color: green;">●</span> Saturday Regular Stage-Mori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17	18	19	20	21	22	23
<p><span style="color: red;">●</span> The 23th Benefit Concert of Aloysius Symphony Orchestra 18:00 10,000/Aloysius Symphony Orchestra(250-5270, 010-2732-3910)</p>	<p><span style="color: red;">●</span> The 36th Regular Concert of Busan Symphony Orchestra-Rachmaninov Symphony Series 19:30 30,000/20,000/10,000/B.S.O(621-4577)</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for Teenager 'Le Bourgeois Gentilhomme' 11:00 2,000/B.C.C(607-6045)</p> <p><span style="color: green;">●</span> Seo Hyewon Class (Klavier Abend) 19:30 Free/Seo Hyewon(010-2545-2513)</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for Teenager 'Le Bourgeois Gentilhomme' 11:00 2,000/B.C.C(607-6045)</p> <p><span style="color: green;">●</span> Kim Eunhee's Piano Class Concert 18:30 Free/Kim Eunhee(010-9269-3567)</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169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19:30 10,000/7,000/5,000/B.M.T.O(607-3121-2)</p>	<p><span style="color: red;">●</span> The 69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9:30 10,000/7,000/5,000/B.M.D.C(607-3131-2)</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lassics for Teens' 11:00 2,000/B.C.C(607-6045)</p> <p><span style="color: green;">●</span> 2013 Dong-a University Graduation Dance Performance 19:30 Free/Lim Minkyung(010-8766-2618)</p>	<p><span style="color: red;">●</span> The 69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19:30 10,000/7,000/5,000/B.M.D.C(607-3131-2)</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Classics for Teens' 11:00 2,000/B.C.C(607-6045)</p> <p><span style="color: green;">●</span> Jeong Misuk Dance Performance 19:30 10,000/Jeong Misuk Dance Company(010-3869-1530)</p>	<p><span style="color: red;">●</span> The 44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Symphony Orchestra 19:30 20,000/10,000/Incorean Symphony Orchestra(626-8081)</p> <p><span style="color: blue;">●</span> 2013 The Regular Concert of Silla University Chorus 18:00 Free/Silla University(010-9172-5552)</p> <p><span style="color: green;">●</span> Saturday Regular Stage-Namsan moimdaeng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24	25	26	27	28	29	30
<p><span style="color: red;">●</span> Neighbor Love Concert 19:30 10,000/Mahasal(756-2340, 010-3627-2228)</p> <p><span style="color: blue;">●</span> Founding Concert for the Sound-Ridden Vocal 17:00 10,000/Sound-Ridden Vocal(010-3165-4414)</p> <p><span style="color: green;">●</span> Mun Gwangwon Piano Concert 17:00 20,000/10,000/Lee Jihyun(010-7159-6841)</p>		<p><span style="color: green;">●</span> Kim Munju's Piano Class 19:30 Free/Kim Munju(010-6488-8375)</p>	<p><span style="color: blue;">●</span> Baritone Yun Ogeon Recital 19:30 Invitation/Yun Ogeon (00-9304-6791)</p> <p><span style="color: green;">●</span> Kim Munju's Piano Class 19:30 Free/Kim Munju(010-6488-8375)</p>	<p><span style="color: blue;">●</span> The 17th Regular Concert of Mirusaem Choir 19:30 Invitation/Busan Women Culture Center(320-8334)</p> <p><span style="color: green;">●</span> Hyegang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inter Concert 2013 19:30 Free/Hyegang(316-4014, 010-7316-4014)</p>	<p><span style="color: red;">●</span> Universal Ballet 'The Nutcracker' 19:30 100,000/70,000/50,000/30,000/B.C.C(607-6058)</p> <p><span style="color: blue;">●</span> 2013 Vocal Academy in Busan 'The Night of Songs and Arias' 19:30 10,000/Vocal Academy in Busan(010-7767-4390)</p> <p><span style="color: green;">●</span> Dongeui University Arts Conservatory's Concert 19:30 Invitation/Seo hangyeol(010-9304-3233)</p>	<p><span style="color: red;">●</span> Universal Ballet 'The Nutcracker' 15:00 100,000/70,000/50,000/30,000/B.C.C(607-6058)</p> <p><span style="color: blue;">●</span> Slovakia Cappella Istropolitana Orchestra in Busan 19:00 70,000/50,000/30,000/20,000/KoreaMusical(02-2272-6516)</p> <p><span style="color: green;">●</span> Saturday Regular Stage-Busan Philharmony Orchestra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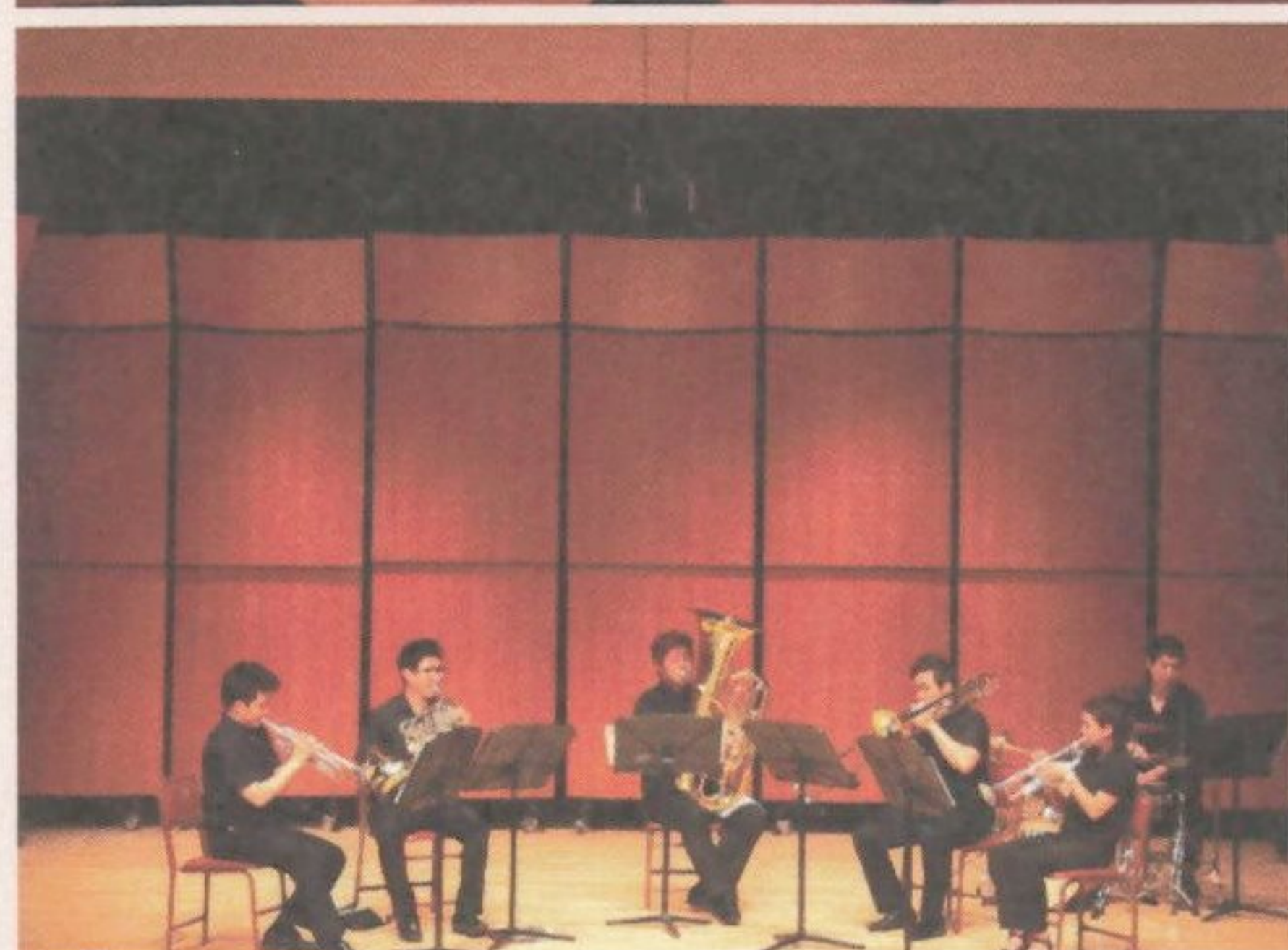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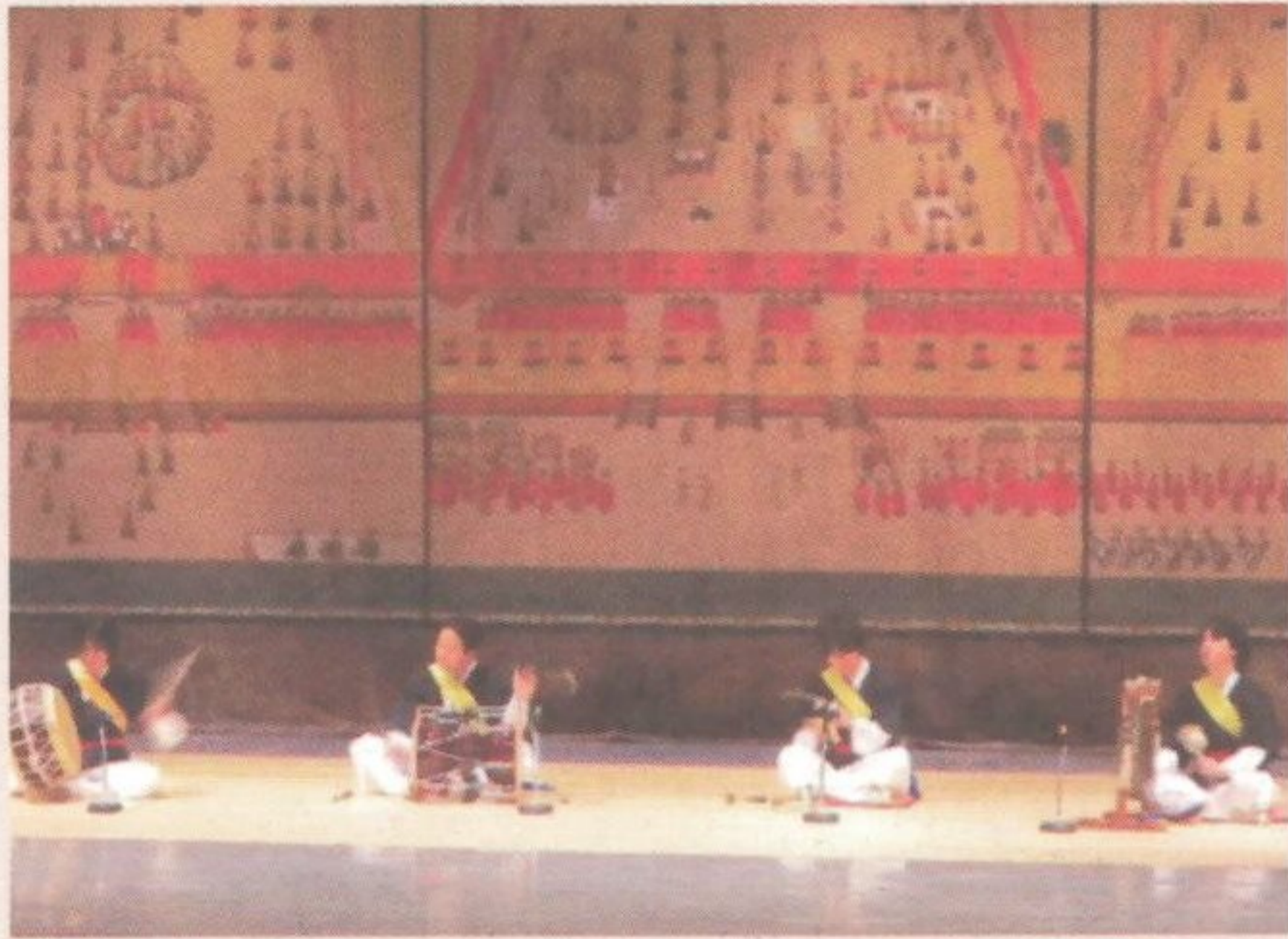
# 2013년 11월 공연일정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아외공연장 ●국제회의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b>전시실</b></p> <p>동아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전시회 -대, 중전시실 10월 28일(월)-11월 2일(토) 문의:이준혁(010-4484-3356)</p> <p>2013 부산서예비엔날레-대, 중전시실 11월 7일(목)-11월 14일(목) 문의:(사)부산서예비엔날레 (863-8177, 011-557-7791)</p>	<p>제33회 부산미술제-대, 중전시실 11월 18일(월)-11월 23일(토) 문의:부산미술협회(632-2400)</p> <p>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전시회-대, 중전시실 11월 26일(화)-12월 1일(일) 문의:안영주(010-5041-0893)</p>				<p><b>1</b></p> <p>부산교라스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교라스합창단(010-2551-7542)</p> <p>아이인양상블 '자기가 전하는 편지 V 가을여행' 19:00 초대/아이인양상블(010-5423-7460)</p>	<p><b>2</b></p> <p>제24회 이강 음악회 '시몬 디나스틴 초청연주회' 19:30 초대(초대권소지자에 한해 입장) 이강창호(02-547-5707)</p> <p>2013 한얼악회 제8회 정기연주회 18:00 무료/한얼악회(010-4503-1175)</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8세 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p>한일 친선 오카리나의 밤 19:30 신세계오카리나 아카데미(010-5486-6173)</p>
<p><b>3</b></p> <p>유럽 최고의 기타리스트 제레미 쥬브 &amp;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듀오 콘서트 17:00 3만원 2만원 1만원/부산문화(1600-1803)</p> <p>부산문화재단 제3회 정기연주회 18:00 무료/부산문화재단(010-3839-1084)</p> <p>홍파리 제25회 정기연주회 16:00 무료/홍파리(632-5893, 010-2947-9580)</p>	<p><b>4</b></p>	<p><b>5</b></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3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 19:30 15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5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p> <p>이태리음악연구회 제37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만원/이태리음악연구회(010-6439-1875)</p>	<p><b>6</b></p> <p>제16회 사랑과 평화의 음악회 19:00 초대/부산시 남구문화회(010-9287-6350)</p> <p>제2회 한영길 대금독주회 '樂, 歌, 舞' 19:30 초대/한영길(010-3863-1028)</p>	<p><b>7</b></p> <p>부산여성문화회관 풍물놀이봉사단 제3회 정기공연 19:30 무료/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4)</p> <p>외국인을 위한 특별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5:00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p>	<p><b>8</b></p> <p>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시립극장 초청오페라 '나부코' 19:30 28만원 23만원 16만원 10만원 8만원 5만원/솔오페라단(1544-9373)</p> <p>소프라노 조희정 귀국독창회 19:30 초대/조희정(010-3861-1903)</p> <p>김신희 무용단 첫 출판 19:30 무료/김신희 무용단(010-2841-4544)</p>	<p><b>9</b></p> <p>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시립극장 초청오페라 '나부코' 19:30 28만원 23만원 16만원 10만원 8만원 5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p> <p>동아합창단 창단36주년 기념음악회 18:00 무료/안희진(010-3868-7274)</p> <p>토요상설무대-소리바다 콘서트 16:00 무료(8세 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p><b>10</b></p> <p>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모데나 루치아노 파바로티 시립극장 초청오페라 '나부코' 19:30 28만원 23만원 16만원 10만원 8만원 5만원/솔오페라단(1544-9373)</p> <p>광남 유나이티드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17:00 초대/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010-4555-1470)</p>	<p><b>11</b></p> <p>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011-833-0621)</p> <p>제43회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5천원/독일가곡연구회(010-2892-6866)</p> <p>부산무용협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균일 1만원/한국무용협회 부산시지회(632-5116)</p>	<p><b>12</b></p> <p>제6회 피아노 그랜드 피스티벌 19:30 균일 1만원/한국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p> <p>부산시립합창단-수험생을 위한 해설 음악회 'For the Dream'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5)</p>	<p><b>13</b></p> <p>부산무용협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균일 1만원/한국무용협회 부산시지회(632-5116)</p>	<p><b>14</b></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공연 '힐링콘서트'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5)</p>	<p><b>15</b></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리스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V'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3)</p> <p>소프라노 김시하 귀국독창회 19:30 초대/김시하(010-4081-6490)</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콘서트 Vol.39 '휴먼레이스'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6)</p>	<p><b>16</b></p> <p>부산가톨릭합창단 제35회 정기연주회 19:00 균일 1만원/부산가톨릭합창단(010-8368-2445)</p> <p>토요상설무대-가무악 모리와 함께하는 김영서의 소리콘서트 16:00 무료(8세 이상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p>
<p><b>17</b></p> <p>한국의 베토벤 유영옥과 함께하는 제23회 알로이스 오케스트라 자선음악회 18:00 균일 1만원/소년의집(250-5270, 010-2732-3910)</p>	<p><b>18</b></p> <p>미에스트로 오송근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시리즈 II 19:30 3만원 2만원 1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p>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귀족수업'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5)</p> <p>제3회 서해원 Class Klavier Abend 19:30 무료/서해원(010-2545-2513)</p>	<p><b>19</b></p> <p>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귀족수업'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5)</p> <p>피아니스트 김은희 클래스 연주회 18:30 무료/김은희(010-9269-5567)</p>	<p><b>20</b></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69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12~2)</p> <p>동아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발표회 19:30 무료/임민경(010-8766-2610)</p>	<p><b>21</b></p> <p>부산시립무용단 제69회 정기공연 '40-춘추는 영혼' 19:30 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p> <p>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5)</p>	<p><b>22</b></p> <p>부산시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40-춘추는 영혼' 19:30 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p> <p>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11:00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45)</p> <p>정미숙의 춤 '춤' III 19:30 균일 1만원/정미숙 무용단(010-3869-1530)</p>	<p><b>23</b></p> <p>제44회 인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1만원/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p> <p>2013 신라대학교 학생 정기연주회 18:00 무료/신라대학교 음악대학(999-5265)</p> <p>토요상설무대-남산놀이마당 '타페(Topper)' 16:00 무료(8세 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p><b>24</b></p> <p>평양 한민족 예술단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 콘서트 19:30 균일 1만원/마하서(756-2340, 010-3627-2228)</p> <p>소리쟁이 성악연구회 주최 '10인의 음악회' 17:00 균일 1만원/소리쟁이 성악연구회(010-3165-4414)</p> <p>문광원 피아노 콘서트 17:00 2만원 1만원/이지현(010-7159-6841)</p>	<p><b>25</b></p>	<p><b>26</b></p> <p>김문주 PIANO CLASS 연주회 19:30 무료/김문주(010-6488-8375)</p>	<p><b>27</b></p> <p>바리톤 윤오건 귀국독창회 19:30 초대/윤오건(00-9304-6791)</p> <p>김문주 PIANO CLASS 연주회 19:30 무료/김문주(010-6488-8375)</p>	<p><b>28</b></p> <p>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생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4)</p> <p>해강국악원 2013년도 송년 음악회 19:30 초대/해강국악원(316-4014, 010-7316-4014)</p>	<p><b>29</b></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9:30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2013 부산성악 아카데미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균일 1만원/부산성악아카데미(010-7767-4390)</p> <p>동아대학교 예술종합서비스부소리바다 창단공연 '三人三呼' 19:30 초대/서한결(010-9304-3233)</p>	<p><b>30</b></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5:00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p> <p>슬로바키아 카펠라 이스트로폴리타나 내한연주회 19:00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코리아뮤지카(02-2272-6516)</p> <p>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4중주 &amp; 금관 5중주 16:00 무료(8세 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 표 공연은 부산문화재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11월 2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함녕지곡(집박/채수만·대금/한영길, 이만형, 최재호·피리/박영은, 권미정, 진형준·해금/이은주, 최윤희, 이세미·아쟁/권혜정, 최희정 외)

서용석류 대금산조(대금/강영진, 장구/이장우)

판소리/정선희, 고수/송강수

현악합주 '침향무' (가야금/김혜진, 정세희·거문고/이대하, 이유진·장구/장미진)

사물놀이(팽과리/이주현·장구/전학수·징/이경희·북/박재현)

※지휘/김철호 ※해설/전현진



11월 9일

소리바다 콘서트

▶ 프로그램

거위의 꿈, Rivers Of Babylon, Dancing Queen,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 고래의 꿈, 내 마음의 보석상자, 사랑비, Unchained Melody, 광화문 연가 등 수곡



11월 16일

가무악 모리와 함께하는 김영서의 소리콘서트

▶ 프로그램

동래학춤과 구음(춤/황동하·구음/김영서·팽과리/최오성·장구/정은진·북/이중희·징/최영훈)

주제가 있는 판소리 '봉별정한' (소리/김영서·고수/최오성·대금/이중희·아쟁/최영훈·가야금/박은정)

가야금양상블/비틀즈 히트넘버, 파헬벨의 '캐논' (가야금/박은정, 나주희, 이초희)

남도민요/가무악과 시서화 '추야장 밤도 길더라' (소리/김영서·장고/최오성·대금/이중희·아쟁/최영훈·가야금/박은정·춤/황동하·서예/안병도)



11월 23일

전문예술법인 남산놀이마당 '타퍼(Topper)'

▶ 프로그램

INTRO, Into the Busan, Chicken Run, RUSH & CASH, 나쁜 오후, TAKE OUT, 기원, 솟대, 솟대날다

·출연/정승천, 조대일, 방형웅, 임채련, 장재희, 박정희, 류재철, 한상훈, 김예빈, 김준, 김호진, 우정은, 스텝크루



11월 30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4중주 & 금관 5중주

▶ 프로그램

파헬벨/캐논

하이든/현악4중주 제53번 라장조 '종달새' 작품64-5 중 제1악장

보로딘/현악4중주 제2번 다장조 중 제3악장

콘티/이제 날으리(영화 '록키' 주제곡)

앨퍼트/티후아나 택시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중 행진곡-사탕 요정의 춤-러시아 춤

폴락/댓츠 어 플렌티 등 수곡

-현악4중주(연주/ViolinI, 임지영, ViolinII, 박예지, Viola, 성정인, Cello, 신윤경)

-금관5중주(연주/TrumpetI, 박승훈, TrumpetII, 황은정 Horn, 김영민, Trombone, 최민재, Tuba, 차병규, SetDrum, 조용운)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 사천

2013년 12월 13일(금)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사천 대나무 마을 비봉 내에서 즐기는 건강체험, 김동리 선생의 소설 등신불이 탄생한 다솔사, 별주부전의 무대인 비토섬에서 즐기는 굴구워 먹기로 건강한 겨울을 맞는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다솔사 탐방
- 11:00 사천 비봉내 마을 도착, 대나무 숲 산책, 전통놀이 체험
- 12:00 중식
- 13:00 대나무 비누 만들기(성인), 대나무 악기만들기(어린이)
- 13: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30 비토섬으로 이동, 굴구워 먹기
- 16:30 부산으로 출발



## 대가야의 문화가 살아 있는 고령

2014년 1월 10일(금)

곳곳에 대가야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 고령으로 떠나는 역사기행. 대가야박물관을 시작으로 대가야왕릉 전시관, 우륵박물관, 점필재 선생의 정신이 살아있는 개실마을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대가야박물관, 대가야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답사
- 12:30 개실마을 도착, 중식
- 13:30 개실마을 탐방 및 전통체험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30 부산으로 출발



##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November Vol.263

culture.busan.go.kr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11.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3호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11.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3호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센텀점



20% Discount



10% Dis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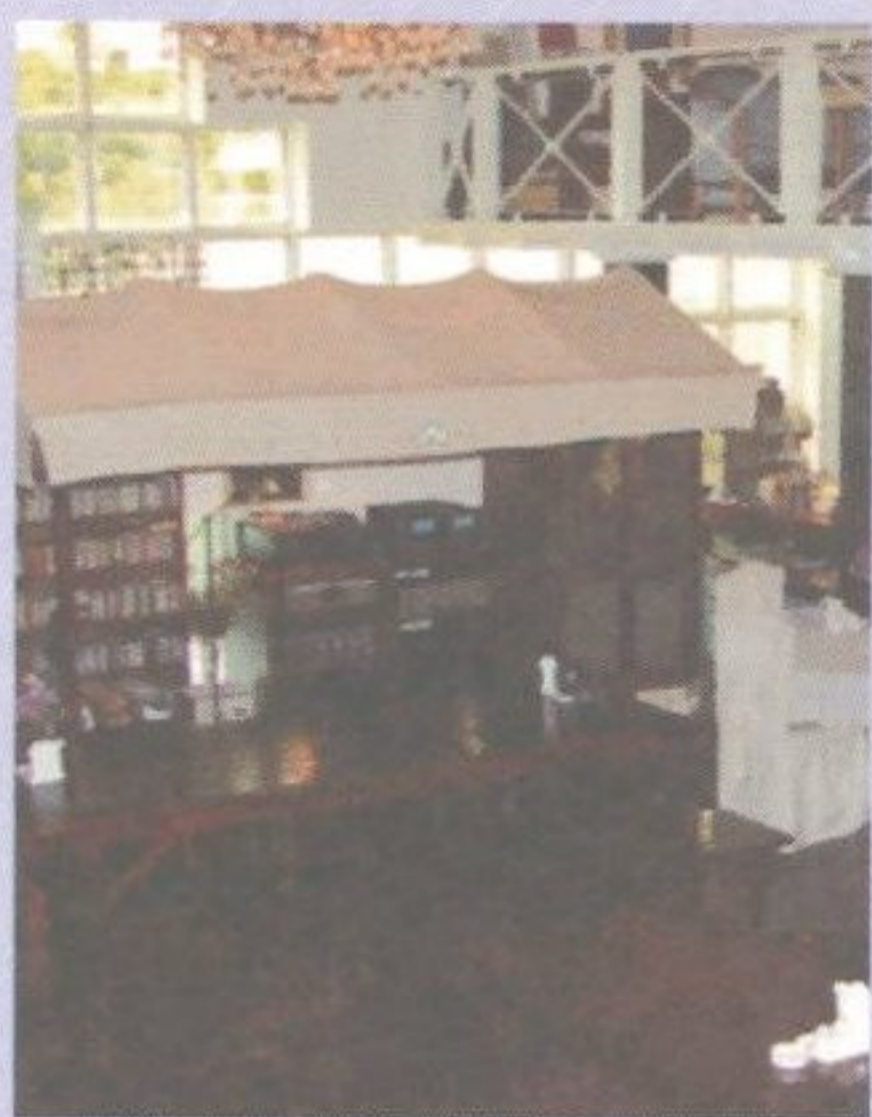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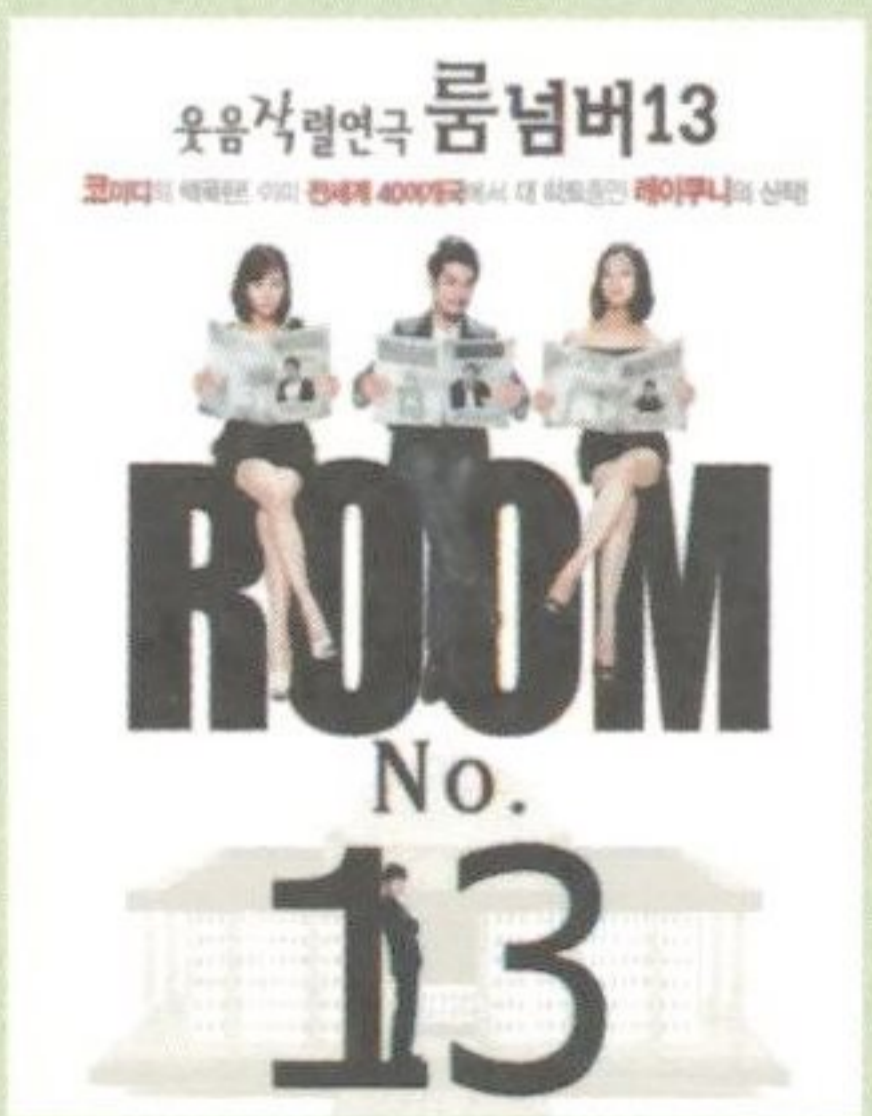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20% Discount

연극  
룸넘버 13

vin 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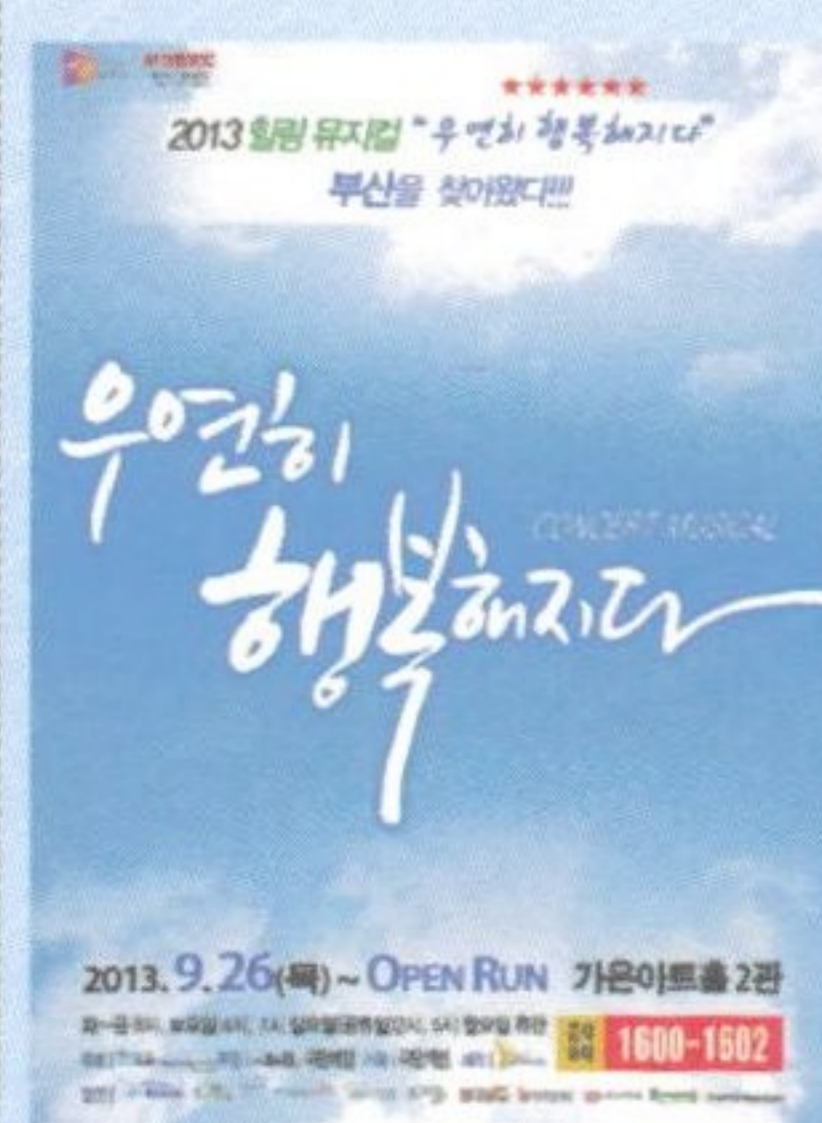
핸드 드립/Espresso Coffee 전문점 Take out  
Tel. 051-623-0772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10% 할인(커피에 한함)

송림정

Tel. 051-624-2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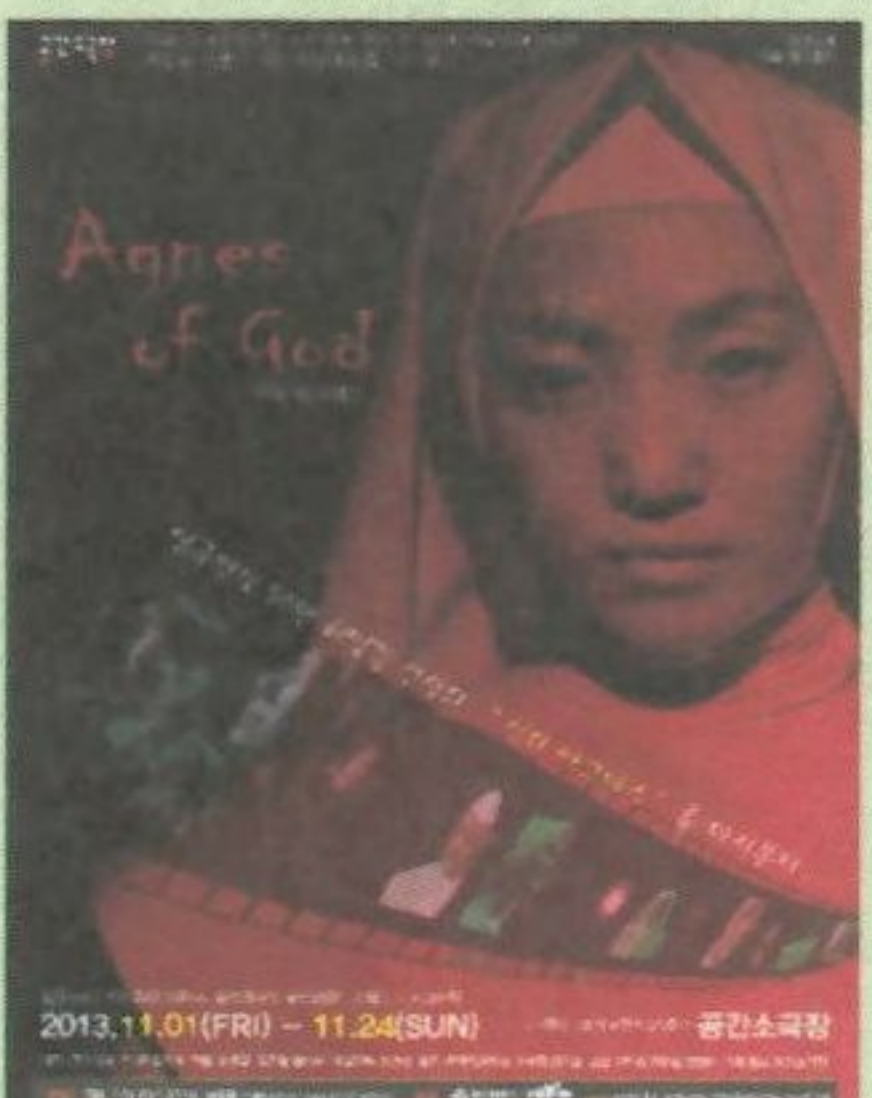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5% 할인



20% Discount

콘서트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20% Discount

허영길의  
신의 아그네스

**토다이 센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2-1456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뉴탑치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부산 해운대구 우동 602-5  
 051)744-2806

---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 '룸넘버13'**  
 2013.9.26(목)-12.1(일)  
 평일 오후 5시, 8시, 주말·공휴일 오후 4시, 7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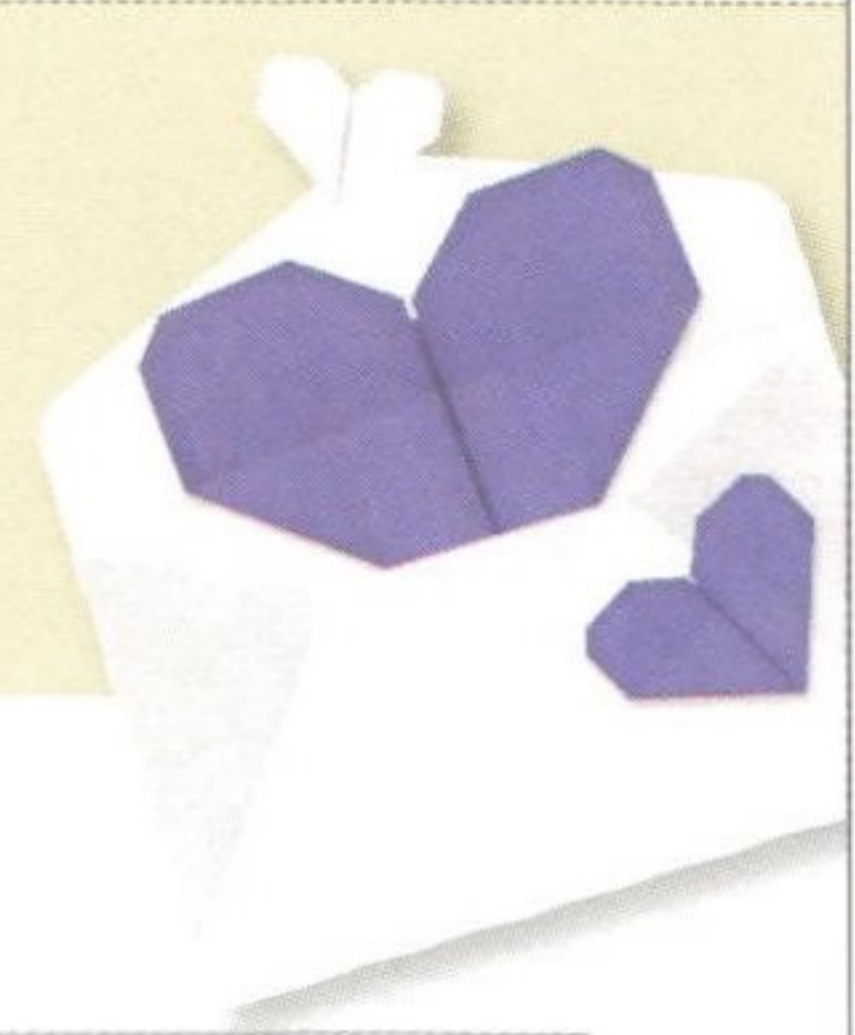
**허영길의 '신의 아그네스'**  
 2013.11.1(금)-24(일)  
 평일 8시/주말, 공휴일 5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소극장(611-8518)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culture.busan.go.kr

**2013년 12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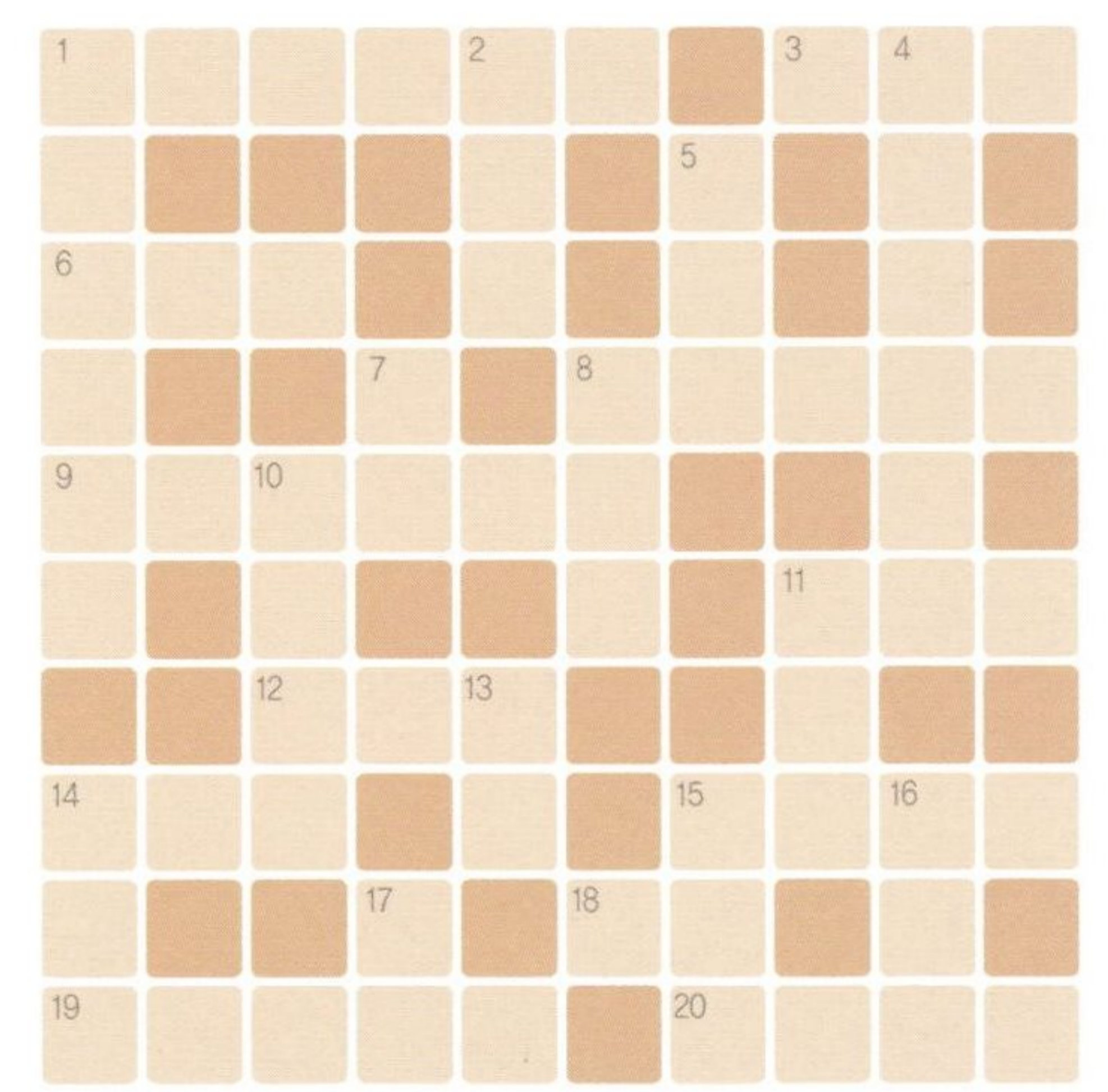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NO

YES

광고 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 2013 부산문화회관 송년음악회

L.v.Beethoven  
- Symphony No.9 'Choral'

‘합창’



지휘 리 신차오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하석배  
베이스 함석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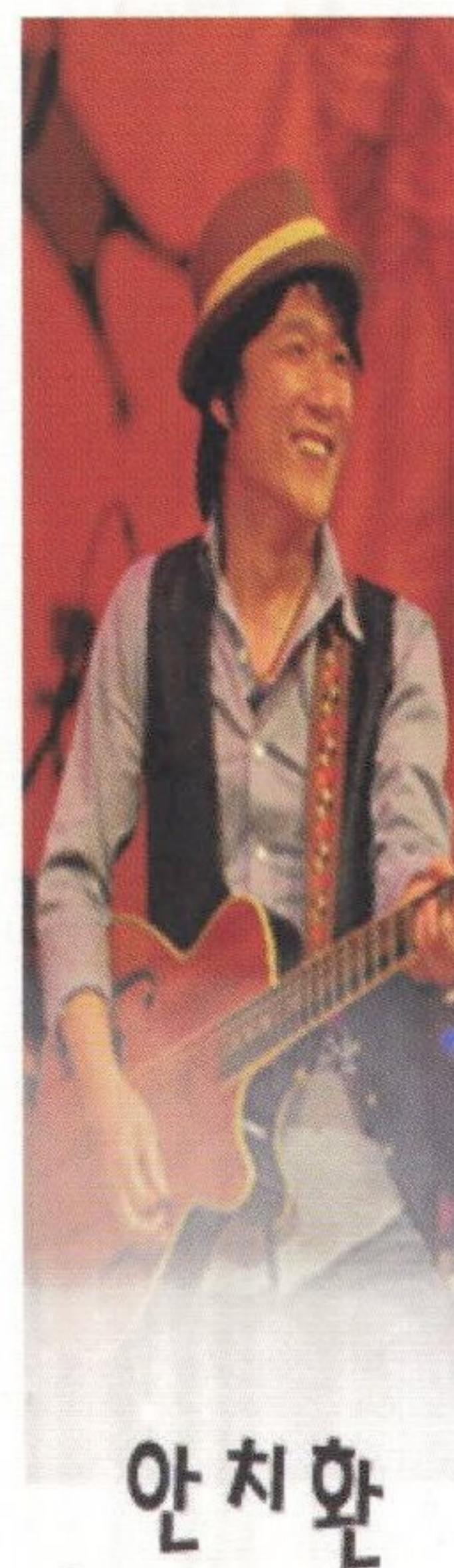
2013. 12. 12 목\_ 13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 5천원 ·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주관 부산문화회관

연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브의 밤

# 7080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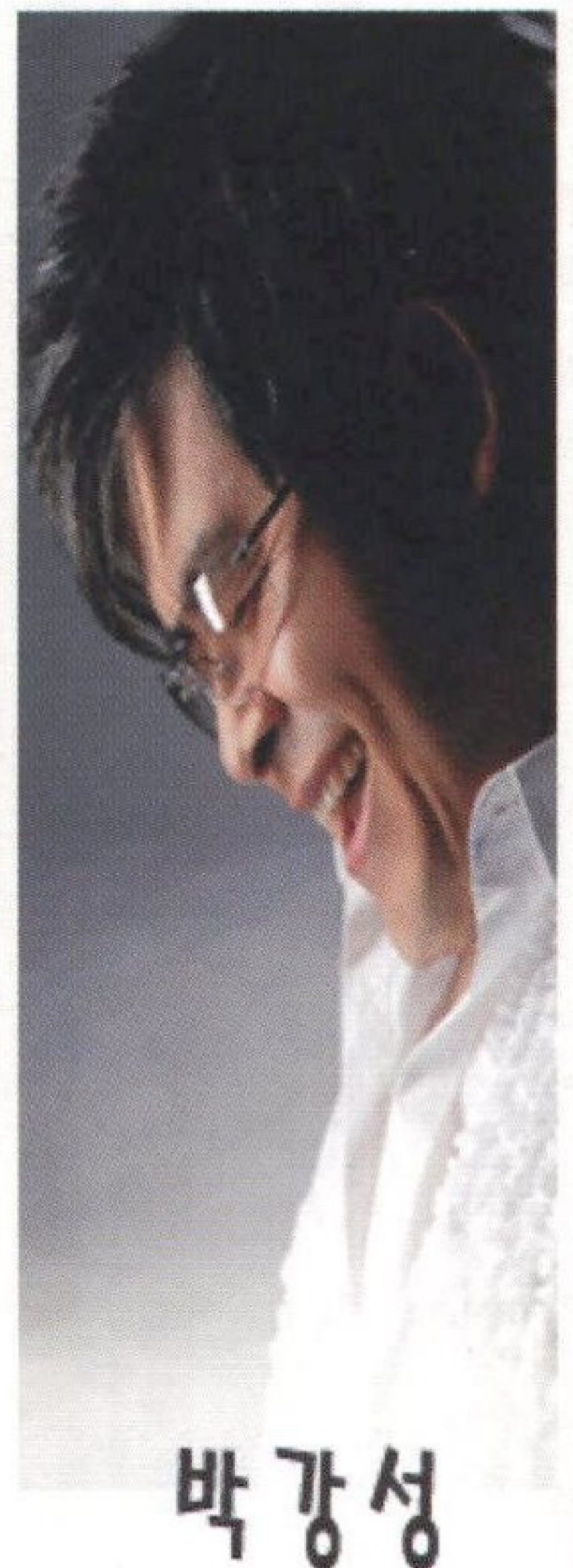
안치환



해바라기



민해경



박강성

2013 .12.24(화)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예약 051. 607. 6057

주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문화회관  
티켓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ticketlink 티켓링크 1588-7890 / 부산은행 전지점



#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2013.11.29(금)19:30 ~ 11.30(토)15: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 1588-7890, 부산은행전지점 문의 | 051-607-6058